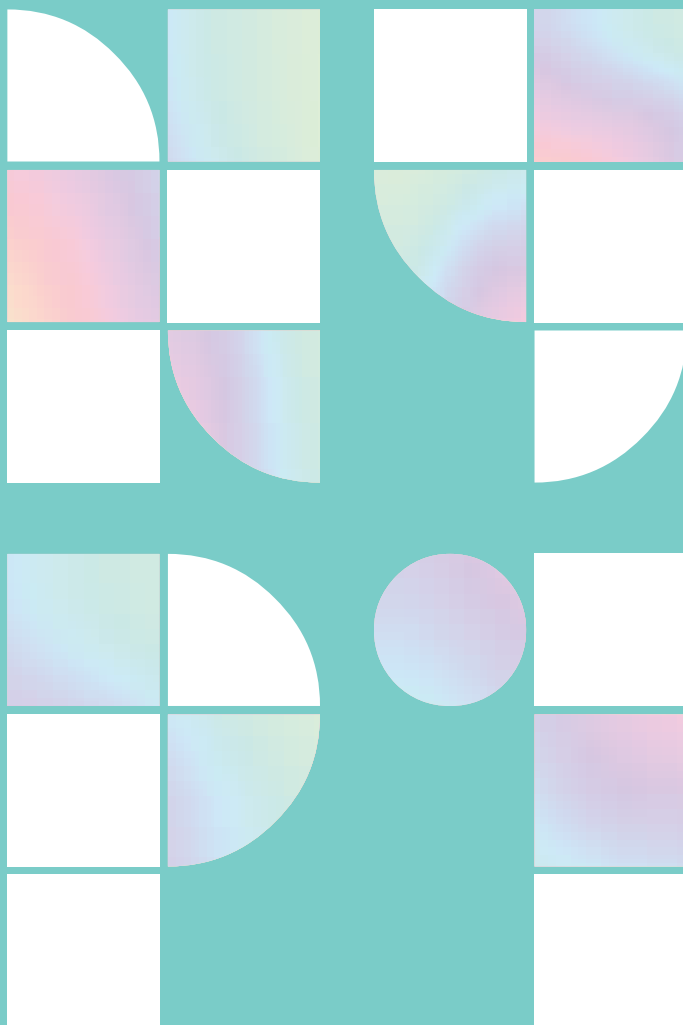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1-R13

하형석 · 황진구 · 김성은 · 이용해



연구보고 21-R13

202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저 자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연구진 연구책임자_하형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용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추어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을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과 그 요인들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비전 설정과 체계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패널데이터의 지속적인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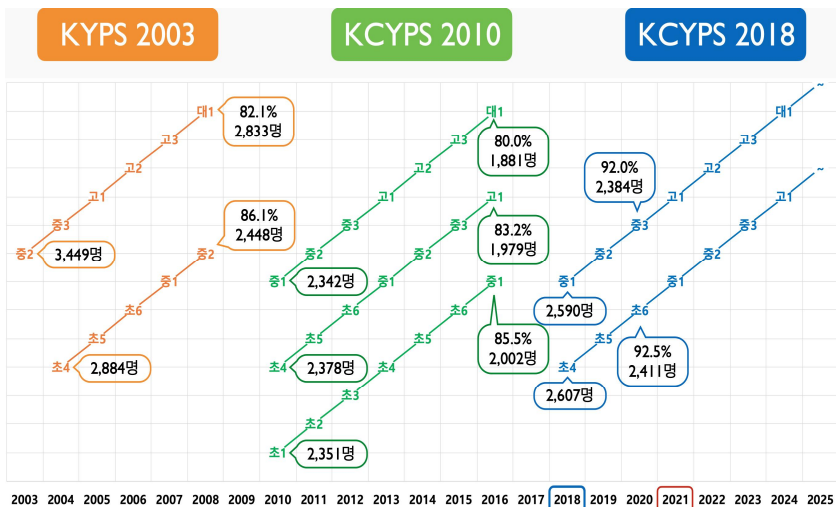
이 연구를 통해 생산된 패널데이터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요약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 (기대 효과) 본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교한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연구와 과학적 정책수립에 기여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기여
 - 아동·청소년기 성장과 발달 과정, 사회·경제적 변화, 정책적 개입이 성인기 이행 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패널조사 연혁) 패널조사 사업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KYPS 2003, 2003년-2008년)
 - (목적)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진로결정 및 준비, 일탈행위, 자아관 등에 대한 자료 구축
 - (대상) 2003년 기준 중2 3,449명, 2004년 기준 초4 2,884명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2010년-2016년)
 - (목적)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
 - (대상) 2010년 기준 초1, 초4, 중1 각 2,300여명(총 7,071명)
- ※ 2010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402002호)로 지정됨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2018년-)
 - (목적)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
 - (대상)
 - 1) 원패널: 2018년 기준 초4 2,607명, 중1 2,590명
 - 2) 원패널의 보호자: 각 코호트별 2,500여명(총 5,000여명)
 - 3) 원패널의 형제자매: 각 코호트별 1,000여명(총 2,000여명)



연구요약그림-1 패널조사 연혁

● KCYPS 2018 조사 경과

- (제1~3차년도 경과) KCYPS 2018의 제1차년도부터 제3차년도 조사까지의 조사 경과는 다음과 같음

• KCYPS 2018 패널구축 및 제1차년도 조사(2018년)

→ 원패널: 총 5,197명(초등학교 4학년 2,607명, 중학교 1학년 2,590명)

→ 원패널의 보호자: 총 5,197명(초4 코호트 2,607명, 중1 코호트 2,590명)

• KCYPS 2018 제2차년도 추적조사 및 형제자매 조사(2019년)

→ 원패널 유지율: 전체 93.8% (4,875명 / 5,197명)

→ 원패널의 보호자: 총 4,873명(초4 코호트 2,435명, 중1 코호트 2,438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총 1,949명(초4 코호트 911명, 중1 코호트 1,038명)

• KCYPS 2018 제3차년도 추적조사 및 형제자매 조사(2020년)

→ 원패널 유지율: 전체 92.3% (4,795명 / 5,197명),

초4 92.5% (2,411명 / 2,607명),

중1 92.0% (2,384명 / 2,590명)

→ 원패널의 보호자: 총 4,790명(초4 코호트 2,410명, 중1 코호트 2,380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총 1,905명(초4 코호트 990명, 중1 코호트 915명)

- (제3차년도 조사 특이사항) 조사도구 효과 - mode effect

•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는 갑작스런 실사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코로나19)로 인해 8월부터 시작된 실사에서 지속적으로 면접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패널들에 의해 나타남

• 실사 기간 중인 10월 초 조사기간을 8월~11월에서 8월~12월로 1개월 연장하고, 11월 실사부터는 코로나19로 면접원 대면접촉에 부담이 있는 패널에 대해 기 구축된 TAPI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를 병행

• 조사가 완료된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의 원패널 4,796명(원패널 유지율 92.3%) 중 약 26.2%(1,256명)가 온라인조사로 응답

- 온라인조사 병행으로의 조사방식 변경은 결론론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공존하는 결과
- (작용) 패널유지율을 크게 하락시키지 않음(제2차년도 패널유지율 대비 1.5%p 하락)
- (반작용) 조사방식의 차이에 따른 조사결과 차이, 즉,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조사도구 병행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KCYPS 2018 제3차년도 데이터 구축 후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에 대한 분석 진행
 - 조사도구 효과란 조사도구에 따라 응답값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출발
 - 이론적으로 정확한 조사도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시점에 동일한 설문으로 서로 다른 조사도구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조사도구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배분하는 등의 실험설계 방법을 사용
 - 그러나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에서는 실사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고, 사후적으로 조사도구가 병행된 것이므로 조사도구 효과가 나타났는지의 여부도 사후적으로 살펴봄
- 분석 결과 조사도구 효과가 모든 문항 또는 응답들에서 동일하거나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조사도구에 따라 응답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함
- 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널유지율의 감소를 최소화 시켰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조사 병행의 이익이 조사도구 효과에 따른 결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손해보다 종합적으로 크다고 판단됨

2. 2021년 사업 내용

- KCYPS 2021년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 데이터 공개(제3차년도 데이터),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네 영역으로 구분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조사 문항	기본 모듈 수정·보완 및 스페셜 모듈 개발
	조사 준비	패널 유지 및 관리 / 조사원 교육
	조사 실사	아동·청소년 + 형제자매 : 개별면접조사
		보호자 : 개별면접조사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종단면/횡단면 데이터 클리닝
		종단면/횡단면 가중치 산출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	조사대상자 정보	조사대상자 정보 갱신 방안 마련
	조사내용 수정·보완	조사문항 수정·보완
	조사 실사	컴퓨터를 활용한 웹조사
데이터 공개 (제3차년도 데이터)	1차 데이터 공개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참가자
	최종 데이터 공개	데이터 파일 / 코드북 / 유저가이드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데이터 활용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분석	데이터분석보고서 / NYPI Bluenote 통계

연구요약그림-2 KCYPS 2021년 사업 체계도

1)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원패널	초등학교 4학년 원패널 2,607명	중학교 1학년 원패널 2,590명
원패널의 보호자/형제자매	원패널의 보호자 2,607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 명	원패널의 보호자 2,590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 명
조사방법	TAPI :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조사내용	• 아동·청소년 : 기본 모듈[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정서인식 역량) • 보호자 : 기본 모듈[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정서인식 역량)	

연구요약그림-3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개요

- (원패널)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 KCYPS 2018은 2018년 구축된 원패널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성장과 발달 과정을 조사
- (원패널의 보호자)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음. 이 말은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모의 행동이나 성향, 성격 등이 자녀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됨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보호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KCYPS 2018의 조사 목적에 부합

- 세대 간 이전에 대한 탐구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변화양상이 결정되는 경로에 대한 함의를 주며 비슷한 환경에 있음에도 전혀 다른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원패널의 형제자매) Sibling / Fraternal Birth Order Effect
 -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성장 및 발달해가는 가정 내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체계속에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해 가는데, 그 중 가장 미시적인 단계는 가정임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는 다양한 영역의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만, 가장 미시적 단계에서는 형제자매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함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형제자매 효과(Sibling Effects) 및 출생 순서 효과(Fraternal Birth Order Effect)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KCYPS 2018 제2차년도 조사부터는 원패널의 형제자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함
- (원패널)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 KCYPS 2018은 2018년 구축된 원패널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성장과 발달 과정을 조사
- (조사문항 구성)
 - (패널조사 연속성 유지) 패널조사 특성 상 일관된 조사결과를 위해 매 조사 착수마다 동일한 조사문항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KCYPS 2018은 기본 모듈(Basic Module)과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로 구성
 - (기본 모듈 / Basic Module) 기본 모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발달환경 등의 변화를 파악

- (기본 모듈 - 수정 사항) 조사 외적인 변화에 맞춰 학교 생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수정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1년 1학기의 학사운영은 학교마다 자체 여건에 맞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운영
 - 패널조사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를 묻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으로 나누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구분
- (기본 모듈 - 추가 사항) 초4 코호트가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1 코호트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조사 내적인 변화에 맞춰 아동·청소년 기본 모듈의 개인발달 대영역 중 진로 중영역의 소영역으로 진로적응력을 추가
 - 진로적응력 척도는 Savickas and Porfeli(2011)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Career Maturity Inventory: Adaptability Form)을 타당화한 김국현, 김진숙(2021)의 진로적응력 척도를 사용
 - 진로적응력 척도는 진로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호기심, 진로에 대한 자신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
- (스페셜 모듈 / Special Module) 스페셜 모듈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거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 가능하도록 구성
- (스페셜 모듈 - 2021년) 정서인식 역량
 -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MET는 사람의 눈과 표정을 통해 그 감정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고르는 것이며, 이를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는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중 사회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능력의 측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RMET는 심리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측정도구이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노동패널 제20차 조사(2017년)의 부가조사에 포함되었음
- 스페셜 모듈을 통해 정서인식 역량의 국제비교와 더불어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의 결과와도 비교가 가능
-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음

연구요약표-1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수행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원패널 유지관리	→	→	→	→	→	→	→	→	→	→	→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	→	→									
3. 조사문항 확정(기본 모듈 수정·보완 및 스페셜 모듈 개발)			→	→	→							
4. 실사 업체 선정			→	→								
5. NYPI IRB 심의					→	→						
6. 승인통계 변경승인						→	→					
7. TAPI 구축					→	→	→					
8. 면접원 교육							→					
9. 원패널 사전접촉						→	→					
10. 제4차년도 조사 실사								→	→	→	→	
11. 실사 참관 및 점검									→	→		
12. 데이터 처리									→	→	→	→
13.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2)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환경, 관련 정책적 개입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KCYPS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점까지 패널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를 2017년부터 진행하여 왔음
- 2020년 실시된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4차 유지조사’에서는 전체 원패널 2,351명 중 1,619명(68.9%)과의 접촉 및 연락에 성공하였음
- 접촉 및 연락에 성공한 패널(1,619명)을 대상으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한 제4차 접촉 패널 조사에는 1,42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접촉과 연락에 성공한 패널의 87.7%, 전체 원패널 2,351명의 60.4%에 해당함
- 2021년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는 기존 패널조사 및 1~4차 유지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2월에 진행함

3) 데이터 공개

-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 데이터는 올해 11월 19일에 개최된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유저가이드, 조사표, 코드북과 함께 학술대회용으로 우선 제공됨
- KCYPS 2018 제3차년도 데이터는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의견,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검토과정 등을 거쳐 데이터 코드북, 데이터 유저가이드와 함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nypi.re.kr/archive>)를 통해 일반에 공개
- KCYPS 2018 데이터는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자, 전문가, 학생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연구논문 집필, 학위논문 발간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데이터 활용 및 분석

-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 2021년 11월 19일(금)에 개최된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함
 - 연구계획서는 총 83편 접수되었고 최종 논문은 48편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논문 접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참가자 지속적 컨택 및 문의 사항에 적극적 대응하였고, 학술대회에는 최종 28편(대학원생 부문 3편 포함)의 논문이 발표됨
- 데이터분석보고서 및 NYPI Bluenote 통계 발간
 - 데이터분석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및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수행
 - 데이터분석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심리적 변화 분석, 불안감 및 대처요령 인지 정도 분석, 극단 불안 및 극단 안전에 관한 응답 경향성 분석 등 3가지 분석을 시행하였음
 -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생활은 여가시간 활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학습관련 변화에는 소득수준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긍정적인 효과로 일탈 및 비행행동의 감소가 나타났음
 -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 취약계층대상 비대면 학습지원의 성과 확인 및 확산, 학력격차·학습결손 문제에 대한 돌봄 격차로의 포괄적 접근과 관점의 전환, 청소년 비행 및 일탈행동 감소에 대한 심층 후속 연구 등을 제안함
 - KCYPS 2018 조사의 대외 확산을 위해 매년 조사 내용, 결과 등을 요약·정리하는 NYPI Bluenote 통계를 2021년 12월에 발간

3. 연구기여

-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은 총 3,511편임
 - 2019년 12월 처음으로 공개된 KCYPs 2018 조사 데이터는 약 2년 동안 322편의 학위논문과 학술 논문 등에 활용됨

연구요약표-2 KYPs 2003, KYPs 2010, K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3,511	100	1,187	100	2,002	100	322	100
학위 논문	박사	136	3.9	46	3.9	83	4.1	7	2.2
	석사	484	13.8	130	11.0	311	15.5	43	13.4
학술지논문		2,176	62.0	764	64.4	1,231	61.5	181	56.2
학술대회 발표논문		571	16.3	198	16.7	292	14.6	81	25.2
보고서/단행본		144	4.1	49	4.1	85	4.2	10	3.1

*2021년 기준 집계치임



연구요약그림-4 데이터 활용 실적 주요 키워드

202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1-R13

I. 서 론

1. 사업의 배경	3
2. 2021년 사업 내용	9
3. KCYPs 2018 조사 개요	14

II.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 결과

1. 실사 결과	21
2. 제3차년도 가중치 산출	28
3. 데이터 구축	37
4. 주요 조사 결과	39
5.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	56

III.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1. 조사 내용	91
2. 조사 준비	99
3. 실사 과정	108
4. 실사 관리	111

IV. 데이터 활용·분석

- 1. 데이터 활용 119
- 2. 데이터 분석 130

V. KCYPS 2010 유지조사

- 1.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137
- 2.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4차 유지조사 주요 결과 · 138
- 3.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2021년) 149

VI. 연구기여

- 1. KCYPS 이용자 만족도 153
- 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 155

참고문헌 165

부록 175

표 목차

표 I-1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수행 일정	11
표 I-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조사 개요 ...	15
표 II-1 초4 코호트 조사결과(제3차년도)	24
표 II-2 중1 코호트 조사결과(제3차년도)	25
표 II-3 원패널 조사실패 유형별 결과	26
표 II-4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간 관계	26
표 II-5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29
표 II-6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	29
표 II-7 초4 코호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변수선택 결과	31
표 II-8 초4 코호트 응답확률 추정값의 요약 통계량	31
표 II-9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32
표 II-10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	32
표 II-11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33
표 II-12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	34
표 II-13 중1 코호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변수선택 결과 ...	35
표 II-14 중1 코호트 응답확률 추정값의 요약 통계량	35
표 II-15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36
표 II-16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	37
표 III-17 KCYPS 2018 제3차년도 데이터셋 명칭	38
표 III-18 KCYPS 2018 제3차년도 항목 무응답 현황	39
표 II-19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 결과(온라인/면접)	75
표 II-20 조사도구 효과 파악을 위한 이중차분 분석 결과	81
표 II-21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 결과	85
표 III-1 KCYPS 2018 제4차년도 아동·청소년 조사 영역 및 항목 ...	97
표 III-2 KCYPS 2018 제4차년도 보호자 조사 영역 및 항목	98
표 III-3 면접원 교육 일정	104
표 III-4 실사 현장 참관 일정	112

표 III-5 현장의견 조사	113
표 IV-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119
표 IV-2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요	120
표 IV-3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추진 일정	121
표 IV-4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25
표 IV-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 발표 시상 내역	130
표 V-1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1~4차) 패널 접촉(연락) 유지율	139
표 V-2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1~4차) 접촉 패널 조사 성공률	140
표 V-3 현재의 신분 상황	142
표 V-4 청소년기 만족도	143
표 V-5 현재 삶 만족도	144
표 V-6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건	146
표 V-7 청소년기(고3) 대학 진학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147
표 V-8 청소년기(고3) 취업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148
표 V-9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 조사항목	150
표 VI-1 KCYPS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55
표 VI-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 ..	156
표 VI-3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연도별 데이터 활용실적	157
표 VI-4 연도별 데이터 활용 유형별 실적	159

그림 목차

그림 I-1	패널조사 연혁	7
그림 I-2	2021년 KCYPS 사업 체계도	9
그림 II-1	KCYPS 2018 실사 요약	22
그림 II-2	KCYPS 2018 제3차년도 실사 결과	23
그림 II-3	KCYPS 2018 제3차년도 원패널의 형제자매 실사 결과	27
그림 II-4	수면시간과 질(평일/주말)	40
그림 II-5	학업열의	41
그림 II-6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42
그림 II-7	정서문제	43
그림 II-8	협동심	44
그림 II-9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45
그림 II-10	스마트폰 의존도	46
그림 II-11	학교생활 만족도	47
그림 II-12	친구관계	48
그림 II-13	교사관계	49
그림 II-14	양육태도	50
그림 II-15	재난안전의식	52
그림 II-16	우리사회 및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	53
그림 II-17	재난 시 행동요령 인지도	55
그림 II-18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표 작성방법 체계도	65
그림 II-19	이중차분법에 의한 효과 추정	78
그림 III-1	실사 수행기관 선정 절차	99
그림 III-2	TAPI 조사 과정 및 주요 기능	101
그림 III-3	실사 수행조직 구성 및 주요 역할	102
그림 III-4	지역별 면접원 운영 현황	103
그림 III-5	면접원 교육 단계	104
그림 III-6	코로나19 안전수칙의 면접원 자가진단시스템	105

그림 III-7 단계별 가구 방문 조사 수행 과정	106
그림 III-8 실사 추진일정	107
그림 III-9 경품행사 결과 및 선정방법	109
그림 III-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	110
그림 III-11 예상되는 조사 거절 사유 및 대응 방안	111
그림 III-12 실사과정 단계별 보고	112
그림 IV-1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 포스터	122
그림 IV-2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포스터 ..	123
그림 IV-3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공간 구성도	124
그림 V-1 현재의 신분 상황	142
그림 V-2 청소년기 만족도	143
그림 V-3 현재 삶 만족도	145
그림 V-4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건	146
그림 V-5 청소년기(고3) 대학 진학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147
그림 V-6 청소년기(고3) 취업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148
그림 VI-1 KCYPS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위치	153
그림 VI-2 연도별 패널별 데이터 활용 전체 건수 변화	158
그림 VI-3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전체 데이터 활용 실적 주요 키워드	160
그림 VI-4 KYPS 2003 데이터 활용 실적 주요 키워드	161
그림 VI-5 KCYPS 2010 데이터 활용 실적 주요 키워드	162
그림 VI-6 KCYPS 2018 데이터 활용 실적 주요 키워드	163

○———— 제1장 서 론

- 1. 사업의 배경
- 2. 2021년 사업 내용
- 3. KCYPS 2018 조사 개요

1. 사업의 배경²⁾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 현재 제1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KCYPS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KCYPS 사업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고 있는 것’ 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 개인발달이 발달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시기 등, 이러한 것들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알고 있는 것’ 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실로 확인하려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1) 제1장은 하형석 연구위원, 황진구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2)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3-7)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중요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 진리탐구,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데이터 수집의 각론에서는 어떤 것을 조사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에서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생애주기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급격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2차 성장'으로 불리우는 변화를 경험한다. 지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양적·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정서 불안 등의 변화를 경험한다. 사회적으로는 학교급 변화와 같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한다.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과 변화는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외부요인,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외부요인에 의한 사회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 환경, 저성장 기조, 소득 양극화와 같은 경제 환경,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초연결 환경 등의 거시적인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또한, 가족 구성, 부모관계와 같은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사관계와 같은 교육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의 미시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통해 이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일 대상을 시차를 두고 반복 조사하는 패널조사는 변인 간 인과관계의 설명이 용이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집단 변화의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횡단면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현상이나 특성의 시간적인 변화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시계열조사는 특정 지표의 시간 경과에 따른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체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체 특성에 관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패널조사는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각 개체의 관측되지 않은 고유의 속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패널데이터는 횡단면데이터나 시계열데이터와는 달리 새로운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Korean Youth Panel Survey 2003, 이하 KYPS 2003)은 KCYPS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조사로,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진로결정 및 준비, 일탈행위, 자아관 등에 대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YPS 2003은 2003년 기준 중학교 2학년 약 3,500여 명을 중학교 2학년 코호트 원패널로 구축하였고, 2004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약 2,900여 명을 초등학교 4학년 원패널로 구축하여 2개의 코호트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KYPS 2003은 2008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KYPS 2003의 후속 조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KCYPS 2010은 KCYPS 사업의 첫 번째 패널조사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된 KCYPS 2010은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 각 2,300여 명(총 7,071명)을 원패

널로 구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각각의 코호트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나이가 되는 시점인 2016년을 끝으로 추적조사를 마무리³⁾하였다. 2017년 KCYPS 사업의 두 번째 패널조사 설계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21년 제4차년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KCYPS 2018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 각 2,500여 명(총 5,197명)을 원패널로 구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제1차년도 조사부터 원패널의 보호자 총 5,000여 명도 함께 구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전 조사였던 KYPS 2003, KCYPS 2010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는데, KYPS 2003, KCYPS 2010에서 보호자 조사는 원패널 코호트에 대한 배경변인 정도만 전화로 간단히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KCYPS 2018에서는 보호자-자녀의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관점에서 보호자도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보호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KCYPS 2018의 제2차년도 조사부터는 원패널,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와 함께 원패널의 형제자매 총 2,000여명(각 코호트별 약 1,000여명)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형제자매 효과 / 출생 순서 효과 (sibling effect / fraternal birth order effect)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면적 관계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3) KCYPS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패널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패널 유지조사를 수행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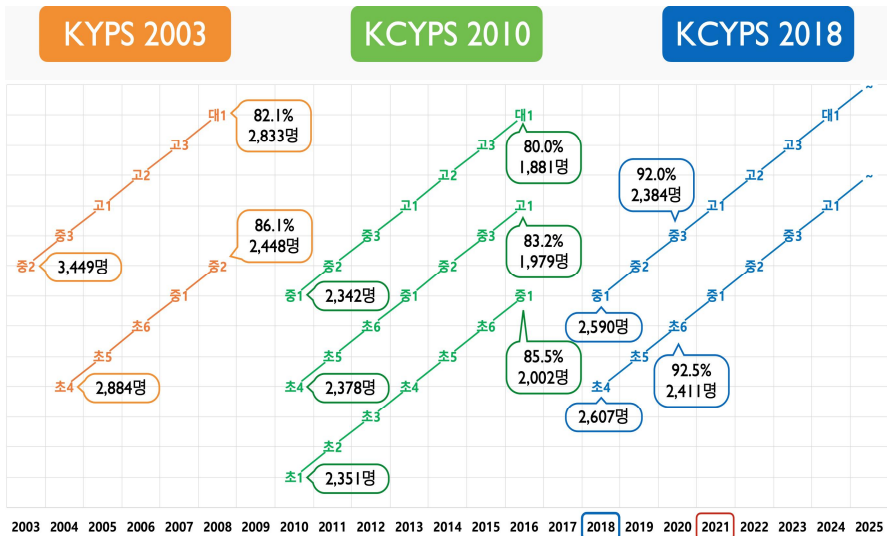


그림 1-1 패널조사 연혁

본 사업 제12차년도인 올해에는 2018년에 표집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2개의 코호트 총 5,197명을 대상으로 제4차년도 추적조사가 실시되었고, 원패널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원패널의 형제자매도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부터는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포함하는 기본 조사문항(기본 모듈)과 더불어 특별 조사문항(스페셜 모듈)을 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은 패널조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모듈이다. 2020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스페셜 모듈은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난안전 의식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고, 2021년 조사에서는 정서인식 역량을 측정하는 내용을 스페셜 모듈로 선정하였다.

KCYPS 제12차년도 사업에서는 KCYPS 2018 본조사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KCYPS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유지를 위한 조사도 진행된다. KCYPS 2010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유지조사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인기에 접어들 때까지 접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개인적 성장과정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정책적 개입들이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KCYPS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패널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실시한 ‘KCYPS 2010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유지조사’의 제5차년도 조사도 2021년 12월에 진행하였다.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구축된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패널데이터는 유저가이드, 코드북과 함께 조사년도 익년 12월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 논문 등이 현재까지 약 3,511편(2021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학술연구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 2021년 사업 내용⁴⁾

2021년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추진되는 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조사 문항	기본 모듈 수정·보완 및 스페셜 모듈 개발
	조사 준비	패널 유지 및 관리 / 조사원 교육
	조사 실시	아동·청소년 + 형제자매 : 개별면접조사 ⁵⁾
		보호자 : 개별면접조사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종단면/횡단면 데이터 클리닝 종단면/횡단면 가중치 산출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	조사대상자 정보	조사대상자 정보 갱신 방안 마련
	조사내용 수정·보완	조사문항 수정·보완
	조사 실시	컴퓨터를 활용한 웹조사
데이터 공개 (제3차년도 데이터)	1차 데이터 공개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참가자
	최종 데이터 공개	데이터 파일 / 코드북 / 유저가이드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데이터 활용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분석	데이터분석보고서 / NYPI Bluenote 통계

그림 1-2 2021년 KCYPs 사업 체계도

4)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8-13)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5) 실사에 영향을 주는 특수상황(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년도 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가 병행되었는데,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도구 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조사 방법인 개별면접조사로 진행.

1)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및 데이터 구축

2021년 실시되는 KCYPS 2018의 제4차년도 조사대상은 2018년 확정된 원패널 5,197명(초4 코호트 2,607명, 중1 코호트 2,590명)과 원패널의 보호자 5,000여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2,000여명(각 코호트별 1,000여명)이다.

두 번째 추적조사⁶⁾였던 2020년에는 원패널 4,795명(원패널 유지율 92.3%)과 원패널의 보호자 4,790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1,905명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제3차년도 원패널 유지율은 제2차년도 원패널 유지율인 93.8%보다 약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면접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초 8월~11월이었던 조사 기간을 8월~12월로 연장한 것과 11월부터 온라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방법을 변경한 점이 원패널 유지율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제4차년도 조사인 2021년은 원패널들의 학교급이 전부 변화⁷⁾하는 시기로 학교급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널 이탈을 줄이기 위해 원패널 유지율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제2차년도 조사와 제3차년도 조사에서 조사 거절로 이탈한 원패널의 복귀도 유도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문항과 관련해서는 기본 모듈(Basic Module)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사 외적인 변화에 연동되는 학교 생활(등교수업과 원격수업) 관련 문항을 수정하였고, 학교급 변화와 같은 조사 내적인 변화에 맞춰 기본 모듈의 진로적응력 문항을 추가하였다.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의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중 사회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비인지적 역량인 정서인식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는 사람의 눈과 눈 주변의 표정을 통해 그 감정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고르는 것인데,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는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2018년은 원패널을 구축한 해이고, 2019년이 첫 번째 추적조사가 진행된 해임.

7)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 1학년 코호트가 고등학교에 진학함.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는 조사문항 확정, TAPI 구축, 조사방식 확정, 원패널 사전접촉, 조사 실사의 틀에서 추진되었으며, 세부적인 조사 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1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수행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원패널 유지관리	→	→	→	→	→	→	→	→	→	→	→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	→	→									
3. 조사문항 확정(기본 모듈 수정·보완 및 스페셜 모듈 개발)			→	→	→							
4. 실사 업체 선정			→	→								
5. NYPI IRB 심의					→	→						
6. 승인통계 변경승인						→	→					
7. TAPI 구축					→	→	→					
8. 면접원 교육							→					
9. 원패널 사전접촉 ⁸⁾						→	→					
10. 제4차년도 조사 실사								→	→	→	→	
11. 실사 참관 및 점검									→	→		
12. 데이터 처리									→	→	→	→
13.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

KCYPS 2018 제4차년도 실사가 종료되면 종단면/횡단면 데이터 클리닝과 가중치 산출 작업을 거쳐 데이터가 구축된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2022년 개최 예정인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이며, 이후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데이터가 구축된다.

8) 조사안내문 및 협조요청(“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 및 관리되므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활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내용 포함) 공문 발송.

2)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

KCYPS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일들과 사회·경제적 환경, 관련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시기인 청년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로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KCYPS 2010 조사가 종료되었던 2016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던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성인기가 되는 시점까지 접촉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12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차 조사까지 진행되었다.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예산규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인기로 접어들 때까지 접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최초 원패널 2,351명을 대상으로 매년 문자 링크 등을 통해 접촉(연락)을 먼저 시도하고, 접촉이 성공한 패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 실시된 4차 유지조사의 경우, 원패널 2,351명 중 1,619명(68.9%)과의 접촉 및 연락에 성공하였으며, 패널 접촉이 불가한 732명의 경우는 강력거절(174명, 7.4%), 번호 오류(33명, 1.4%), 비수신(405명, 17.2%) 등이었다. 접촉에 성공한 1,619명 중에서 1,420명이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에 참여하여 전체 패널의 조사 참여율은 60.4%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기존 패널조사 및 유지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2월에 제5차 유지조사를 진행하였다.

3) 데이터 공개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 데이터는 2021년 11월 개최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의 일반 세션과 대학원생 세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개되었으며,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의견,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검토과정 등을 거쳐 최종데이터를 확정하여 제공하게 된다. KCYPS 2018 제3차년도 데이터, 데이터 코드북, 데이터 유저가이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nypi.re.kr/archive>)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KCYPS 2018 데이터는 관련 연구자나 학생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데이터 활용 및 분석

패널조사의 결과물인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도 등의 증진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2021년에도 ‘KCYPS 2018’ 제1차~제3차년도 데이터와 ‘KCYPS 2010’ 데이터를 활용한 제10회 학술대회를 11월 19일에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의 목적으로는, 첫째 패널조사 데이터를 관련 학계, 연구자 등에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관련 연구성과물의 증진과 더불어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전년도에 생산된 데이터의 전면공개 이전에 검증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패널 데이터 이용자와 연구진의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편의 논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에도 3편의 논문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일반세션의 주제에 따라 시간을 편성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심사를 통과한 별도의 대학원생 논문에 대해서 포스터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6편의 대학원생 논문에 대해서 포스터 발표 세션을 편성하여 발표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1년에도 KCYPS 2018의 주요 조사결과를 주제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별권으로 발간하였다. 2021년 데이터 분석보고서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및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KCYPS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KCYPS 2018 조사의 대외 확산을 위해 매년 조사 내용, 결과 등을 요약·정리하는 NYPI Bluenote 통계도 2021년 12월에 발간하였다.

3. KCYPS 2018 조사 개요⁹⁾¹⁰⁾

생애주기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모든 측면의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고,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패널데이터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9) KCYPS 2018의 자세한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영역 및 항목, 조사도구는 KCYPS 2018 원패널이 구축된 제9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18) 참조.

10)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17-25)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표 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조사 개요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원패널	초등학교 4학년 원패널 2,607명	중학교 1학년 원패널 2,590명
원패널의 보호자/형제자매	원패널의 보호자 2,500여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명	원패널의 보호자 2,500여명 /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여명
조사방법	TAPI :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조사내용	• 아동·청소년 : 기본 모듈[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 • 보호자 : 기본 모듈[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	

1) 조사 대상

KCYPS 2018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2,607명과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대상으로 원패널을 구축하였고, 원패널의 보호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제2차년도 조사부터는 원패널의 형제자매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원패널의 보호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관점에서 보호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설계이고, 원패널의 형제자매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형제자매 효과 및 출생 순서 효과(Sibling Effects / Fraternal Birth Order Effect)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계이다. 이러한 설계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면적 관계들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다.

2) 조사 영역 및 항목

KCYPS 2018의 아동·청소년 조사 영역은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 2개의 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발달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신체 발달의 6가지 중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발달환경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매체, 활동/문화 환경, 학교, 가정의 4가지 중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중영역들은 조사내용에 따라 26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각 소영역에서 조사내용을 선정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조사 내용은 학령기에 따른 생활양상 차이와 어휘력 등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였다. 초등과 중등의 조사 영역 차이는 조사 항목 중 학업 무기력, 소영역의 진로계획과 창의성, 중영역의 비행과 활동/문화 환경이다. 즉, 초등 조사 영역은 중등 조사 영역의 부분집합이라 볼 수 있다.

KCYPS 2018의 보호자 조사 영역은 크게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영역과 보호자 개인 영역 2개의 대영역과 배경변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영역은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발달 배경 파악이 목적으로 가정과 교육의 2가지 중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보호자 개인 영역은 세대 간 이전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발달 영향 파악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조사 영역의 중영역 중 사회/정서/역량, 매체, 신체의 3가지 중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중영역들은 조사내용에 따라 13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각 소영역에서 조사내용을 선정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보호자 개인 대영역의 조사 항목은 아동·청소년이 서로 영향관계에 있을 수 있는 특성을 추출하여 아동·청소년의 조사 항목과 동일한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배경변인 영역은 조사 대상 전체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 목적으로 보호자 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가정의 경제수준 등을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도구

KCYPS 2018은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TAPI)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KCYPS 2018에서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 방식을 KCYPS 2010의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면접조사(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이하 PAPI) 방식에서 TAPI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응답 값들의 이상치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차년도 조사의 TAPI 구축 시 정교한 로직 설정을 도입하였고, 제2차년도 추적조사 이후에는 TAPI 구축 시 중단면 로직을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응답문항의 이상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하는 변수들의 변동 등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020년 제3차년도 조사에서만 실사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코로나19)으로 인해 조사 방식을 TAPI와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였고, 2021년 제4차년도 조사부터는 다시 TAPI 방식으로의 조사로 진행된다.

4) 패널 유지율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하는 방식이다. 즉, 매년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대상이 다시 응답한다. 이를 통해 패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만약 한두 번 조사에 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패널데이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즉, 패널조사의 성공은 패널유지율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조사 대상 패널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KCYPS 2018에서는 조사 실사에 대한 부정적인 조건들 속에서도 정기적인 전화 접촉, 경품 행사, 패널 정보 변경 신고 답례,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 SNS 소통, 패널 직통 전화 운영 등과 같은 직접적인 패널 관리 방안과 조사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같은 실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패널유지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제2장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 결과

- 1. 실사 결과
- 2. 제3차년도 가중치 산출
- 3. 데이터 구축
- 4. 주요 조사 결과
- 5.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

1. 실사 결과

1) 실사 요약

2020년 조사는 KCYPs 2018의 두 번째 추적조사로 2018년에 구축한 원패널 5,197명(초4 코호트 2,607명, 중1 코호트 2,590명)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예정된 조사기간(2020년 8월-11월) 중 외부요인(코로나19)으로 인하여 실사 진행에 부진함을 해결하고자 조사기간을 변경(2020년 8월-12월)하였고, 11월부터는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사 결과 2020년은 원패널 4,795명(원패널 유지율 92.3%)과 원패널의 보호자 4,790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1,905명 조사에 성공하였다. 이는 직전년도 조사인 2차년도의 원패널 유지율인 93.8%보다 약 1.5%p 하락한 정도이다. 작년 실사에서 변경한 조사기간의 연장과 온라인조사 병행의 효과라 보여진다.

원패널의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초4 코호트는 2,411명(원패널 유지율 92.5%) 조사가 완료되었고, 중1 코호트는 2,384명(원패널 유지율 92.0%) 조사가 완료되었다. 초4 코호트는 제2차년도 원패널 유지율인 93.5% 대비 약 1.0%p 하락하였고, 중1 코호트는 제2차년도 원패널 유지율인 94.1% 대비 약 2.1%p 하락하였다.

11) 제II장은 하형석 연구위원, 이용해 전문연구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조사 대상	* 2018년 원패널 5,197명 및 원패널의 보호자, 형제자매 2,000여명							
구축 패널	원패널 수 2,607명	보호자 수 2,607명	목표 형제자매 수 1,000명	원패널 수 2,590명	보호자 수 2,590명	목표 형제자매 수 1,002명		
3차년도 조사현황	초4코호트 패널유지율 92.5%	완료 원패널 수 2,411명	완료 보호자 수 2,410명	완료 형제자매 수 990명	중1코호트 패널유지율 92.0%	완료 원패널 수 2,384명	완료 보호자 수 2,380명	완료 형제자매 수 915명

그림 II-1 KCYPS 2018 실사 요약

KCYPS 2018 제3차년도 실사 결과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는 각각 2,410명(원패널 유지율 92.4%), 2,380명(원패널 유지율 91.9%) 조사가 완료되었다. 각 코호트별 1,000여명으로 목표했던 원패널의 형제자매의 경우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원패널의 형제자매 각각 990명, 915명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를 처음 시작한 제2차년도 조사에서는 초4 코호트의 형제자매가 911명, 중1 코호트의 형제자매가 1,038명 조사되었는데, 제3차년도 조사의 원패널의 형제자매는 제2차년도 조사결과와 코호트별로 상반되게 조사되었다. 제2차년도 조사 당시 초4 코호트 원패널의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형제자매 중 초등학교 5학년보다 어린 형제자매들이 많아 조사 참여 유도가 쉽지 않았던 반면, 제3차년도 조사에서는 중1 코호트 원패널의 학년이 중3으로 원패널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들은 고등학생이고 특히 고2 이후의 형제자매들의 조사 참여 유도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제4차년도 조사인 2021년에는 중1 코호트 원패널이 고1이 되고, 원패널의 형제자매들 중 원패널보다 나이 많은 형제자매들의 학년이 대부분 고2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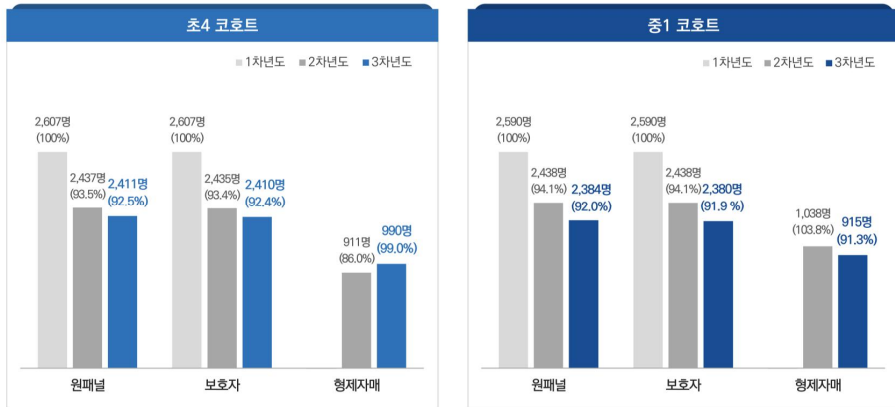


그림 II-2 KCYPs 2018 제3차년도 실사 결과

조4 코호트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조사 성공률이 95.0% 이상으로 나타났고, 강원과 제주는 85.0% 이하, 세종은 80.0% 이하로 나타났다.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결과는 원패널, 원패널의 보호자와 다소 상이한 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 조사 성공률이 95.0% 이상이었던 서울, 경기, 인천 중 인천의 경우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성공률이 93.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조사 성공률이 낮았던 강원, 제주 중 강원의 경우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성공률이 11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 시 인천, 경기, 서울순으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세종에서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낮았고,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시 전남과 강원에서 성공률이 높았으며, 세종은 30.8%로 성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에는 원패널,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성공률이 가장 낮는데, 표본 수가 작아 1명만 실패해도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원패널 34명 중 8명 조사 실패)하더라도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세종 지역의 패널유지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 초4 코호트 조사결과(제3차년도)

초4 코호트		전체 패널 수	원패널		보호자		형제자매		
			조사완료	성공률 (%)	조사완료	성공률 (%)	할당	조사완료	성공률 (%)
총계		2,607	2,411	92.5	2,410	92.4	1,000	990	99.0
지 역 별	서울	402	384	95.5	384	95.5	156	163	104.5
	부산	147	138	93.9	138	93.9	56	58	103.6
	대구	115	100	85.5	100	85.5	45	43	95.6
	인천	160	157	98.7	156	98.1	61	57	93.4
	광주	84	74	88.1	74	88.1	32	33	103.1
	대전	76	65	85.5	65	85.5	29	25	86.2
	울산	59	56	94.9	56	94.9	23	23	100.0
	세종	35	26	76.5	26	76.5	13	4	30.8
	경기	676	655	97.0	655	97.0	259	253	97.7
	강원	101	83	82.2	83	82.2	38	42	110.5
	충북	94	84	89.4	84	89.4	36	35	97.2
	충남	139	128	91.4	128	91.4	54	49	90.7
	전북	100	91	91.0	91	91.0	38	38	100.0
	전남	88	83	94.3	83	94.3	33	37	112.1
	경북	139	119	86.2	119	86.2	53	53	100.0
	경남	164	145	87.9	145	87.9	63	69	109.5
제주	28	23	82.1	23	82.1	11	8	72.7	

중1 코호트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패널, 원패널의 보호자의 경우 인천,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았으며,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패널의 형제자매는 충남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았으며, 제주의 성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4 코호트는 세종, 중1 코호트는 제주에서 원패널 유지율과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들 지역의 패널유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2 중1 코호트 조사결과(제3차년도)

중1 코호트		전체 패널 수	원패널		보호자		형제자매		
			조사완료	성공률 (%)	조사완료	성공률 (%)	할당	조사완료	성공률 (%)
총계		2,590	2,384	92.0	2,380	91.9	1,002	915	91.3
지 역 별	서울	427	396	93.0	396	93.0	165	145	87.9
	부산	145	125	86.2	125	86.2	56	46	82.1
	대구	120	106	88.3	106	88.3	46	46	100.0
	인천	197	194	98.5	192	97.5	76	66	86.8
	광주	72	67	93.1	67	93.1	28	30	107.1
	대전	75	69	92.0	69	92.0	29	27	93.1
	울산	52	46	88.5	46	88.5	20	20	100.0
	세종	44	40	90.9	40	90.9	17	24	141.2
	경기	612	589	95.9	588	95.8	238	179	75.2
	강원	94	73	77.7	73	77.7	36	34	94.4
	충북	112	101	90.2	101	90.2	43	37	86.0
	충남	111	95	85.6	95	85.6	43	66	153.5
	전북	118	108	91.5	108	91.5	46	49	106.5
	전남	78	76	97.4	76	97.4	30	30	100.0
	경북	119	111	93.3	110	92.4	46	40	87.0
경남	176	162	92.6	162	92.6	68	66	97.1	
제주	38	26	68.4	26	68.4	15	10	66.7	

2) 제3차년도 원패널 조사실패

제3차년도 조사에서 패널 구축 원패널 대비 조사실패는 초4 코호트의 경우 196명(원패널 대비 7.5%), 중1 코호트의 경우 206명(원패널 대비 8.0%)으로 나타났다. 원패널 조사실패 유형 중 두 코호트 모두 강력거절이 80.0% 이상으로 많았고, 연락두절은 초4 코호트 22명(11.2%), 중1 코호트 15명(7.3%)으로 파악되었다. 전학 등으로 인한 추적실패는 초4 코호트 7명(3.6%), 중1 코호트 6명(2.9%)으로 파악되었고, 개인사정 등 당해조사 거절은 초4 코호트 6명(3.1%), 중1 코호트 9명(4.4%)으로 파악되었다. 작년 상황에서 조사 실사기간 연장과 온라인조사 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해조사 거절로 인한 조사 실패가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라 예측된다.

표 II-3 원패널 조사실패 유형별 결과

조사실패 유형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N	%	N	%
강력거절	161	82.1	176	85.4
연락두절	22	11.2	15	7.3
추적실패(전학 등)	7	3.6	6	2.9
당해조사 거절(개인사정 등)	6	3.1	9	4.4
계	196	100.0	206	100.0

3) 제3차년도 원패널의 보호자 조사

제3차년도 원패널의 보호자는 초4 코호트 2,410명, 중1 코호트 2,384명 조사를 완료하였다. 초4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의 경우 어머니가 90.9% 조사에 응답했고, 중1 코호트 원패널 보호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88.7% 조사에 응답하였다. 제2차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초4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 중 어머니 비율은 90.4%에서 90.9%로 소폭 증가하였고, 중1 코호트 원패널의 보호자 중 어머니 비율은 89.9%에서 88.7%로 약 1.2%p 하락하였다.

표 II-4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 간 관계

원패널과 보호자 간 관계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N	%	N	%
어머니	2,191	90.9	2,112	88.7
아버지	187	7.8	238	10.0
조부모	22	0.9	18	0.8
형제자매/친인척	9	0.4	10	0.4
비혈연	1	0.1	2	0.1
계	2,410	100	2,384	100

4) 제3차년도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

KCYPS 2018 제2차년도 조사부터는 형제자매 효과(Sibling Effects) 및 출생 순서 효과(Fraternal Birth Order Effect)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패널의 형제자매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고, 제3차년도 조사에서도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4 코호트의 2020년 학년은 초6으로 조사된 형제자매의 학년은 초4와 중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1 코호트의 2020년 학년은 중3으로 조사된 형제자매의 학년은 중1과 고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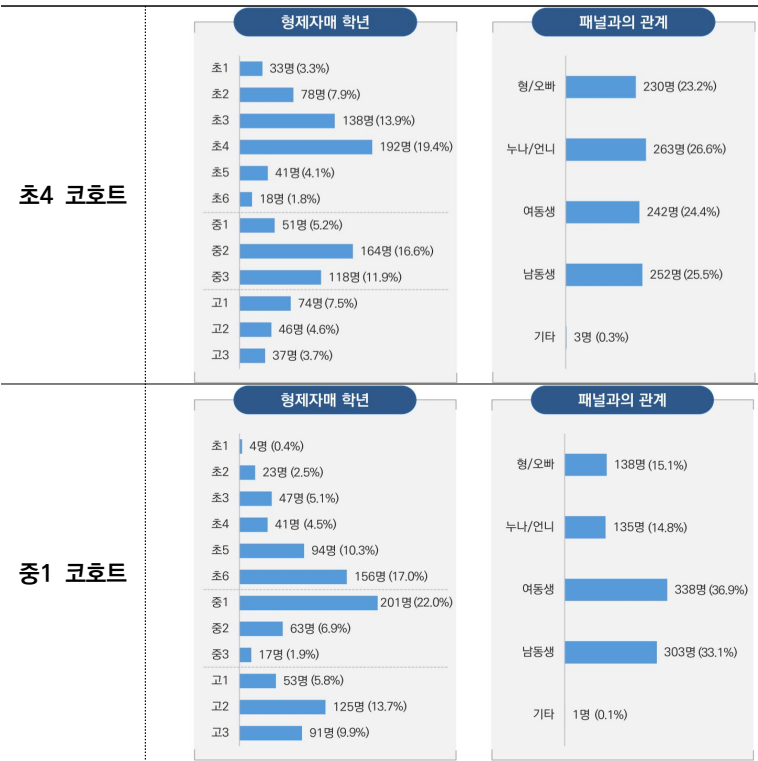


그림 II-3 KCYPS 2018 제3차년도 원패널의 형제자매 실사 결과

2. 제3차년도 가중치 산출

조사 시점에 대한 모집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횡단면 가중치와 조사 대상의 종단적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를 제3차년도 조사 결과에도 산출하였으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초4 코호트

(1) 횡단면 가중치 (Cross-sectio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기본 가중치는 표본탈락률을 보정하기 위하여 1차년도 대비 응답률 (2,411/2,607=92.5%)의 역수를 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 곱하여 계산되었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1차년도 가중치} \times \frac{1}{\text{제1차년도 대비 응답률}}$$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최종 가중치는 해당 학생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2020년의 초등학생 6학년 기준).

$$\text{최종 가중치} = \text{기본 가중치} \times \frac{\text{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5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2,411	64	1,345	187	450,815
남자	1,211	77	1,345	192	232,023
여자	1,200	64	720	182	218,792

표 II-6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가중치 부여 이전						횡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1,211	50.2	1,200	49.8	2,411	100.0	232,023	51.5	218,792	48.5	450,815	100.0
서울	205	52.0	189	48.0	394	16.3	36,165	51.6	33,952	48.4	70,117	15.6
부산	71	50.4	70	49.6	141	5.8	12,890	51.2	12,263	48.8	25,153	5.6
대구	41	42.3	56	57.7	97	4.0	10,725	51.9	9,947	48.1	20,672	4.6
인천	78	50.6	76	49.4	154	6.4	13,255	50.8	12,839	49.2	26,094	5.8
광주	37	48.7	39	51.3	76	3.2	7,450	51.3	7,081	48.7	14,531	3.2
대전	43	61.4	27	38.6	70	2.9	7,061	51.7	6,597	48.3	13,658	3.0
울산	25	44.6	31	55.4	56	2.3	5,754	52.0	5,314	48.0	11,068	2.5
세종	13	46.4	15	53.6	28	1.2	2,347	49.5	2,397	50.5	4,744	1.1
경기	313	47.7	343	52.3	656	27.2	64,992	51.3	61,707	48.7	126,699	28.1
강원	46	58.2	33	41.8	79	3.3	6,391	51.3	6,062	48.7	12,453	2.8
충북	37	44.6	46	55.4	83	3.4	7,363	51.9	6,825	48.1	14,188	3.1
충남	64	52.5	58	47.5	122	5.1	10,286	51.4	9,739	48.6	20,025	4.4
전북	44	49.4	45	50.6	89	3.7	8,390	52.0	7,756	48.0	16,146	3.6
전남	39	47.6	43	52.4	82	3.4	8,002	51.8	7,435	48.2	15,437	3.4
경북	69	58.5	49	41.5	118	4.9	11,128	52.2	10,208	47.8	21,336	4.7
경남	73	51.8	68	48.2	141	5.8	16,423	51.5	15,466	48.5	31,889	7.1
제주	13	52.0	12	48.0	25	1.0	3,401	51.5	3,204	48.5	6,605	1.5

* n=2,411

(2) 종단면 가중치 (Longitudi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제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는 제1, 2, 3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원패널(2,327명)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1차년도 대비 응답률 $2,327/2,607=89.3\%$).

제3차년도 가중치 산출을 위해서 제2차년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제3차년도 응답여부 변수를 이용한 적절한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근거한 제3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응답확률 추정값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제3차년도의 응답여부 변수를 응답의 경우 '1' 그리고 무응답의 경우 '0'을 갖는 이항변수로 정의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확률 예측방법을 적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에 앞서 주요 설명변수의 응답률 예측에 대한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설명변수에 대하여 제3차년도 응답자와 무응답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답자 그룹과 무응답자 그룹 간의 차이를 변수별로 분석하기 위해 근사 χ^2 검정을 시행하였다. 각 범주별 빈도수가 적어서 χ^2 검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빈도수가 적은 범주를 묶은 후에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러 설명변수들의 동시적 예측력을 반영하며 동시에 최대우도 추정량의 유일성을 살피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변수선택 방법을 고려하였다. 변수선택을 위한 방법으로 각 변수들의 추가 또는 제거 후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Wald의 적합도 검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사용하였다($\alpha=0.15$).

다음 표는 변수선택 과정을 통해 선택된 변수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3차년도 응답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은 '시/도(학교 기준)'(ARA1Aw2), '학생과의 관계'(PARENTw2), '[따스함]-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 하신다'(YFAM2A02w2), '[학습시간]-주말_학원 및 과외 시간'(YTIM1E02w2)이다.

표 II-7 초4 코호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변수선택 결과

변수	자유도	Wald Chi-Square	p-value
ARA1Aw2	16	46.4424	<.0001
PARENTw2	3	21.8302	<.0001
YFAM2A02w2	3	13.4093	0.0038
YTIM1E02w2	6	12.7874	0.0465

다음 표에는 응답확률 추정값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확률의 추정값은 대략 0.453~1.000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956과 0.038 정도이다.

표 II-8 초4 코호트 응답확률 추정값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327	0.45276	1.00000	0.95591	0.03788

제3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제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에 응답확률 추정값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었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2차년도 가중치} \times \frac{1}{\text{응답확률 추정값}}$$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최종 가중치(사후층화 가중치)는 해당 패널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계산되었다(2020년의 초등학교 6학년 기준).

$$\text{사후층화 가중치} = \text{기본 가중치} \times \frac{\text{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9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2,327	61	1,383	194	450,815
남자	1,168	74	1,383	199	232,023
여자	1,159	61	732	189	218,792

표 II-10 제3차년도 초4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가중치 부여 이전						종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1,168	50.2	1,159	49.8	2,327	100.0	232,023	51.5	218,792	48.5	450,815	100.0
서울	202	52.3	184	47.7	386	16.6	36,165	51.6	33,952	48.4	70,117	15.6
부산	71	50.4	70	49.6	141	6.1	12,890	51.2	12,263	48.8	25,153	5.6
대구	41	42.7	55	57.3	96	4.1	10,725	51.9	9,947	48.1	20,672	4.6
인천	77	50.7	75	49.3	152	6.5	13,255	50.8	12,839	49.2	26,094	5.8
광주	36	48.6	38	51.4	74	3.2	7,450	51.3	7,081	48.7	14,531	3.2
대전	41	63.1	24	36.9	65	2.8	7,061	51.7	6,597	48.3	13,658	3.0
울산	25	46.3	29	53.7	54	2.3	5,754	52.0	5,314	48.0	11,068	2.5
세종	10	40.0	15	60.0	25	1.1	2,347	49.5	2,397	50.5	4,744	1.1
경기	298	47.3	332	52.7	630	27.1	64,992	51.3	61,707	48.7	126,699	28.1
강원	44	58.7	31	41.3	75	3.2	6,391	51.3	6,062	48.7	12,453	2.8
충북	33	44.0	42	56.0	75	3.2	7,363	51.9	6,825	48.1	14,188	3.1
충남	56	51.9	52	48.1	108	4.6	10,286	51.4	9,739	48.6	20,025	4.4
전북	41	49.4	42	50.6	83	3.6	8,390	52.0	7,756	48.0	16,146	3.6
전남	39	47.6	43	52.4	82	3.5	8,002	51.8	7,435	48.2	15,437	3.4
경북	69	59.0	48	41.0	117	5.0	11,128	52.2	10,208	47.8	21,336	4.7
경남	73	51.8	68	48.2	141	6.1	16,423	51.5	15,466	48.5	31,889	7.1
제주	12	52.2	11	47.8	23	1.0	3,401	51.5	3,204	48.5	6,605	1.5

* n=2,327

2) 중1 코호트

(1) 횡단면 가중치 (Cross-sectio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기본 가중치는 표본탈락률을 보정하기 위하여 1차년도 대비 응답률 (2,384/2,590=92.1%)의 역수를 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 곱하여 계산되었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1차년도 가중치} \times \frac{1}{\text{제1차년도 대비 응답률}}$$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최종 가중치는 해당 패널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2020년의 중학생 3학년 기준).

$$\text{최종 가중치} = \text{기본 가중치} \times \frac{\text{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11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2,384	45	1,660	173	413,179
남자	1,278	62	956	168	214,561
여자	1,106	45	1,660	180	198,618

표 II-12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가중치 부여 이전						횡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1,278	53.6	1,106	46.4	2,384	100.0	214,561	51.9	198,618	48.1	413,179	100.0
서울	193	49.0	201	51.0	394	16.5	34,325	52.3	31,295	47.7	65,620	15.9
부산	73	58.4	52	41.6	125	5.2	12,184	52.0	11,225	48.0	23,409	5.7
대구	59	57.3	44	42.7	103	4.3	10,632	52.5	9,607	47.5	20,239	4.9
인천	106	54.4	89	45.6	195	8.2	12,325	51.7	11,526	48.3	23,851	5.8
광주	42	63.6	24	36.4	66	2.8	7,070	51.6	6,623	48.4	13,693	3.3
대전	50	73.5	18	26.5	68	2.9	6,708	52.2	6,141	47.8	12,849	3.1
울산	33	70.2	14	29.8	47	2.0	5,216	52.9	4,650	47.1	9,866	2.4
세종	20	48.8	21	51.2	41	1.7	1,802	49.4	1,848	50.6	3,650	0.9
경기	309	52.5	280	47.5	589	24.7	57,583	51.4	54,406	48.6	111,989	27.1
강원	54	73.0	20	27.0	74	3.1	6,411	52.1	5,884	47.9	12,295	3.0
충북	53	53.0	47	47.0	100	4.2	6,803	52.0	6,276	48.0	13,079	3.2
충남	56	58.3	40	41.7	96	4.0	9,275	51.6	8,715	48.4	17,990	4.4
전북	50	46.3	58	53.7	108	4.5	8,284	52.6	7,459	47.4	15,743	3.8
전남	35	45.5	42	54.5	77	3.2	7,519	51.6	7,062	48.4	14,581	3.5
경북	54	47.8	59	52.2	113	4.7	10,406	52.4	9,460	47.6	19,866	4.8
경남	75	46.3	87	53.7	162	6.8	14,780	52.1	13,562	47.9	28,342	6.9
제주	16	61.5	10	38.5	26	1.1	3,238	52.9	2,879	47.1	6,117	1.5

* n=2,384

(2) 종단면 가중치 (Longitudinal Weights)

① 기본 가중치

제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는 제1, 2, 3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원패널(2,325명)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1차년도 대비 응답률 $2,325/2,590=89.8\%$).

제3차년도 가중치 산출을 위해서 제2차년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제3차년도 응답여부 변수를 이용한 적절한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에 근거한 제3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응답확률 추정값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초4

코호트의 방법과 같다.

다음 표에는 변수선택 과정을 통해 선택된 변수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3차년도 응답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은 ‘시/도(학교 기준)’(ARA1Aw1),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 수준’(PFAM3C00w2), ‘[사용 목적별 빈도]-친구와의 통화’(PMDA1B03w2), ‘[의존도]-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PMDA1C06w2), ‘[교사관계]-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YEUD3A07w2), ‘[학업 무기력]-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YINT2B12w2)이다.

표 II-13 중1 코호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변수선택 결과

변수	자유도	Wald Chi-Square	p-value
ARA1Aw1	16	40.2962	0.0007
PFAM3C00w2	5	10.1775	0.0704
PMDA1B03w2	3	7.2177	0.0653
PMDA1C06w2	3	16.8406	0.0008
YEUD3A07w2	3	13.4256	0.0038
YINT2B12w2	3	17.4149	0.0006

아래 표에는 응답확률 추정값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확률의 추정값은 대략 0.450~0.999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957과 0.049 정도이다.

표 II-14 중1 코호트 응답확률 추정값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325	0.45035	0.99999	0.95711	0.04941

제3차년도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제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에 응답확률 추정값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었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제2차년도 가중치} \times \frac{1}{\text{응답확률 추정값}}$$

② 최종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최종 가중치(사후층화 가중치)는 해당 패널이 속한 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와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2020년의 중학생 3학년 기준).

$$\text{사후층화 가중치} = \text{기본 가중치} \times \frac{\text{지역별/성별 모집단 크기}}{\text{지역별/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③ 가중치의 분포

제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및 지역별/성별 분포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5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요약 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합계
전체	2,325	44	1,611	178	413,179
남자	1,248	59	942	172	214,561
여자	1,077	44	1,611	184	198,618

표 II-16 제3차년도 중1 코호트 종단면 가중치의 지역별/성별 분포

	가중치 부여 이전						종단면 가중치 부여 이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N	%	N	%	N	%	N	%	N	%	N	%
전체	1,248	53.7	1,077	46.3	2,325	100.0	214,561	51.9	198,618	48.1	413,179	100.0
서울	186	48.3	199	51.7	385	16.6	34,325	52.3	31,295	47.7	65,620	15.9
부산	72	58.5	51	41.5	123	5.3	12,184	52.0	11,225	48.0	23,409	5.7
대구	58	57.4	43	42.6	101	4.3	10,632	52.5	9,607	47.5	20,239	4.9
인천	105	54.4	88	45.6	193	8.3	12,325	51.7	11,526	48.3	23,851	5.8
광주	41	65.1	22	34.9	63	2.7	7,070	51.6	6,623	48.4	13,693	3.3
대전	49	76.6	15	23.4	64	2.8	6,708	52.2	6,141	47.8	12,849	3.1
울산	33	70.2	14	29.8	47	2.0	5,216	52.9	4,650	47.1	9,866	2.4
세종	20	51.3	19	48.7	39	1.7	1,802	49.4	1,848	50.6	3,650	0.9
경기	307	52.7	276	47.3	583	25.1	57,583	51.4	54,406	48.6	111,989	27.1
강원	48	73.8	17	26.2	65	2.8	6,411	52.1	5,884	47.9	12,295	3.0
충북	51	52.0	47	48.0	98	4.2	6,803	52.0	6,276	48.0	13,079	3.2
충남	54	58.7	38	41.3	92	4.0	9,275	51.6	8,715	48.4	17,990	4.4
전북	47	45.6	56	54.4	103	4.4	8,284	52.6	7,459	47.4	15,743	3.8
전남	34	45.3	41	54.7	75	3.2	7,519	51.6	7,062	48.4	14,581	3.5
경북	53	47.3	59	52.7	112	4.8	10,406	52.4	9,460	47.6	19,866	4.8
경남	74	46.8	84	53.2	158	6.8	14,780	52.1	13,562	47.9	28,342	6.9
제주	16	66.7	8	33.3	24	1.0	3,238	52.9	2,879	47.1	6,117	1.5

* n=2,325

3. 데이터 구축¹²⁾

1) 데이터셋

KCYPS 2018의 제3차년도 조사 결과는 데이터 클리닝과 횡단면/종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을 거쳐 최종 데이터로 구축되었다.

12)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46-48)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제3차년도 조사에서는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가 2번째로 실시되었는데,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는 원패널 조사와 달리 조사에 응하는 형제자매만 조사하기 때문에 동일한¹³⁾ 형제자매를 추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실시되었던 제2차년도 원패널의 형제자매와 제3차년도에 응답한 원패널의 형제자매 중 동일한 형제자매를 식별 가능하도록 형제자매 PID(개인부여 ID)를 정비하였고, 형제자매 PID를 정비하기 위해 패널들의 가구정보도 함께 정비¹⁴⁾하였다.

데이터셋의 명칭의 설정은 각 코호트, 조사대상 구분, 조사차수의 구분과 통합의 용이성을 위하여 일관된 규칙으로 설정하였다.

표 II-17 KCYPS 2018 제3차년도 데이터셋 명칭

조사명	코호트	조사 대상	조사 차수	데이터셋 명칭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KCYPS 2018)	초4(e4)	원패널(Y)	제2차년도 (w3)	KCYPS2018e4Yw3
		보호자(P)		KCYPS2018e4Pw3
		형제자매(S)		KCYPS2018e4Sw3
	중1(m1)	원패널(Y)		KCYPS2018m1Yw3
		보호자(P)		KCYPS2018m1Pw3
		형제자매(S)		KCYPS2018m1Sw3

2) 무응답

설문조사에서 무응답은 크게 표본의 조사실패와 같은 단위 무응답과 일부 문항

13) 원패널의 보호자도 조사에 응하는 보호자를 조사함.
 14) 가구정보 정비 후 제1차년도 데이터셋에 제2차-제3차년도 가구정보 변수의 형태로 구성된 가구정보 변수를 생성함. 제1차년도 패널구축 당시에는 조사에 응답한 보호자를 가구대표로 설정하여 가구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가구 구성원 정보를 파악하였고, 제2차년도 조사부터는 원패널과의 관계를 통해 가구 구성원 정보를 파악함. 예를 들어, 패널조사에 자녀와 어머니가 참여할 경우 제1차년도 조사에서는 가구대표와 가구대표의 자녀로 가구정보를 파악했다면, 제2차년도 조사부터는 원패널과 원패널의 어머니로 가구정보를 파악하였음. 즉, 데이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1차년도 데이터셋에 원패널을 기준으로 한 가구정보 변수를 추가적으로 생성함.

에 대해 조사를 실패하는 항목 무응답으로 구분된다. KCYPS 2018과 같은 패널조사에서 단위 무응답은 각 조사 시점에서의 패널 이탈 발생과 동일하며 단위 무응답의 발생은 패널유지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일부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패하는 항목 무응답은 패널조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KCYPS 2018은 응답문항의 이상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하는 변수들의 변동 등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TAPI)¹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항목 무응답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

표 II-18 KCYPS 2018 제3차년도 항목 무응답 현황

데이터셋 명칭	항목 무응답 변수	변수 내용	항목 무응답 비율
KCYPS2018e4Yw3	-		0%
KCYPS2018e4Pw3	PJOB1w3	[직업] 아버지	0.08% (= 2/2,410)
	PJOB2w3	[직업] 어머니	0.04% (= 1/2,410)
KCYPS2018e4Sw3	-		0%
KCYPS2018m1Yw3	-		0%
KCYPS2018m1Pw3	PJOB1w3		0.04% (= 1/2,380)
	PJOB2w3		0.04% (= 1/2,380)
KCYPS2018m1Sw3	YPHY2B00w3	[신체발달] 몸무게	0.11% (= 1/915)

4. 주요 조사 결과

1) 기본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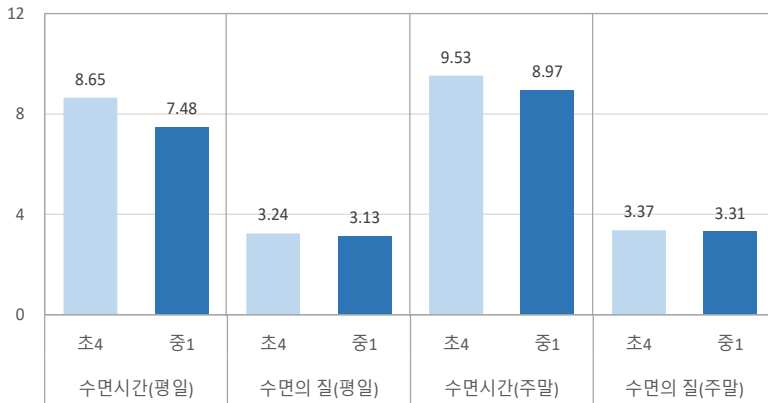
KCYPS 2018의 제3차년도 기본 모듈의 각 코호트별 주요 조사 결과를 조사영역(대영역 - 중영역 - 소영역)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15) KCYPS 2018에서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 방식을 KCYPS 2010의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면접조사(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이하 PAPI) 방식에서 TAPI 방식으로 전환

(1) 개인발달 - 생활시간 - 하루일과

평일/주말 평균 수면시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평일) 8.65시간, (주말) 9.53시간이며,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평일) 7.48시간, (주말) 8.97시간이다. 수면의 질의 경우 두 코호트 모두 3.1점 이상(4점 평균 기준)으로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여학생이 평일/주말에 잠을 더 자고 수면의 질도 더 만족한다는 의견이다.

(시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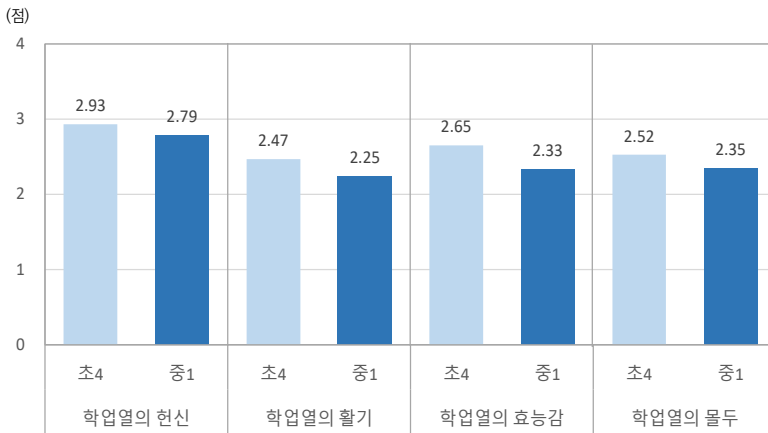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평일		주말	
		수면시간	수면의 질	수면시간	수면의 질
초4	남학생	8.97	3.32	9.68	3.43
	여학생	8.32	3.16	9.37	3.30
중1	남학생	7.37	3.02	8.65	3.20
	여학생	7.60	3.25	9.34	3.43

그림 II-4 수면시간과 질(평일/주말)

(2) 개인발달 - 지적발달 - 학업태도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경우 학업열의에서 헌신이 2.93점으로 가장 높고, 효능감(2.65점), 몰두(2.52점), 활기(2.47점) 순인 반면,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헌신(2.79점), 몰두(2.35점), 효능감(2.33점), 활기(2.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열의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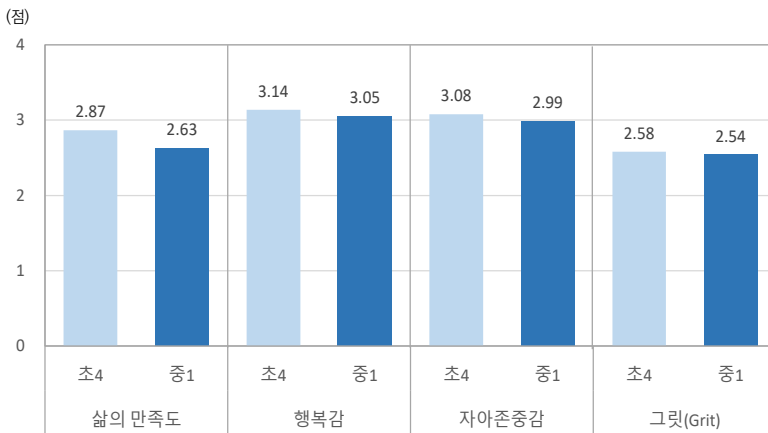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초4	남학생	2.97	2.51	2.74	2.56
	여학생	2.89	2.42	2.56	2.48
중1	남학생	2.66	2.15	2.26	2.24
	여학생	2.93	2.35	2.41	2.48

그림 II-5 학업열의

(3)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발달 -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Grit)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항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 1학년 코호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로는 두 코호트 모두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그릿 순이었다. 성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서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항목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반면,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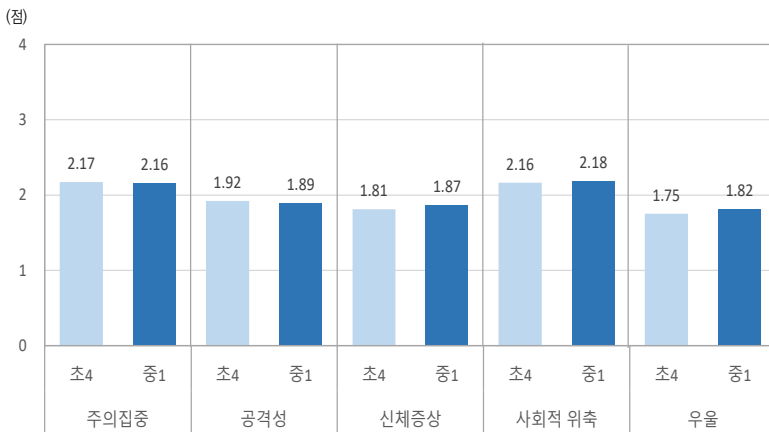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초4	남학생	2.96	3.23	3.18	2.63
	여학생	2.77	3.04	2.97	2.53
중1	남학생	2.57	3.00	2.93	2.45
	여학생	2.69	3.11	3.05	2.64

그림 II-6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4)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발달 - 정서문제

정서문제 관련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주의집중이 2.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사회적 위축이 2.18점으로 가장 높고,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우울을 제외한 다른 항목 등에서 남학생이 더 높았고,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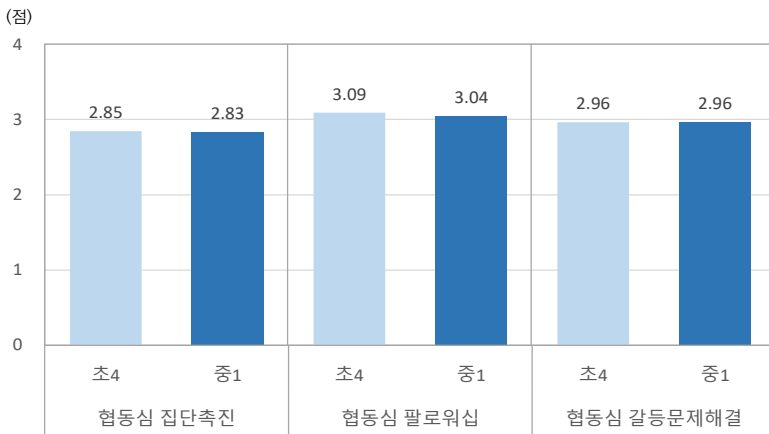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초4	남학생	2.28	1.97	1.84	2.17	1.75
	여학생	2.06	1.87	1.78	2.16	1.75
중1	남학생	2.11	1.79	1.76	2.08	1.70
	여학생	2.21	2.01	1.99	2.29	1.95

그림 II-7 정서문제

(5) 개인발달 - 사회/정서/역량발달 - 협동의식

협동심 관련 문항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모두 팔로워십 항목이 각각 3.09점, 3.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여학생의 경우 협동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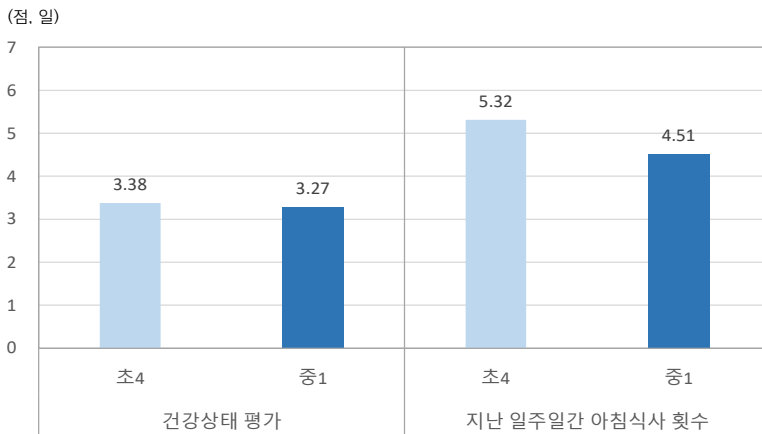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초4	남학생	2.89	3.12	3.00
	여학생	2.80	3.06	2.93
중1	남학생	2.73	2.90	2.84
	여학생	2.94	3.21	3.10

그림 II-8 협동심

(6) 개인발달 - 신체발달 - 건강

건강상태 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를 살펴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5.32일인 반면,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4.51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여학생이 조금 더 건강한 상태라고 응답하였고, 지난 일주일간 아침식사 횟수는 두 코호트 모두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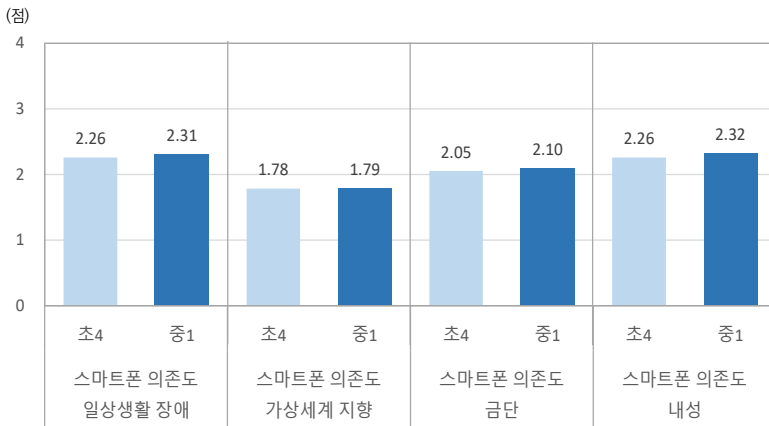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건강상태 평가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초4	남학생	3.45	5.51
	여학생	3.30	5.12
중1	남학생	3.20	4.52
	여학생	3.35	4.50

그림 II-9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7) 발달환경 - 매체 - 스마트폰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련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는 일상생활 장애와 내성이 각각 2.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내성이 2.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여학생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 높다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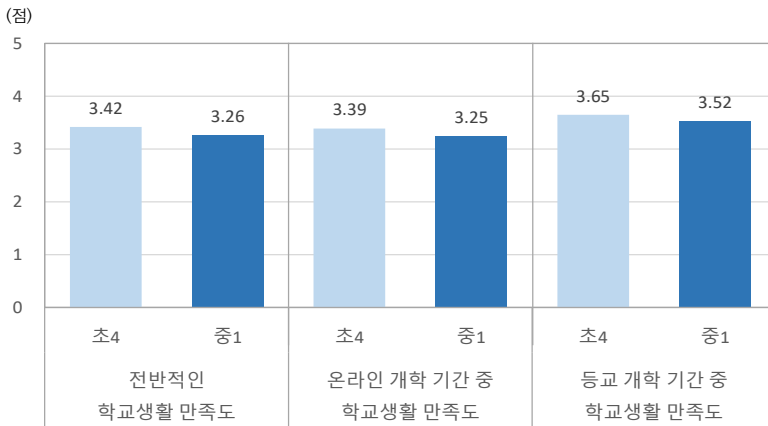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금단	내성
초4	남학생	2.32	1.85	2.10	2.30
	여학생	2.20	1.72	2.00	2.21
중1	남학생	2.24	1.72	2.03	2.23
	여학생	2.38	1.86	2.18	2.42

그림 II-10 스마트폰 의존도

(8) 발달환경 - 학교 - 학교생활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3.42점으로 중학교 1학년 코호트(3.26점)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중순 경 공식적으로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병행해서 추진하였다. 이에 학교생활 만족도를 온라인 개학 기간과 등교 개학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등교 개학 기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여학생이 (등교/개학) 학교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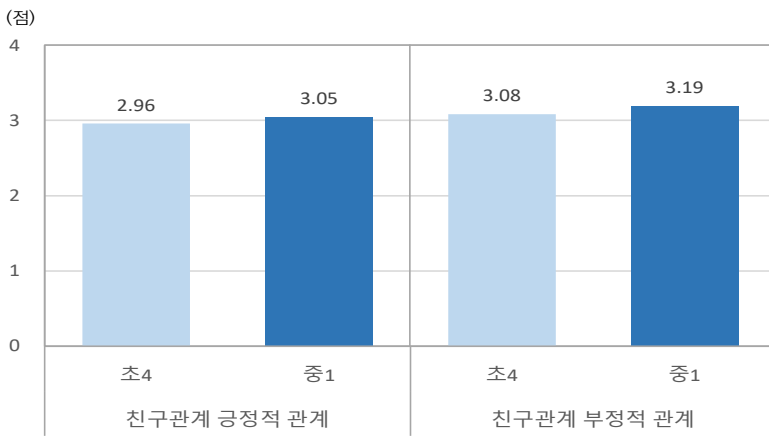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온라인 개학 기간 중 학교생활 만족도	등교 개학 기간 중 학교생활 만족도
초4	남학생	3.53	3.48	3.72
	여학생	3.32	3.29	3.57
중1	남학생	3.18	3.18	3.40
	여학생	3.36	3.34	3.66

그림 II-11 학교생활 만족도

(9) 발달환경 - 학교 - 친구

친구와의 긍정적/부정적 관계 모두 중학교 1학년 코호트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여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긍정적/부정적 관계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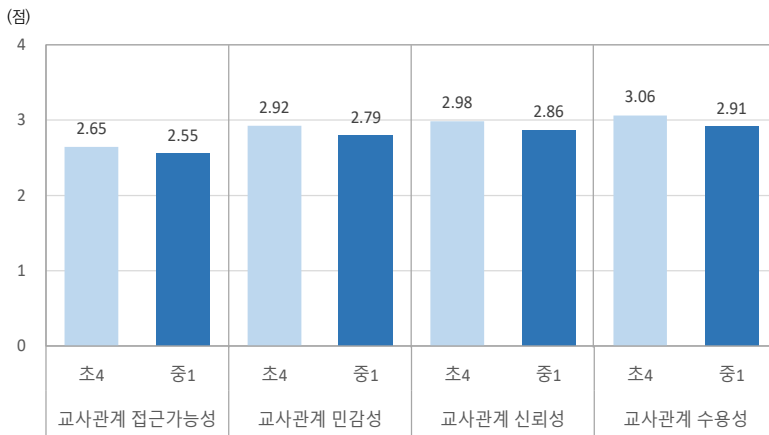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초4	남학생	2.96	3.14
	여학생	2.95	3.03
중1	남학생	2.91	3.07
	여학생	3.21	3.33

그림 II-12 친구관계

(10) 발달환경 - 학교 - 교사

교사관계는 두 코호트 모두 수용성이 각각 3.06점과 2.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뢰성, 민감성, 접근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교사관계 항목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여학생이 더 높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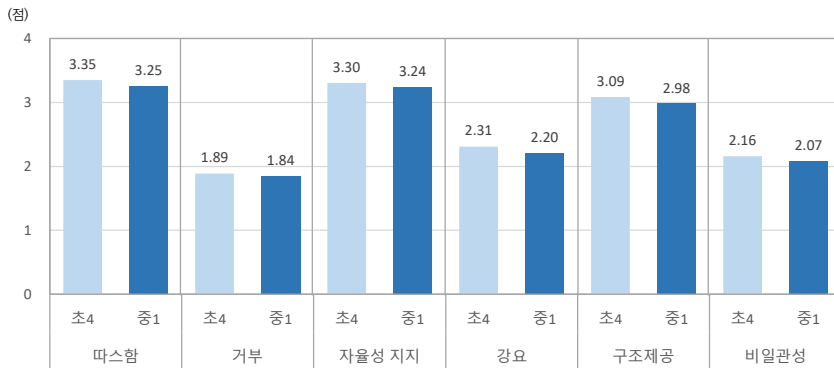


코호트	성별	접근가능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
초4	남학생	2.72	3.00	3.04	3.12
	여학생	2.57	2.84	2.93	3.01
중1	남학생	2.46	2.72	2.77	2.80
	여학생	2.65	2.88	2.96	3.04

그림 II-13 교사관계

(11) 발달환경 - 가정 - 양육태도

청소년 양육태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모두 따스함이 각각 3.35점과 3.2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 비밀관성, 거부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고,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코호트	성별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초4	남학생	3.44	1.94	3.38	2.39	3.16	2.21
	여학생	3.26	1.84	3.22	2.23	3.01	2.11
중1	남학생	3.13	1.78	3.13	2.17	2.88	2.00
	여학생	3.39	1.91	3.36	2.24	3.08	2.15

그림 II-14 양육태도

2) 스페셜 모듈

KCYPS 2018의 제3차년도 스페셜 모듈로 구성된 재난안전 의식 각 코호트별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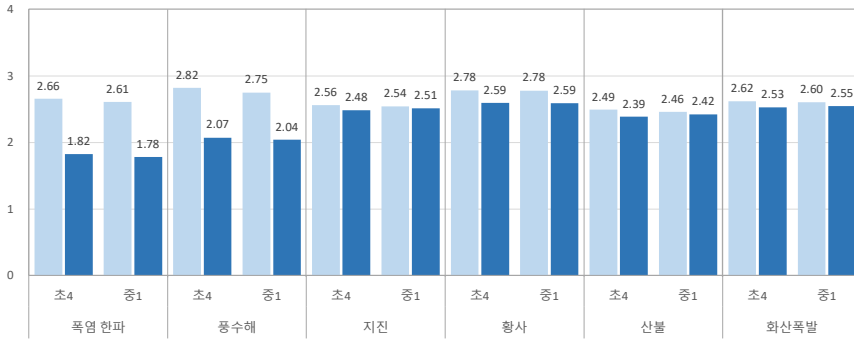
(1) 재난안전 의식

우리사회와 본인의 재난안전 의식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경우 우리 사회 재난안전 의식은 풍수해가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황사와 미세먼지(각각 2.78점)가 그 뒤를 이었다. 본인의 재난안전 의식은 황사가 2.59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산폭발(2.53점), 교통사고(2.48점)등의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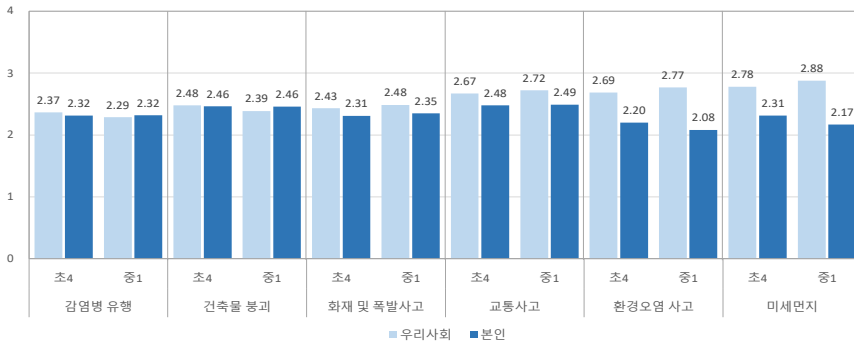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경우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의식은 미세먼지가 2.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황사(2.78점)와 환경오염 사고(2.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재난안전 의식은 황사가 2.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산폭발(2.55점)과 지진(2.51점)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대부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리사회와 본인의 재난안전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서 본인의 재난안전 의식 중 풍수해만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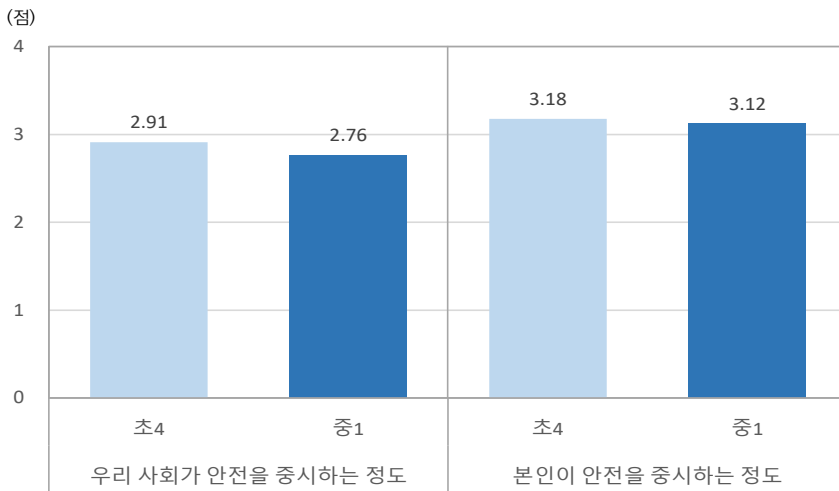
■ 우리사회 ■ 본인

코호트	성별	폭염 한파		풍수해		지진		황사		산불		화산 폭발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초4	남학생	2.70	1.84	2.85	2.06	2.58	2.51	2.80	2.61	2.50	2.41	2.63	2.56
	여학생	2.61	1.80	2.79	2.08	2.54	2.46	2.76	2.57	2.48	2.36	2.60	2.50
중1	남학생	2.66	1.85	2.81	2.13	2.63	2.59	2.85	2.67	2.52	2.50	2.65	2.63
	여학생	2.55	1.71	2.69	1.95	2.45	2.43	2.70	2.50	2.40	2.33	2.54	2.46
코호트	성별	감염병 유행		건축물 붕괴		화재 및 폭발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미세먼지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우리 사회	본인
초4	남학생	2.40	2.35	2.50	2.50	2.47	2.35	2.71	2.52	2.73	2.24	2.80	2.38
	여학생	2.34	2.27	2.46	2.43	2.39	2.27	2.63	2.44	2.64	2.15	2.75	2.25
중1	남학생	2.34	2.40	2.45	2.55	2.56	2.44	2.80	2.58	2.85	2.14	2.97	2.24
	여학생	2.23	2.22	2.31	2.35	2.40	2.26	2.65	2.39	2.68	2.02	2.78	2.09

그림 II-15 재난안전의식

(2) 우리사회 및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

우리사회 및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보다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호트별로 우리사회가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2.91점으로 중학교 1학년 코호트(2.76점)보다 다소 높았고,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보다 0.06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두 코호트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리사회와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이다.



코호트	성별	우리사회가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
초4	남학생	2.95	3.19
	여학생	2.87	3.16
중1	남학생	2.78	3.13
	여학생	2.74	3.12

그림 II-16 우리사회 및 본인이 안전을 중시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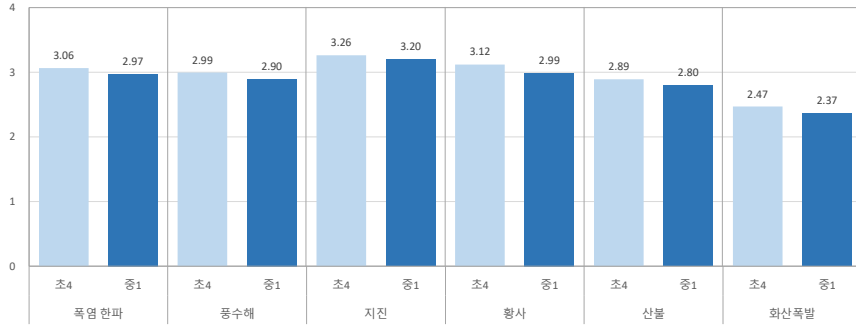
(3) 재난 시 행동요령 인지도

재난 시 행동요령 인지도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경우 감염병 유행이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진(3.26점), 미세먼지(3.22점) 등의 순이었다. 중학교 1학년 코호트 또한 감염병 유행(3.44점), 지진(3.20점), 미세먼지(3.1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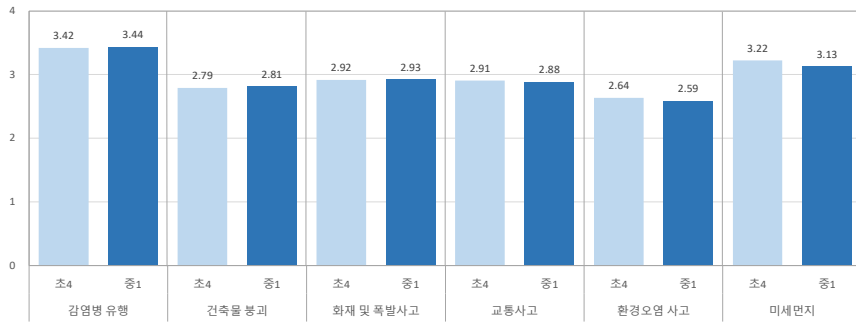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여학생의 경우 지진과 함께 사회재난 안전에 해당하는 감염병 유행, 건축물 붕괴, 화재 및 폭발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미세먼지에 대한 행동요령 인지도가 남학생 보다 높았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경우도 감염병 유행과 화재 및 폭발사고의 행동요령 인지도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앞서 재난안전 의식에 대한 감염병 유행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본인이 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재난 시 행동요령 인지도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재난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사회적 재난을 직접 더 체감하였고, 이에 감염병과 관련한 행동요령을 더 숙지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점)



(점)



코호트	성별	폭염 한파	풍수해	지진	황사	산불	화산 폭발
초4	남학생	3.06	3.02	3.24	3.12	2.90	2.49
	여학생	3.06	2.96	3.28	3.12	2.87	2.45
중1	남학생	3.01	2.93	3.22	3.04	2.84	2.43
	여학생	2.94	2.86	3.17	2.94	2.75	2.30
코호트	성별	감염병 유행	건축물 붕괴	화재 및 폭발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미세먼지
초4	남학생	3.40	2.75	2.90	2.90	2.63	3.19
	여학생	3.45	2.83	2.93	2.91	2.64	3.25
중1	남학생	3.42	2.83	2.92	2.92	2.62	3.14
	여학생	3.46	2.80	2.93	2.85	2.55	3.11

그림 II-17 재난 시 행동요령 인지도

5.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는 갑작스런 실사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코로나19)로 인해 8월부터 시작된 실사에서 지속적으로 면접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패널들에 의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사 기간 중인 10월 초 조사기간을 8월~11월에서 8월~12월로 1개월 연장하고, 11월 실사부터는 코로나19로 면접원 대면접촉에 부담이 있는 패널에 대해 기 구축된 TAPI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였다.

1)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에 관한 이론적 논의¹⁶⁾

(1) 혼합조사

혼합모드조사(Mixed-mode survey)는 하나의 조사에 두 개 이상의 조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단히 혼합조사라고 일컬어진다. 보통 혼합조사는 저비용 방법에서 출발하여 무응답 표본에 한해 일부 고비용 방법을 적용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인 웹 조사를 시행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대면조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응답자의 비율을 줄여 문항 응답의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위해 개별 면접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컴퓨터 기반 면접조사, 웹조사, 모바일 조사 등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혼합조사는 최근 조사원 인건비의 증가, 인쇄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 절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요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16) 이 절은 김효진 강사(고려대학교 교육학과)가 집필하였음.

있으며, 다수의 국가통계 작성기관들은 통계 조사의 결과에 대한 품질은 유지하되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혼합조사는 적용되는 서로 다른 조사방법의 약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부담과 조사비용의 증가 없이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 혼합조사는 비용 절감 효과와 동시에 응답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하나의 조사에 이용하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접촉 가능성을 높여 무응답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표본에 접근함으로써 표본의 범위(coverage)를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혼합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단일조사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응답편의나 표본편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an der Laan and Nunspeet, 2009). 특히, 대면면접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이 ‘기타’, ‘모름’, 혹은 ‘알 수 없음’에 응답할 확률을 낮게 해주기 때문에 포함오차와 무응답오차 축소를 통한 총 조사오차에 대한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De Leeuw, 2005; Dillman et al., 2009), 나아가 고품질의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Biemer, 2001; Voogt and Saris, 2005; Dillman et al., 2009).

최근 들어 혼합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사방법으로 대두되었다. 전통적으로 대면면접조사에 의존하던 다수의 사회조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조사는 정확한 응답을 위해 대면면접조사를 선호해왔으며, 대부분의 조사에서 대면면접을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조사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격상된 시기에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응답자와 연구자, 면접자 등에게 모두 잠재적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매우 높아졌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팬데믹 방지를 위해 지양해야만 한다. 대면면접조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UN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r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218개 국가통계청 중 69%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대면면접조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했다고 응답했다(UN, 2020). 이러한 통계 결과를 통해 대면면접조사의 유지는 작성기관에 매우 부담스러운 작업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작성기관은 갑작스러운 비대면 조사방법으로의 변경보다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대응지침을 통해 최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조건 대면면접조사를 고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응답자가 비대면 조사방식을 원하는 경우나 범유행 격상 단계에서는 온라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혼합조사 시행에 대한 다양한 절차와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다.

(2) 혼합조사에서의 부작용

혼합조사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혼합된 조사방법이 응답률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응답률을 높였더라도 서로 다른 조사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로 인하여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응답자가 제공되는 조사방법과 상황에 따라 응답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혼합조사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순수한 조사도구 효과 혹은 측정 효과란 ‘동일한 응답자에게 조사방법(mode)을 달리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응답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Buelens et al., 2012). 일반적으로 가계에 관련한 사항(수입, 지출, 교육비, 용돈 등)이나 개인정보 또는 이혼, 동거, 정신건강, 자살과 같은 사생활 관련 항목은 조사방법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annieuwenhuyze et al., 2010). 이러한 민감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인터넷조사를 통해 얻은 경우, 면담 조사방법에 비해 큰 분산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응답 경향에 대한 차이는 조사원 대면 조사의 경우는 조사원에 의한 간섭, 시청각 자료의 활용성, 인센티브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Dillman,

2000). 특히 조사원의 전문성과 같은 전문가 효과와 같이 조사 측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조사도구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동일 표본을 서로 다른 응답 방식에 응하게 한 뒤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조사단계에서 동일 응답자에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사방법에 모두 응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방법 간 차이가 순수하게 조사도구 효과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사실, 순수한 조사도구 효과는 각 조사방법을 구성하는 표본들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는 곧, 각 조사방법별로 표본이 동일한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Buelens et al., 2012; Klausch et al., 2014; Vannieuwenhuyze et al., 2010).

조사도구 효과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먼저, 조사방법에 따라 표본의 변화가 발생하여 일부 특정 계층이 배제되는 표본 범위 비율 (Coverage rate)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컴퓨터나 모바일의 사용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조사에서 탈락되게 된다. 또한, 개인이 다양한 조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효과로 인해 조사방법에 따른 측정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측정오차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조사방법의 혼합으로 인한 선택 효과 뿐 아니라 응답자 개인의 성격, 가치관, 불완전한 기억 등이 미치는 영향과 같이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도 있다. 특히, 온라인 패널은 자기선택편향 오차 (Self-selection bias error)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이러한 원인들은 조사 결과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무응답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표본에게만 면접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더라도, 일부 연구에 의하면, 무응답률의 변화가 추정치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도구의 혼합이 무응답률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무응답률의 감소가 무응답 편향을 작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도구 효과로 인해 외려 측정오차가 상승한다면 결과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Curtin et al., 2000; Groves, 2005; Olson et al., 2012). 이에 더불어, 시점에 따라 조사방법이 혼합된 비율에 차이가 난다면 각 시점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의 통제는 매우 어려우며, 그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원인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응답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분석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편향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효과를 추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조사를 시행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조사도구 효과의 크기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주된 이유는 혼합조사의 조사도구 효과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가 적은 편이며, 그를 적용한 실제적 논문의 수도 매우 적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사도구 효과가 모든 문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워 분석의 복잡성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원인 중 하나이다.

(3)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의 분석 방법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장점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조사방법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들을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웹 조사의 경우 목표 모집단 자체가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가의 여부로 규정되기 때문에 편의 표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사방법을 응답자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선택 효과가 반영되게 되므로 조사도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어떠한 결과가 더욱 신뢰로운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상언 외(2012)는 인터넷 조사에 비해 종이조사가 신뢰롭다고 보았으며, Das (2012)는 전통적 조사방법인 면접조사, 종이조사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된 조사방법의 응답 결과의 오차를 추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로 전통적 조사방법에 비해 새롭게 적용된 조사방법의 신뢰도가 오히려 높다는 의견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일부 문항에서는 조사도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연구는 조사도구 효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도구 효과의 고려를 위해 측정오차를 줄이는 통계 방법을 채택하거나 효과 크기의 추정을 통해 보정하는 통계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백지선, 민경아, 2016). 혼합 조사에서 조사도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은 주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서로 다른 조사도구의 결과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편향에 대한 보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중 최적 결합 방법, 성향점수를 이용한 추정 방법, 이중차분을 통한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최적 결합 방법(Optimal weighting method)이다. 최적 결합 방법은 동일한 응답에 대해 조사방법에 따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추정값이 존재하고 각 추정값의 분산은 불편성을 만족하며 추정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개별 추정치들을 결합한 결합 추정치의 평균 제곱 오차가 개별 추정치의 평균 제곱 오차에 비해 작아지는 특성을 활용한다(Bates and Granger, 1969). 예를 들어, 두 가지 조사방법으로 인한 추정값이 f_1 과 f_2 라고 할 때, 결합 추정량과 그에 대한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 = \omega f_1 + (1 - \omega) f_2$$

$$var(f) = \omega^2 var(f_1) + (1 - \omega)^2 var(f_2)$$

이때, 결합추정값 f 의 오차분산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가중치 (optimal weigh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omega = \frac{var(f_2)}{var(f_1) + var(f_2)}$$

즉, 최적 결합 방법은 조사된 자료를 조사방법에 따라 분리한 뒤 개별적으로 추정값을 도출한 후, 분산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정 결과를 하나로 결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측정 효과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추정치의 결합에 있어 조사방법별 분산의 크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택 효과를 동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성향점수를 이용한 방법이다. 성향점수를 이용한 보정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특정 성향이 조사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교집단 간 특성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각 집단별 개인의 선택 절차(selection mechanism)에 따른 영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입된 기법이다(Rosenbaum and Rubin, 1984; D'Agostino, 1998; 김서영 외, 2010). 성향점수를 이용한 보정을 위해서는 준거가 되는 참조 조사(reference survey) 자료가 필요하다. 참조 조사의 결과는 비교 대상이 되는 실험 조사와 시행 시기나 모집단에 대해 동질성을 띄어야 하며, 신뢰로운 응답을 갖는 조사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준거가 부실하게 되어 효과적일 수 없다. 성향점수를 이용한 보정은 성향점수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공변량을 대상으로 참조조사의 성향점수 분포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성향점수는 응답자가 어떠한 조사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변수를 모형화한다. 이를 태도 변수 혹은 성향변수라고 명명하며, 이러한 변인들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투입된다. 따라서 성향점수를 이용한 보정 방법은 성향변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조사방법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성향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방법은 특정 성향이 조사방법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강할수록 성향점수를 추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된다. 하지만, 반면 조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대상자들의 특별한 성향이나 의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개선 효과

가 낮게 나타난다. 다수의 조사는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치의 편향을 보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성향점수를 통한 편향 축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Taylor, 2000; Schillewaert and Meulemester, 2005; Lee, 2006; 김서영 외, 2010; 김영원, 배예영, 2010). 해당 방법은 선택 효과를 반영하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지만, 측정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임정은, 박라나, 2013), 변수에 따라 오히려 편향이 확대되어 추정치의 변동이 증가하게 되어 통계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차분법이다. 보통 정책의 인과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책실시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은 조사도구 효과의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중차분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이 동질하다는 가정에서 시작되며, 조사도구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방법으로 응답한 패널을 분류하여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설정하게 된다. 이중차분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후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처치에 따라 변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을 제거하여 인과효과 추정값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중차분 추정량은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결과변수 값 간의 차분에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의 결과변수 값의 차분을 빼는 것이며, DID 모형 설계를 통해 시간독립적인 요인은 제거가 되고, 시간종속적인 요인 역시 집단 간에 유사성이 있다면 제거가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조사도구 효과만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분석 시 어떤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혼합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분석 결과의 정합성과 신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혼합조사의 실제적 활용

국내에서 혼합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실태조사로는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들 수 있다. 혼합조사에 대한 분석은 해외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German National Travel Survey, Household Survey in the Netherlands, European Social Survey, 그리고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조사의 간단한 소개와 연구보고에 따른 조사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 국내 혼합조사 연구 사례

먼저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공동작성통계로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의 축소를 위해 통계청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 초중고 3,015학교, 3,108학급 학생의 학부모 약 80,000명 및 해당학급의 담임교사, 방과 후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 최초실시되어 현재 연 1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통계는 2010년 6월과 10월에 인터넷조사 시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조사 대상의 50%는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응답률은 초등학교 87.2%, 중학교 93.4%, 고등학교 96.6%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의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중 희망자에 한해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응답률은 초등학교 69.0%, 중학교 69.6%, 고등학교 72.8%로 이 전년도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시험조사를 바탕으로 현재는 인터넷조사(모바일 조사를 포함)를 기본 조사방법으로 하되, 응답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PC 미보유 등 인터넷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종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종이 조사의 경우, 표본학급의 학생 편에 종이 조사표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부모는 조사표를 직접 작성한 뒤, 봉투에 밀봉하여 학생 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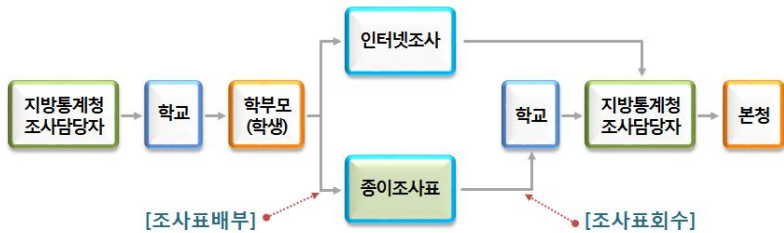


그림 II-18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표 작성방법 체계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조사방법별 선택효과를 보기 위해 2011년과 2012년 조사된 인터넷 조사와 종이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경은, 박라나, 2013). 2011년도에는 시범조사의 진행 특성상 응답자가 조사방법에 대한 선택을 하지 못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인터넷 조사를 먼저 권고한 이후 종이 조사가 추가진행된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조사 시점의 방법적 특성으로 인해 임경은, 박라나(2013)는 2012년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응답 부담 및 무응답 비율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 선택 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조사에서 인터넷 조사의 항목 무응답 비율이 종이 조사에 비해 1~5% 가량 낮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측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이상치 존재 여부와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 검정을 위해 2011년의 종이 조사와 인터넷 조사의 사교육비 응답 평균 차이, 2012년의 종이 조사와 인터넷 조사의 사교육비 응답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진행하였다. 이때, 초중고사교육비조사의 경우, 다른 혼합조사들과는 달리 조사원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조사와 종이

조사 모두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진행되어 조사원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아 순수한 조사도구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방법에 대한 사교육비 시간에 대한 응답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당 사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 측정 효과가 다르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2012년 사교육비조사에는 선택 효과와 측정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혼합조사 추정 방안으로 최적 결합을 이용한 방법과 성향점수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적 결합 방법의 적용하여 관심 지표를 분석한 결과, 종이 조사와 인터넷 조사에서 수집된 응답을 구분하지 않고 얻은 추정값과 최적 결합 방법을 통해 얻은 추정값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분산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가 조사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지역, 학교급, 성적 등급, 부모 평균연령, 부모 학력, 경제활동, 소득을 성향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사방법으로써 0과 1로 코딩되었으며, 성향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성향가중값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성향가중값에 따라 성향점수 보정을 통해 추정한 결과, 기존 추정값과 성향점수 보정 추정값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로 통계청에서 수행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면 조사로 조사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를 작성하고, 이후 6개월 이상 응답을 지속한 가구는 전자조사(인터넷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모바일 CASI)로 조사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박시내 외(2014)는 응답자의 조사방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30대와 40대일수록, 대출 이상일수록, 가구주 또는 배우자일수록, 비농가 및 동부지역에 거주할수

록 인터넷 CASI 조사방법에 응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CASI를 선택하기 위해서 응답자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컴퓨터에 대한 기본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계 분석 후,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수, 농가 여부, 동읍면부의 8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반복비례가중법을 적용하여 각 변수의 범주별 비율을 기준으로 자료수집방법 범주별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사후가중치 조정 전과 후의 조사방법 별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과 던컨의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가중치 조정 전에는 PAPI(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SI 세 가지 조사방법 모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 조정 후에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자료수집방법 별 차이가 있었으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면면접과 비대면면접으로 조사방법을 재범주화 하여 반복비례가중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중치 조정 전에는 자료수집방법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중치 조정 이후에는 모든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박시내 외(2014)는 조사방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여러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조사원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주택, 일자리, 복지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로, 주거 실태, 경제활동상태, 아동보육 등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에 관한 조사항목을 전국 가구의 20%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전반에 걸쳐 기획, 실사, 자료처리,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원의 채용, 조사표 검토, 실사지도, 회수 등의 실사업무를 수행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 인터넷조사를 도입하였다. 인터넷 조사의 실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예상보다 17.9% 높은 47.9%를 달성하였고, 해당 조사는 인터넷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건비, 인쇄 및 입력 비용 등 20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황양주, 최유성(2011)은 인터넷 조사 결과를 면접조사와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면접과 인터넷 조사로 수집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이며, 두 조사방법 간 오차 등 품질 비교를 위해 2010년 12월 사후조사 결과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 데이터를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가구, 가구주, 주택의 특징에 관해 대도시의 중형아파트에 거주하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40대 가구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인터넷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외형상 당시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가까운 가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의 품질 비교를 위해 사후조사결과를 조사방법별로 구분하여 조사항목별로 조사 결과를 집계하였다. 사후조사 결과와 본조사 결과의 차이를 확인된 가구원의 누락과 중복(조사되어서는 안 될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의 정도를 측정하는 표본범위 오차(Coverage error)와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해서 본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응답이 상호 일치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Response error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수와 가구원 수 모두에서 인터넷조사의 총 오차율이 면접조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복률 역시 인터넷조사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등 모든 항목에서 인터넷 조사가 면접조사보다 응답 오차가 약간 적게 나타났다. 황양주, 최유성(2011)은 이러한 품질 차이가 인터넷 조사는 자발적인 응답을 전제로 하며, 인터넷으로 응답한 가구원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보유하고 사용할 정도의 경제 수준과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석하였다.

나. 해외 혼합조사 연구 사례

먼저 German national travel survey는 독일 연방 교통부에서 주관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통계 조사로, 독일의 교통량, 주민의 일상적 이동에 대한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협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사용되는 설문 조사방법으로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그리고 PAPI로 응답자가 개별적으로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Gruschwitz et al. (2018)은 이러한 조사방법이 독일 전국 가구조사의 주요 이동성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조사방법별로 변인의 기술통계를 비교하여 조사도구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방법에 따라 응답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이동성 지표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AWI 응답자는 평균연령이 47세인 최연소 그룹인 반면, CATI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6세로 가장 높았으며, CAWI 응답자의 학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측정 효과에서 선택 효과를 분리하여 조사도구 효과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회귀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조사 모드 간 이동시간과 이동 거리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요 이동성 지표에서 차이가 난 부분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PAPI를 사용한 응답자는 CATI 또는 CAWI를 선택한 참가자보다 이동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먼저, PAPI로 실제로 이동수가 적은 개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의 커버리지와 응답 신뢰도가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면접관의 도움 없이 설문을 시행할 때,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거리의 이동이나 목적지로 가는 길에 경유를 하는 등의 이동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 응답에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조사도구 효과는 응답자의 조사방식 선호도 보다는 조사 모드의 측정 효과

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Household surveys in the Netherlands(네덜란드의 가계조사)는 국가의 정책 및 연구를 위한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 생활조건에 대한 정보 등을 위해 실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조사에 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1998년부터 CAPI와 CATI의 혼합 모드 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조사모드의 혼합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Van der Laan and Nunspeet (2009)는 해당 조사의 재설계를 위해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조사 프로세스의 표준화, 효율성 극대화, 품질 향상을 위한 중단기 목표를 논의하였다. 그 중, 조사도구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조사는 첫 번째 단계로 CAWI(혹은 PAPI모드)를 실시하여 통상적으로 25~30%의 응답을 달성하고, 비응답자를 대상으로 재접근 CATI 모드를 사용하여 또 다른 25~30%의 응답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무응답자에 대하여 CAPI 모드를 통해 10~15%의 추가 응답을 얻게 된다. 이 점으로 전주어볼 때, 조사모드의 혼합은 어느 정도의 기준치 이상의 응답율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본 조사는 이러한 혼합모드로 인해 조사도구 효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CAPI와 CATI 기반의 조사를 결합한 다변수 구조 시계열 모형(multivariate structural time series model)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편견을 극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격년제 조사로 2002년에 시작된 조사로, 유럽 30개국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유럽의 제도와 태도, 신념, 행동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뢰, 정치, 사회 가치, 사회적 배제, 차별, 국가 정체성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수행된다. 국가 간 동등성과 설문 조사의 추정치를 의미 있게 비교하기 위해 모든 설문 조사는 대면 조사로 전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 역시 재정 축소로 인해 혼합 모드 조사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모드 별 데이터 비교를 통해 시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혼합 모드에 대한 ESS 연구는 다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혼합모드 데이터 수집이 ESS의 향후 조사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 데이터 조사방법과 어떤 종류의 방법들이 전체 조사설계의 혼합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둘째, 다양한 모드 및 모드의 조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커버리지와 응답률을 평가하고, 차분 오차(differential error)를 통해 모드 간의 가능한 무응답 오류 및 측정오차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Vannieuwenhuyze and Looseveldt (2012)의 연구에서는 대면 조사만을 진행한 ESS의 응답 데이터와 CAWI, CATI, CAPI 방법을 혼합하여 조사한 응답 데이터 간의 비교를 통해 선택 효과와 측정 효과는 모든 모드에 걸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샘플은 동일한 표본 프레임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커버리지 오차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 CAPI가 다른 모드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 때문에 단일모드에서 CAPI를 혼합 한다는 것은 응답 및 커버리지를 높이기 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적으로 정치에 관련한 변수는 조사도구 효과에 취약하다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정치적 관심, 인지된 정치적 복잡성, 투표율에 관하여 응답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문항을 별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변수들은 측정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CAPI의 경우, 개인적인 인터뷰에 의해 조사되기 때문에 정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바람직성으로 인한 편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CATI 또는 CAWI에 비해 CAPI로 응답을 할 때 “절대”라는 단어에 대한 선택 효과는 유의하게 부정적이며, 반대로 “가끔”이라는 단어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여러

결과를 통해 CAPI를 선택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정치가 더 복잡하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선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외에도 각국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한 결과, ESS ERIC은 앞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CRONOS 패널(CROss-National Online Survey Panel)을 구축하게 되었고, 2016년과 2018년 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American Community Survey(ACS)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세한 인구 및 주택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사로써 1년마다 약 2백만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조사는 우편, 전화, 면접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95%를 웃도는 응답률을 얻고 있는데, 설문 조사의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의 측정 오류를 설문지, 데이터 수집 방법, 면접관 효과, 그리고 응답자 효과에 대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조사를 설계한다. ACS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전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혼합조사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측정 오류는 응답자의 응답 오류와 조사관 오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응답 오류의 경우 특히 대리응답자가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응답 오류가 주된 원인이 된다. 이에 ACS는 대리 응답을 허용하지 않고, 표본가구 자체로부터 얻은 정보만을 토대로 조사 추정치를 산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면접관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절차를 잘못 해석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ACS는 응답을 도출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 고도로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정규직 직원으로 조사관을 구성함으로써 조사관 오류를 줄이고 있다.

(5)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 관련 선행연구

Diment and Garrett-Jones (2007)는 웹 조사와 우편 조사의 응답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두 조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조사도구 효과를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당시의 웹 서버 접근성이 현재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시의 웹 조사 선호도는 낮은 편에 속했으며, 응답 완료율도 20%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연구는 Couper (200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8%만이 혼합모드 설문 조사에서 웹 조사를 선택했다는 것에 빗대어 볼 때, 웹 조사의 대중성은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웹 조사와 종이 조사의 조사도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모드 설문 조사의 편향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논문으로써, 남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고위 연구원과 고위 관리직에 있지 않을수록, 기술작업자나 제조 관련 직업을 가질수록 웹 조사를 선택하고, 이러한 요인이 모드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ugtig et al. (2011)은 성향점수매칭 모델을 통해 CATI와 WAPI (Web Aided Personal Interviewing)의 조사도구 효과를 무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두 조사방법은 커버리지와 무응답 편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이 선택 효과를 일으키는 차이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배경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도 CATI와 WAPI의 조사에서 여전히 다르게 응답함을 보임으로써 조사도구 효과를 증명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CATI 응답자는 WAPI 응답자보다 매우 긍정적인 범주를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CATI가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긴다.

혼합 조사로 인한 조사도구 효과의 평가는 선택 효과와 측정 효과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 효과와 측정 효과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Vannieuwenhuyze and Looseveldt (2012)로, 교차표를 사용한 카이제곱 검정을 적용한 MM Calibration, Extended MM Comparison, Extended MM Calibration 방법을 제시하였다. 백지선, 민경아 (2016)의 연구는 그 중 Extended MM comparison 방식을 통해 웹조사와 면접

조사의 선택 효과와 측정 효과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먼저, 두 실험집단은 주요 특성 기준에서 대체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집단의 대표성 가정은 충족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는 정치 문제나 자살과 같은 문항 등에서는 측정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노후 월평균 최소/적정 생활비와 같이 가계에 관해 묻는 문항에서도 측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감한 조사 문항은 조사 도구 효과 발생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혼합조사는 커버리지(Coverage) 오차, 표집 오차, 무응답 오차, 측정 오차와 같은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사용되는 여러 조사방법들의 장단점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며(한신갑, 2012), 기술의 발전, 팬데믹의 위기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시대적 변화로 인해 대면 조사가 주를 이루던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나 웹조사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사회조사 자료는 언제나 대표성, 체계성,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패널 구축과 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혼합조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 10분가량의 짧은 설문은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방법이 여럿 존재하는 반면, 다수의 사회 조사는 30분 이상, 길게는 60분이 넘는 설문 조사는 민감한 사항, 혹은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문항도 다수 포함되어 측정오차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므로 비대면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외에도 비대면 조사방법을 도입하는 데는 표본의 대표성과 응답 신뢰도 부분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입이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수의 조사 및 연구들은 일부 특성 계층이 배제될 수 있는 커버리지 오차나 자발적인 조사방법 선택으로 인한 자기선택편향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대표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의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

KCYPS 2018의 기본적인 조사 방식은 TAPI 방식을 통한 대면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제3차년도 조사 당시 실사 진행 거부감으로 인해 조사방식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였다. 온라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본조사의 실사기간인 8월~12월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기별, 지역별로 급변하여 패널들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반응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에서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로 조사 성공한 사례수를 지역별로 나타낸 표이다. 초4 코호트의 경우 전체 조사 성공 2,411명 중 671명(27.8%)이 온라인조사로 응답했으며, 중1 코호트의 경우 전체 조사 성공 2,384명 중 585명(24.5%)이 온라인조사로 응답했다. 전체 패널로 보면 약 1/4정도의 패널이 온라인조사로 응답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

표 II-19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 결과(온라인/면접)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조사 성공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 성공		면접조사	
	N		N	%	N	%	N		N	%
전체	2,411		1,740	72.2	671	27.8	2,384		1,799	75.5
서울	394		255	64.7	139	35.3	394		263	66.8
부산	141		110	78.0	31	22.0	125		101	80.8
대구	97		91	93.8	6	6.2	103		97	94.2
인천	154		83	53.9	71	46.1	195		107	54.9
광주	76		64	84.2	12	15.8	66		57	86.4
대전	70		63	90.0	7	10.0	68		63	92.6
울산	56		56	100.0	0	0.0	47		46	97.9
세종	28		25	89.3	3	10.7	41		39	95.1
경기	656		340	51.8	316	48.2	589		325	55.2
강원	79		68	86.1	11	13.9	74		69	93.2
충북	83		74	89.2	9	10.8	100		93	93.0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조사 성공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 성공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N	N	%	N	%	N	N	%	N	%
충남	122	108	88.5	14	11.5	96	86	89.6	10	10.4
전북	89	78	87.6	11	12.4	108	100	92.6	8	7.4
전남	82	73	89.0	9	11.0	77	71	92.2	6	7.8
경북	118	105	89.0	13	11.0	113	102	90.3	11	9.7
경남	141	124	87.9	17	12.1	162	159	98.1	3	1.9
제주	25	23	92.0	2	8.0	26	21	80.8	5	19.2

초4 코호트의 경우 서울지역 온라인조사 비율은 35.3%, 인천은 46.1%, 경기도는 48.2%로 나타났고, 중1 코호트의 경우에도 서울 33.2%, 인천 45.1%, 경기 44.8%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수도권이라는 점인데, 이는 KCYPs 2018의 실사 기간과도 연관이 있다. 본조사의 실사기간은 8월-12월로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우연히도 작년 실사기간 중 8월과 11월 이후 수도권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조사 실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에만 온라인조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여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지 않았다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패널만 제3차년도에 마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패널유지율 감소가 최소화되는 결과를 얻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동일한 조사 안에 다른 조사도구를 사용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조사도구 병행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조사도구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도구 효과란 조사도구에 따라 응답값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시점에 어떠한 설문을 했는데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자계식 종이설문조사, 타계식 종이설문조사 등에 따라 응답값에 차이가 나타났다면 조사도구 효과가 있는 것이고, 차이가 없다면 조사도구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사람에게 조사도구를 다르게 설문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시점에 서로 다른 조사도구를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도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조사도구로 조사된 같은 설문 결과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 또한 결과의 차이가 조사도구에 의한 차이인지 설문 응답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단년도 조사 결과에서 두 조사도구에 의한 결과만을 비교한다면 이것이 조사도구에 의한 차이인지 패널 특성 차이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대상을 추적 조사한다는 패널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조사도구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27.8%가 온라인조사로 응답했고, 나머지 72.2%가 면접조사로 응답했다. 그런데 이전 조사에서는 이들 전부가 면접조사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제3차년도 조사에 온라인조사로 응답한 패널을 실험군(treatment)으로 정의하고, 제3차년도 조사에 면접조사로 응답한 패널을 대조군(control)으로 정의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조사도구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중차분법은 통상 어떠한 정책 시행의 인과효과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정책 시행 전후 비교(before and after method)의 시간 변화 단점과 정책 수혜 그룹과 비수혜 그룹을 비교하는 대조군 비교(benchmark method)의 그룹간 이질성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차분법이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정책 수혜를 받기 전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바꿔말하면 동질적인 집단에 우연히 일부만 정책이 수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본 절에서 분석할 조사도구 효과에 이를 적용하면 이전 조사에서 전원 면접조사를 진행했던 원패널의 일부만 우연히 제3차년도 조사에서 온라인조사에 응답했어야 이중차분법이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작년 외부요인(코로나19)은

전체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특히 수도권의 8월과 11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수도권에 사는 패널 입장에서는 우연히 강화된 것이며, 원래 11월 경 본조사에 응답하려고 하였으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조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온라인조사를 진행한 패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를 진행한 패널들과 개인 고유의 태도나 성향 등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다른 때문에 온라인조사를 진행했으며 개인 고유의 태도나 성향에 따라 조사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조사도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시점에 동일한 설문으로 서로 다른 조사도구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조사도구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배분하는 등의 실험설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본조사에서는 실사기간 실사 과정에서의 큰 변수가 발생했고, 사후적으로 조사도구가 병행된 것이므로 조사도구 효과가 나타났는지의 여부도 사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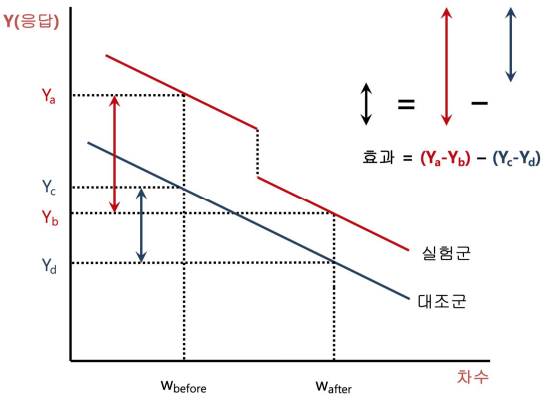


그림 II-19 이중차분법에 의한 효과 추정

분석에 사용한 이중차분 모형은 다음과 같고, 추정치에 대한 오차는 개별 패널들에 대한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text{조사결과변수} = \beta_0 + \beta_1 \cdot \text{조사도구효과} + \beta_2 \cdot \text{온라인조사패널} + \beta_3 \cdot \text{조사차수} + \epsilon$$

분석에 사용한 대상은 제1차-제3차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패널(balanced panel)이다. 조사 결과 변수는 어떠한 조사 결과들에서 조사도구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종속변수로는 설문문항 뿐만 아니라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의 조사 응답 시간 차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paradata 중 조사 응답 시간도 종속변수에 활용하였다. 온라인조사패널은 제3차년도 조사에서 온라인조사로 응답한 패널이 1, 면접조사로 응답한 패널이 0인 더미변수¹⁷⁾이고, 조사차수는 온라인조사가 병행된 제3차년도가 1, 전부 면접조사로 응답한 제1차-제2차년도가 0인 더미변수이다. 조사도구 효과는 온라인조사패널 더미와 조사차수 더미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고, β_1 의 추정값이 이중차분법으로 도출한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라 할 수 있다. 즉, β_1 의 추정값 0이라는 귀무가설을 통계적으로 기각하면 조사도구에 따른 응답값의 차이가 발견된 것이고, 기각하지 못하면 조사도구에 따른 응답값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이중차분 분석 결과

조사도구에 따른 응답값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조사 응답 패널을 실험군으로 하고 대면조사 응답 패널을 대조군으로 하여 온라인조사 효과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응답 시간의 경우 온라인조사 응답시간이 대면조사 응답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5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4 코호트의 경우 온라인조사로 응답했을 때 약 2.1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¹⁸⁾하였다. 중1 코호트의

17) 제3차년도 조사에서 온라인조사로 응답한 패널의 고유 ID를 이용해 제2차년도와 제1차년도 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

18) 95% 신뢰수준에서 해석함.

경우에는 초4 코호트와는 반대로 약 2.3분 정도 응답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온라인조사의 응답시간이 면접조사의 응답시간과의 차이가 약 2분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이유를 본조사의 조사도구가 TAPI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실제 실사에서 조사 대상 패널은 면접원을 만나 Tablet PC에 응답을 하는데, 온라인조사의 경우에도 사실상 같은 화면을 본인의 PC 또는 Tablet 등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조사 응답 시 면접원 유무만 다를 뿐 응답하는 방식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종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PAPI와 TAPI의 차이 정도를 예상했지만 TAPI와 CAWI의 응답 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도구 효과 분석 결과를 초4 코호트 먼저 살펴보면, 수면시간(평일), 학업성취, 학업열의, 정서문제, 그릿(Grit), 건강, 신체, 스마트폰 의존도, 친구관계, 교사관계,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평일 수면시간이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의 경우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만족도가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 하위요인 중 헌신은 음의 영향을, 활기와 몰두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서문제 중 신체증상과 우울이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응답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릿(Grit) 또한 응답값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키와 몸무게는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적거나 낮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우에는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친구관계는 낮아지고, 교사관계는 좋아지며 양육태도 중 부정적인 하위요인도 긍정쪽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1 코호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들이 초4 코호트와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도 있고 반대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 평일 수면시간이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성취도의 주관적평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 중 활기와 몰두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초4 코호트의 결과와 반대의 결과이다. 학업무기력 중 긍정정서 결여와 능동수행 결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문제는 대부분 낮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협동심 중 팔로워십은 다소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스마트폰 의존도 중 금단과 내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와 양육태도 중 부정적인 하위요인(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초4 코호트와 유사하게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좋게 응답하는 경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20 조사도구 효과 파악을 위한 이중차분 분석 결과

조사 영역			조사 항목	하위 요인	초4	중1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코호트 $\hat{\beta}_1$	코호트 $\hat{\beta}_1$	
Paradata			조사 응답 시간 ¹⁹⁾		2.085**	-2.340**	
개인 발달	생활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	평일	0.133**	0.227**	
				주말	-0.022	0.133	
			수면의 질	평일	-0.026	0.063	
				주말	-0.032	0.078*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0.196**	-0.114**	
			학업성취 만족도		-0.207**	-0.073	
		학업태도	학업열의	헌신	-0.274*	-0.191	
				활기	0.417**	-0.424*	
				효능감	-0.085	-0.079	
				몰두	0.266*	-0.329*	
			학업무기력	통제신념 결여		0.024	
				학습동기 결여		-0.295	
				긍정정서 결여		-0.270*	
				능동수행 결여		-0.378**	
		사회/정서/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0.005	0.329*
			행복	행복감		-0.122	0.205*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0.366	0.984**
			정서문제	주의집중		-0.045	-0.728**
				공격성		0.350	-0.768**
				신체증상		0.637*	-0.597*

조사 영역			조사 항목	하위 요인	초4	중1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코호트 $\hat{\beta}_1$	코호트 $\hat{\beta}_1$
			사회적 위축		0.406*	0.010
			우울		1.288**	-1.194**
		협동의식	협동심	집단촉진	0.112	0.319
				팔로워십	-0.117	0.168*
				갈등문제해결	0.231	0.193
		창의성	창의적 성격			0.257
		끈기	그릿(Grit)		0.507**	0.285
	비행	비행 I	현실비행 유무			-0.037
		비행 II	사이버비행 유무			-0.039
	신체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0.077*	0.058
			운동시간		-0.149*	0.027
			아침식사 횟수		-0.196*	0.317**
		신체	키		-0.574**	0.011
			몸무게		-0.502*	-0.260
발달 환경	매체	스마트폰	의존도	일상생활 장애	0.433**	0.179
				가상세계 지향	0.589**	0.012
				금단	0.800**	0.369**
				내성	0.731**	0.377**
	학교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0.031	0.109
		친구	친구관계	긍정적 관계	0.228	0.301
				부정적 관계	-0.862**	0.157
		교사	교사관계	접근가능성	0.395**	0.351**
				민감성	0.495**	0.579**
				신뢰성	0.236*	0.474**
				수용성	0.106	0.320**
	가정	양육태도	따스함		-0.032	-0.101
			거부		0.770**	0.429**
			자율성 지지		-0.066	0.048
			강요		0.822**	0.949**
			구조제공		0.070	0.190
			비일관성		0.411**	0.375**

** p<0.01, * p<0.05

19) 조사 응답 시간 Paradata는 제2차년도부터 수집되어 제2차-제3차년도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함.

온라인조사와 대면면접조사의 직관적인 차이점은 조사 응답 시 조사원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볼 수 있다. 조사도구 효과의 관점에서 조사 응답 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감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응답이다. 일반적인 설문 조사에서 비표본오차를 구성하는 측정오차는 설문 내용의 민감도에 따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는 과대응답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는 과소응답으로 나타난다(송인덕, 조성겸, 2013).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안전벨트 사용 등은 과대응답으로 나타나고, 음주, 흡연, 범죄행위 등은 과소응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한다(송인덕, 조성겸, 2013). 따라서 조사원이 옆에 있지 않고 혼자 온라인조사를 통해 응답한다면 조사원이 옆에 있어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불성실 응답이다. 대면면접조사에서 조사원은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온라인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의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성실한 응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성실 응답은 응답의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응답해야 불성실하게 응답했는지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석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감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응답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사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게 응답하는 경향, 양육태도 중 부정적인 하위요인을 높게 응답하는 경향은 대면면접조사에서 과소응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온라인조사로 인해 솔직한 응답이 가능해져 과소응답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면면접조사에서도 과소응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정서문제(공격성, 우울 등), 교사관계, 그릿(Grit)을 더 높게 응답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이란 관점에서 일관적인 결과는 아니다. 또한,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결과가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와 방향이 다른 결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며 코호트별 특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조사도구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문항 또는 응답들에서 동일하거나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2)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 결과

전술한 기본적인 이중차분 분석의 가정에는 한가지 약점이 존재한다. 온라인조사를 진행한 패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사를 진행한 패널들과 개인 고유의 태도나 성향 등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조사를 진행했으며 개인 고유의 태도나 성향에 따라 조사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차분 분석 결과 β_2 는 전부 면접조사로 진행할 당시의 온라인조사 패널과 면접조사 패널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제3차년도 조사에서 온라인조사와 면접조사로 구분되기 전 두 그룹의 차이를 의미하며 차이가 없다면 두 그룹이 종속변수에 대해 동질적이었다는 의미이고 차이가 있다면 온라인조사를 선택하기 전부터 동질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4 코호트의 경우 가용한 45개의 변수 중 28개(62.2%)의 문항의 β_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중1 코호트의 경우에는 가용한 52개의 변수 중 19개(36.5%)의 문항의 β_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모두 기본적으로 두 그룹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그룹의 기본적인 성향이 다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방법으로 동질성을 확보한 후 이중차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성향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심으로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가구원 수, 가구 구성, 월평균 가구 소득, 가정의 경제수준을 설정하였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캘리퍼 매칭 (caliper matching) 매칭²⁰⁾을 시행하였다. 온라인조사로 응답한 패널인 실험군과 면접조사로 응답한 패널인

20) 성향점수 거리를 0.25 표준편차로 설정.

대조군은 1:1로 매칭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 결과 중 먼저 β_2 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4 코호트의 경우 가용한 45개의 변수 중 8개(17.8%)의 문항의 β_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중1 코호트의 경우에는 가용한 52개의 변수 중 5개(9.6%)의 문항의 β_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초4 코호트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다른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대부분 사라진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1 코호트의 경우에는 교사관계의 하위요소 대부분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학업열의 중 헌신, 스마트폰 의존도 중 일상생활 장애, 친구관계 중 긍정적 관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보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된 변수들이 적게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조사도구 효과가 모든 문항 또는 응답들에서 동일하거나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II-21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 결과

조사 영역			조사 항목	하위 요인	초4	중1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코호트 $\hat{\beta}_1$	코호트 $\hat{\beta}_1$
Paradata			조사 응답 시간 ²¹⁾		0.542	-1.675
개인 발달	생활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	평일	0.223*	0.369**
				주말	-0.027	0.297*
			수면의 질	평일	0.058	0.111
				주말	-0.013	0.173**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0.138	-0.071
			학업성취 만족도		-0.229*	0.035
		학업태도	학업열의	헌신	-0.323	-0.688**
				활기	0.270	-0.280
				효능감	-0.177	-0.087
				몰두	-0.241	-0.449

조사 영역			조사 항목	하위 요인	초4	중1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코호트 $\hat{\beta}_1$	코호트 $\hat{\beta}_1$
			학업무기력	통제신념 결여		0.437
				학습동기 결여		0.315
				긍정정서 결여		0.278
				능동수행 결여		-0.190
	사회/정서/ 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0.038	0.724*
		행복	행복감		-0.096	0.146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0.101	0.931*
		정서문제	주의집중		-0.481	-0.312
			공격성		0.041	-0.745*
			신체증상		-0.006	-0.654
			사회적 위축		-0.115	-0.087
			우울		0.082	-1.316*
		협동의식	협동심	집단촉진	-0.062	0.408
				팔로워십	-0.128	0.139
				갈등문제해결	0.135	0.006
		창의성	창의적 성격			0.019
		끈기	그릿(Grit)		0.023	0.188
	비행	비행 I	현실비행 유무			-0.029
		비행 II	사이버비행 유무			-0.093*
	신체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0.091	0.112
			운동시간		-0.127	-0.022
			아침식사 횟수		0.278	0.523*
		신체	키		-0.185	-0.291
			몸무게		0.389	0.378
발달 환경	매체	스마트폰	의존도	일상생활 장애	0.526*	-0.625*
				가상세계 지향	0.516**	0.061
				금단	0.653*	0.390*
				내성	0.517*	-0.010
	학교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0.021	0.346**
		친구	친구관계	긍정적 관계	-0.069	0.695*
				부정적 관계	-0.662*	0.387
		교사	교사관계	접근가능성	0.099	0.521**
				민감성	0.226	0.764**
				신뢰성	-0.156	0.589**
				수용성	-0.155	0.214

조사 영역			조사 항목	하위 요인	초4	중1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코호트 $\hat{\beta}_1$	코호트 $\hat{\beta}_1$
	가정	양육태도	따스함		-0.004	-0.115
			거부		0.614	0.315
			자율성 지지		0.073	0.158
			강요		0.765**	0.634*
			구조제공		0.171	0.146
			비밀관성		0.483	0.215

** p<0.01, * p<0.05

3)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 함의

조사가 완료된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의 원패널 4,795명(원패널 유지율 92.3%) 중 약 26.2%(1,256명)가 온라인조사로 응답하였다. 외부요인(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조사 병행으로의 조사방식 변경은 결과론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면접조사 거부감에 대한 대응으로 온라인조사를 병행한 것의 작용은 패널유지율을 크게 하락시키지 않았다(제2차년도 패널유지율 대비 1.5%p 하락)는 것이고, 반작용은 조사방식의 차이에 따른 조사결과 차이, 즉,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사도구 효과 분석 결과 결론적으로 조사도구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문항 또는 응답들에서 동일하거나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향점수매칭을 시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상당 부분 조사도구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온라인조사가 병행된 KCYPS 2018 제3차년도 데이터 분석 시 조사도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조사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적절히 통제할 것을 제안한다.

제3차년도 조사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기별, 지역별로 급변하여 패널

21) 조사 응답 시간 Paradata는 제2차년도부터 수집되어 제2차-제3차년도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함.

들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반응이 크게 달라졌고, 실사 진행 거부감으로 인해 11월부터 조사방식을 온라인조사 병행으로 변경하였다. 온라인조사 병행에 따른 조사도구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만약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지 않았다면 실사 기간 내에 조사 완료된 패널의 수가 크게 감소²²⁾했을 것이고 이는 패널데이터가 심각하게 마모되는 결과일 수 있었다. 따라서 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널유지율의 감소를 최소화 시켰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조사 병행의 이익이 조사도구 효과에 따른 결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손해보다 종합적으로 크다고 판단된다.

22) 온라인조사로 응답한 26.2%보다는 적게 감소하였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정해진 조사 기간 내 불확실한 실사 상황 하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됨.



제3장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

- 1. 조사 내용
- 2. 조사 준비
- 3. 실사 과정
- 4. 실사 관리

1. 조사 내용

패널조사는 조사 특성 상 일관된 조사결과를 위해 매 조사 차수마다 동일한 조사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KCYPs 2018은 기본 모듈(Basic Module)과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모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발달환경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스페셜 모듈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거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2021년 실시되는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는 조사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서 변화들이 일어났다. 먼저 조사 내적인 부분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구축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원패널들의 학교급이 각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다음으로 조사 외적인 부분에서는 제3차년도 조사 시기 나타난 외부요인(코로나19)이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1학기 초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1학기 중반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각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진행한 반면, 2021년인 올해에는 1학기 개학은

23) 제3장은 하형석 연구위원, 이용해 전문연구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학교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진행²⁴⁾되고 있다.

조사 외적인 변화에 맞춰 학교생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패널조사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묻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으로 나누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소문항을 추가하였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학교마다 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난 학기 중 일주일평균 며칠씩 운영했는지 파악하는 문항도 추가하였다.²⁵⁾ 보호자에 포함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아동·청소년 문항과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기본 모듈[아동·청소년용 설문지(초등/중등)]

문 5 or 8)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5-1 or 8-1)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일주일 중 평균적으로 며칠씩 했습니까?

등교수업 _____ 일 / 5일 원격수업 _____ 일 / 5일

문 5-2 or 8-2)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등교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24) 교육부 보도자료(2021.3.18.(목),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발표).

25) 초등용 설문지의 문항번호는 5번이고, 중등용 설문지의 문항번호는 8번임.

문 5-3 or 8-3)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원격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기본 모듈[보호자용 설문지]

문 8)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1)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일주일 중 평균적으로 며칠씩 했습니까?

등교수업 _____ 일 / 5일 원격수업 _____ 일 / 5일

문 8-2)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등교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3)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원격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초4 코호트가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1 코호트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조사 내적

인 변화26)에 맞춰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기본 모듈의 개인발달 대영역 중 진로 중영역의 소영역으로 진로적응력 문항을 추가하였다. 진로적응력 척도는 Savickas and Porfeli(2011)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Career Maturity Inventory: Adaptability Form)을 타당화한 김국현, 김진숙(2021)의 진로적응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적응력 척도는 진로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호기심, 진로에 대한 자신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 14)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바라는 직업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정말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직업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세운 직업 계획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9) 사람마다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 나는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 선택을 계속 바꾸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주 공상하지만 실제로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26) KCYPS 2018의 이전 조사인 KCYPS 2010에서도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로 진학하는 제7차 및 제4차년도 조사 시점부터 진로정체감 추가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코호트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제3차년도 조사부터 진로정체감을 추가하였음.

KCYPS 2018 제4차년도 스페셜 모듈의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중 사회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비인지적 역량인 정서인식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²⁷⁾는 사람의 눈과 표정을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맞추는 일종의 퀴즈이다. 즉, 사람의 눈과 표정을 통해 그 감정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고르는 것이며, 이를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는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서인식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공감능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성장과 발달의 추가적인 파악이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현안²⁸⁾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RMET를 통한 정서인식 역량의 측정은 스페셜 모듈의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중 사회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능력의 측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KCYPS 2018의 조사 대상은 원패널, 원패널의 보호자, 원패널의 형제자매이므로 공감 능력의 세대 간 이전, 형제자매 효과 등의 다면적 관계들도 파악이 가능 등 학술연구 차원의 기여가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27) 정서인식 역량 -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MET는 Baron-Cohen et al.(1997)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를 정형화하여 36문항의 성인 버전은 Baron-Cohen et al.(2001a)에서, 28문항의 아이 버전은 Baron-Cohen et al.(2001b)에서 사용되었음. RMET는 심리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측정도구이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노동패널 제20차 조사(2017년)의 부가조사에 포함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

28) 코로나19가 바뀌놓은 변화: 2020년과 2021년 현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상대방의 눈과 눈 주변의 표정만 보는 것이 일상이 됨.

스페셜 모듈[정서인식 역량]

문) 각각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한 단어만**을 선택해 주십시오. (총 28개, 일부만 제시²⁹⁾)

1 증오하는  3 친절한 짜증난 4	1 불친절한  3 놀란 슬픈 4
1 우호적인  3 놀란 걱정하는 4	1 편안한  3 놀란 신난 4
1 가여워하는  3 농담하는 편안한 4	1 증오하는  3 걱정하는 지루한 4

아동·청소년용 설문지는 2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학령기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 항목 중 학업 무기력, 소영역의 진로계획과 진로적응력, 창의성, 중영역의 비행과 활동/문화 환경은 초등용에서 제외하였다.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에서 원패널의 경우 초4 코호트는 중학교 1학년, 중1 코호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므로 원패널 조사는 중등용(중학생, 고등학생) 설문지를 조사하고, 원패널의 형제자매 중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초등용 설문지를 조사한다.

29)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의 전체 스페셜 모듈은 부록 참조.

표 III-1 KCYPS 2018 제4차년도 아동·청소년 조사 영역 및 항목

●: 포함, ○: 포함 안 됨, ◐: 부분 포함

모듈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초등	중등
	대	중	소			
기본	개 인 발 달	생활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취침/기상)과 질, 부모님 대화 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	●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	●
			학업태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	●
		진로	진로계획	장래희망 교육수준, 장래직업 결정여부	○	●
			진로관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	●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	○	●
		사회/정서/ 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	●
			행복	행복감	●	●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	●
			정서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	●
			협동의식	협동심	●	●
			창의성	창의적 성격	○	●
			끈기	그릿(Grit)	●	●
		비행	비행Ⅰ	현실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	●
			비행Ⅱ	사이버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	●
		신체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	●
			신체	키, 몸무게, 몸정/초경 시작 시기	◐	●
	발 달 환 경	매체	스마트폰	사용여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	●	●
		활동/문화 환경	청소년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	●
			동아리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	●
			팬덤 활동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팬덤 활동 빈도	○	●
		학교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	●
			친구	친구관계	●	●
			교사	교사관계	●	●
		가정	부모관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	●
			형제자매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는 시간	●	●
			양육태도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	●
스페셜 모듈	정서인식 역량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	●

보호자용 기본 모듈은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과 보호자 개인 2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며, 독립영역인 배경변인 있다.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대영역에는 가정, 교육의 2개의 중영역, 보호자 개인 대영역에는 사회/정서/역량, 매체, 신체의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배경변인 영역은 패널들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이 목적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 스페셜 모듈의 구성은 아동·청소년용의 구성과 동일하다.

표 III-2 KCYPS 2018 제4차년도 보호자 조사 영역 및 항목

모듈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대	중	소	
기본 모듈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가정	구성원	가구 구성원
			구성원 역할	조사대상(자녀)에 대한 역할별 구성원
			보호자 관점	조사대상(자녀)의 학업성취 정도, 학교 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희망 교육 수준에 대한 의견
			자녀관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주말)
		교육	사교육	조사대상(자녀)의 사교육 유무, 사교육 받은/받지 않은 이유, 월평균 교육비
	보호자 개인	사회 /정서 /역량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	행복감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창의성	창의적 성격
			끈기	그릿(Grit)
		매체	스마트폰	사용여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
		신체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신체	키, 몸무게
	배경변인			출생지(자녀와 보호자), 최종학력, 근로여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의 경제수준
스페셜 모듈	정서인식 역량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2. 조사 준비³⁰⁾

1) 실사 수행기관 선정

KCYPS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 구축을 주목적으로 한다. 패널조사의 특성 상 동일한 표본을 장기간 반복하는 추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4차년도는 원패널의 학급 변화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될 수 있고 또한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의 실사 업체 선정은 동년 3월에 외부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안내를 시점으로 내부 위탁사업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고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하여 4월 22일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선정된 업체는 제1기 KYPS 2003과 제2기 KCYPS 2010, 제3기 KCYPS 2018 1~3차년도 조사를 수행하였던 칸타 퍼블릭(KANTA PUBLIC)이다.



그림 III-1 실사 수행기관 선정 절차

30)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89-98)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2) 실사 준비 과정

(1) TAPI 프로그램의 구축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는 이전 조사 방식을 준용하여 TAPI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TAPI 상에서 설문지 프로그래밍과 실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6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TAPI 시스템 구축과정은 일차적으로 설문지를 프로그래밍 한 후 실사팀과 연구진이 설문 문항 오타자 확인 등 오류들을 점검하고 문항 간의 로직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문 방식을 수정한 후 파일럿 테스트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TAPI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였다.

TAPI 프로그램의 특별한 기능으로는 성별, 생년/월, 학력, 가구 소득 등 배경변인처럼 종단 데이터인 경우, TAPI 화면에 3차년도 종단 응답데이터를 함께 제시하여 조사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조사항목에서 모두 같은 값을 응답할 경우 무성의한 응답값이 아닌지 팝업창으로 확인해야 다음 조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4차년도 조사는 원패널 대상자의 학교급이 변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주소를 시도, 시군구 순으로 입력하면 정확한 학교 범위를 지역 내 가나다 순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2) 실사 수행조직 구성

실사 수행조직은 기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를 담당해 왔던 연구 분석팀과 함께 지방 실사를 포함한 실사운영팀과 전산운영팀, DATA처리팀 모두 기존 참여인력들을 배치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III-3 실사 수행조직 구성 및 주요 역할

(3) 면접원 선발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에 참여하는 면접원은 총 144명이다. 면접원의 필수인력 128명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조사가 어려워질 것을 감안하여 16명의 예비인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면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 원칙은 원패널과의 라포(rapport) 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3차년도 조사와 대비해 동일한 면접원을 배정하였다. 다만, 이전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조사대상자 불만제기 등 문제를 유발한 대상자는 제외시켰고, 대체 인력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경험 여부와 가구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TAPI 활용이 가능한 자로 선발하

여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이러한 면접원의 전문성과 정확성은 조사 결과의 비표본오차를 줄이는데 큰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사 사무실	관할지역	패널 수	수퍼바이저 수	4차 투입 면접원 수			※과거 참여 면접원 수		
				필수	예비	전체	3차	2차	1차
서울	서울/인천/경기	2,474set	4	56	8	64	64	56	38
부산	부산/울산/경남	743set	2	22	2	24	24	22	19
대구	대구/경북	494set	2	12	2	14	14	12	11
광주	광주/전남/전북	540set	2	14	2	16	16	14	14
대전	대전/충남/충북	686set	2	16	2	18	18	16	12
제주/강원	제주/강원(협업)	260set	2	8	0	8	8	8	8
계		5,197set	14	128	16	144	144	128	102

그림 III-4 지역별 면접원 운영 현황

(4) 면접원 교육

실사에 투입되는 면접원들은 본 조사와 유사한 다수의 패널조사들을 경험한 대상자들로 구성하였다. 조사수행기관이 주최하는 면접원 교육은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론 교육, 설문 교육, TAPI 교육,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교육 등 4단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제4차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고자 면접원 자가진단시스템 관리를 통해 방역 안전 수칙을 더욱 강화하였고,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일회용장갑 등 안전용품들도 면접원들에게 함께 제공하였다.

다만, 각 지역별 면접원 교육은 7월 중순 경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전면 온라인 진행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면접원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과 절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면접원 교육 일정

조사 지역	일정	교육방법
대구/경북	7/20 (화) 13시	온라인 화상 교육
부산/울산/경남	7/21 (수) 13시	
서울/경기/인천	7/23 (금) 13시	
광주/전북/전남	7/26 (월) 14시	
대전/세종/충북/충남	7/27 (화) 14시	
강원/제주	7/28 (수) 13시	

STEP 01 조사 목적/개요 등 이론 교육

- 조사 소개 및 목적
- 조사 주관기관 소개
- 패널 구축 과정 소개
- 본 조사 진행 절차 및 조사 방법



STEP 02 설문내용 및 지침서 등 설문 교육

- 패널 조사의 구성 소개(패널+보호자+형제자매 조사)
- 패널 컨택 방법 안내
- 패널 설문내용 교육
- 무응답, 응답 거부 문항 등에 대한 처리 방법
- 조사된 내용 검증방법과 주의점



STEP 03 TAPI 교육

- TAPI 시스템 및 설문 입력 교육
- TAPI 사용법 위주로 조사원들과 함께 동일하게 진행해보면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
- TAPI 관리 방법 및 현장 검증에 대한 교육 실시
- 수퍼바이저, A/S, 에디터, 전산연구원 모두 교육에 참여해 전 과정 동일하게 숙지

STEP 04 개인정보보호 원칙 교육

- 패널조사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음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통계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 설명
- 개인정보보호 약속 안내문 상시 지참 설명
- 조사가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조사원 모두에게 서명 받음



그림 III-5 면접원 교육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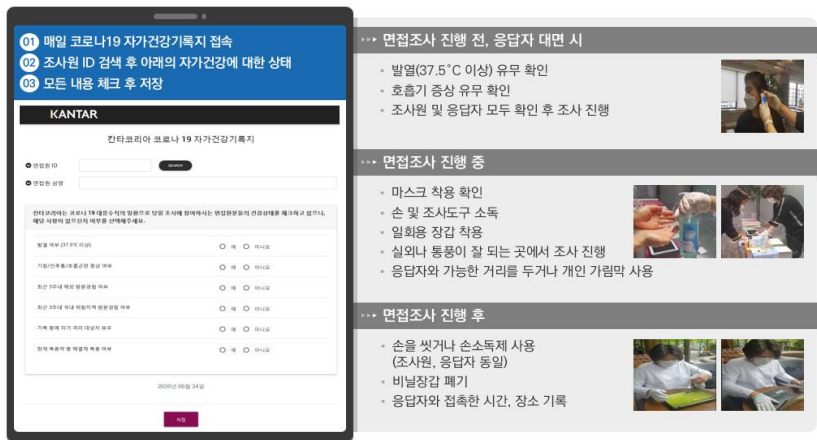


그림 III-6 코로나19 안전수칙의 면접원 자가진단시스템

(5) 가구 방문 조사

조사 대상은 KCYPS 2018 제2~3차년도 조사와 같이 본조사의 원패널과 보호자, 그리고 각 코호트 중 형제자매 1,000명씩이며, 조사대상자 모두 TAPI를 활용한 가구방문 조사로 진행하였다. 면접원은 원패널 가구와 개별 사전연락을 통하여 약속을 정하고 한 팀으로 구성된 면접원 2명이 정해진 시간에 대상 가가로 방문³¹⁾하였다. 가구를 방문한 면접원은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패널조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시작하고, 원패널과 원패널의 보호자를 분리하여 설문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답례품 제공과 함께 내년 조사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원패널과 보호자 조사가 종료되면 뒤이어 원패널의 형제자매 조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가구 방문 조사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31)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모든 면접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였고, 대면 면접조사 시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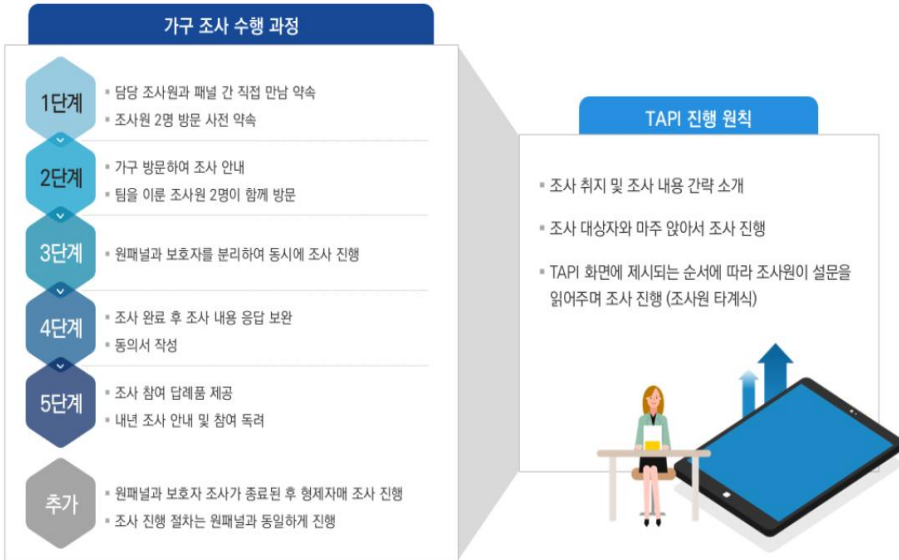


그림 III-7 단계별 가구 방문 조사 수행 과정

(6) 실사 추진일정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는 동년 4월에 실사 수행기관 선정 이후로부터 설문문항 수정 및 검토, TAPI 개발, 면접원 선발, 조사도구 준비 등 패널조사 사전준비 단계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실사를 진행하였다. 2021년 실사 수행의 전체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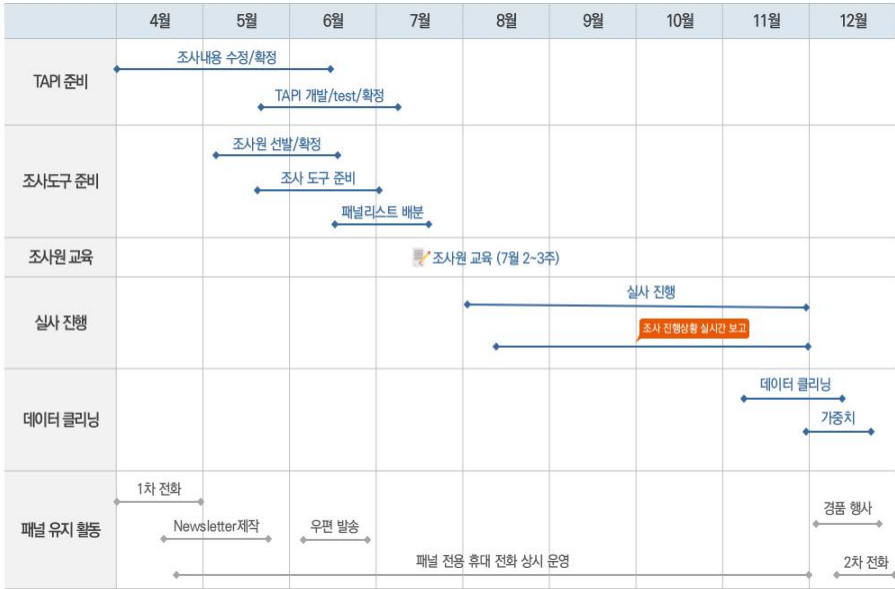


그림 III-8 실사 추진일정

(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및 통계작성 변경승인

KCYPS 2018 제4차년도 실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승인 심의와 통계청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를 위해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의 조사대상자, 조사영역 및 항목 (기본 모듈, 스페셜 모듈), 조사방법(TAPI)을 확정된 후 IRB 승인 신청과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 7월 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로부터 승인(202106-HR-고유-011) 통보를 받았고, 2021년 7월 23일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로부터 변경승인(승인번호: 제402002호) 통보를 받았다. IRB 승인과 통계작성 변경승인 통보된 이후로 본조사 기간인 8월부터 실사를 진행하였다.

3. 실사 과정

KCYPS 2018 제3차년도 조사 결과 원패널 유지율은 92.3%로 나타났다. 2021년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면접원 조사 이해도 향상, 면접원과 패널 간의 유대관계 강화, 패널 안정화 등의 원패널 유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지만, 원패널의 학교급 변화와 코로나19 등 내부 및 외부의 부정적 요인도 상당하다.

1) 패널 유지 관리 방안

올해 제4차년도 조사에 들어서면서 패널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친숙도가 높아졌고, 면접원들이 원패널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이 원패널 유지율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제4차년도부터는 원패널의 학교급 변화와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의한 대면조사 거부감이 높아져 원패널 유지율 제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의 원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하여 몇 가지 패널 유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2회 이상의 정기 연락체계 구축이다. 이는 원패널 대상자들의 정보 변경 확인과 보호자의 조사 협조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경품 행사이다. 경품 행사는 조사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를 높여 향후 조사 참여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021년 경품행사는 제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3월에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먼저, 패널조사 실사팀에서 관리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경품행사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사전에 각 패널들에게 4자리로 만든 고유ID들을 발송하고, 경품행사 당일 패널조사 관계자 4명이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 각 자리수 추첨을 통해 1등~3등을 선발하였고, 행운상은 난수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경품은 1등 노트북(1명), 2등 태블릿PC(5명), 3등 상품권(20명), 행운상 모바일 상품권 2만원(100명)으로 시상하였다. 또한 경품

추첨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경품행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원 테이크 동영상 촬영으로 진행하였다. 추첨이 완료된 이후 경품행사 결과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공지하였고, 당첨된 패널 대상자에게는 개별 연락하여 제4차년도 조사 참여 독려와 함께 안내하였다.

2020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경품행사 당첨자 발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8월부터 진행예정인 2021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등 LG 노트북 (1명) 3903 성*재

2등 레노버 TAB M10 16GB (5명)

1855 김*연 3329 이*경
2472 강*윤 3803 동*준
3069 이*환

3등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20명)

161 강*더	1511 이*지	3363 이*섭	4481 여*아
227 김*해	1828 김*원	3599 이*진	4490 유*엽
788 이*진	2439 김*민	3835 김*하	4596 김*은
1163 박*희	2445 최*준	4084 김*은	4619 윤*인
1289 김*하	2744 송*석	4237 이*연	4688 장*늘

당첨자 선정 방법

01 고유 번호 추출
02 경품 추첨 행사
03 고유 번호 추첨

3월 4일 (목) 패널 대상자에게 고유 번호가 있는 경품 행사 안내 문자 발송

3월 11일 (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경품 추첨 행사 진행

각 차리수 4개의 박스 안에 0-9까지 숫자 공을 넣어 해당 차리수까지 당첨번호 추첨

※ 100000 차리수 5-4-3-2-1 순으로 번호 부여

이벤트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후 2주 이내로 수첨 신청을 위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드리고, 당첨기간 내 연락받지 않음
당첨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추첨 과정은 전담 인원으로 하며 전 과정을 별도로 녹화하였습니다.

* 경품 추첨 방식 및 당첨에 관련된 사항은 2020년 8월 17일과 2020년 8월 24일 KY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림 III-9 경품행사 결과 및 선정방법

셋째는 정보 변경 자진신고자 답례 제공이다. 패널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변경된 사실을 알려 주면 추적을 위한 노력과 비용 절감 등 원패널 유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넷째는 패널유지 관리를 위한 상시 접촉 활동이다. KCYPS 2018의 패널들과 전용 소통 창구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 관련 안내, 문의사항 즉각 답변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패널조사에 대한 인식 제고 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III-10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

다섯째는 면접원 인센티브 제도 운영이다. 면접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효과적 인 실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이다. 여섯째는 이탈 위험이 높은 패널 대상자 관리이다. 가구 접촉 횟수나 응답 태도, 보호자 협조도로 면접 과정을 평가하고, 그 외에도 전화 컨택 과정 평가, 기타 패널과의 컨택 과정을 평가하여 이탈 가능성이 높은 패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특별히 관리한다. 이러한 패널 관리 방안들을 마련하여 패널 유지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2) 거절자 대응 방안

그동안 KCYPS 2018 조사에서 조사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강력 거절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거절 사유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 거절 이유	대응 방안
그냥 귀찮아서/강력거절	→ • 컨택 최소화 •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일자 제공 • 조사 시간이 짧고, 1년에 딱 한번임을 안내하여 설득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 (학업에 방해가 됨)	→ •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일자 제공 • 응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 진행
사생활 노출 거부감 (직업, 학교명 등)	→ • 응답을 원하지 않는 문항은 무응답 하더라도, 조사 자체에는 참여하도록 안내
참여의무가 딱히 없어서	→ • 의무는 없지만, 도래를 대표하고 있다고 최대한 설득
코로나19, 학원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조사원과 만나고 싶지 않음	→ • 추후 패널의 시간에 맞춰서 조사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참여 독려
부모님의 반대	→ • 부모님 두분 중 한 분만 응답하면 된다고 설득 • 교육, 진로 관련 등 유용한 정보를 우편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 가능 안내
개인정보 제공에 민감하게 반응	→ • 응답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강조 •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연구목적 외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음을 강조

그림 III-11 예상되는 조사 거절 사유 및 대응 방안

4. 실사 관리

1) 실사 과정별 보고체계 구축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설계부터 최종 결과 보고까지 조사 수행업체와 단계별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간 및 월간 정기보고와 함께 수시보고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실사 진행과정을 관리하였다.

착수보고	- 조사진행 세부일정 명시 - 세부수행방법 보고 - 투입인력에 대한 보고 - 표본유지활동 계획 보고	
중간보고	- 조사진행 상황 총괄 - 지역별, 가구별 조사성공 표본수 - 원패널/보호자/형제자매 별 보고 - 거절 표본수 및 거절사유 정리 - 조사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보고 - 기타 협의 필요사항 보고	주간보고 1주일간의 진행상황 총괄 - 지역별, 가구별 조사성공 표본수 - 거절 등 특이사항 정리 - 조사진행과 관련된 기타 협의사항 - 매주 서면보고 월간보고 1개월간의 조사진행 상황 총괄 - 지역별, 가구별 조사성공 표본수 - 거절 가구 표본수 및 거절 사유 정리 - 조사원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 협의사항 정리
최종 결과 보고 (보고서 제출)	- TAPI개발 과정 - 조사원 교육 결과 - 실사 운영 - 조사원 투입현황 및 조사방법 - 지역별 실사 특징 - 조사진행방법 세부보고 - 조사진행 시 애로사항 - 패널 관리 - 데이터 품질 관리 -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내용 - 응답사례 및 답례품 제공 내역 - 조사후기 - 실사 진행 시 응답자 반응 - 성공적 조사를 위한 개선사항	
비정기 보고	-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 보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보고	

그림 Ⅲ-12 실사과정 단계별 보고

2) 실사 현장 참관

실사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으로 면접원이 진행하는 조사현장에 연구진이 직접 참관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사과정을 점검하여 비체계적오차를 최소화시키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현장 참관 중 문제 발생 시 해당 면접원은 사안에 따라 개별 추가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우수 면접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면접원이 담당했던 조사는 전량 재검증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였다.

표 Ⅲ-4 실사 현장 참관 일정

일시 및 시간	장소	참석자
10월 05일 17시 20분	패널 거주지 인근	중1패널, 어머니, 칸타 담당연구원 1명, 면접원 2명, NYPI 연구진 1명

3) 현장의견 조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대면접촉 기피도 심해지고 실사과정 중 조사 불응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여 면접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조사를 통해 조사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면접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고충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컨택 단계에서부터 거절하거나 가구 방문조차 힘들어진 환경 여건이었다. 또한, 제4차년도 조사는 원패널의 학교급이 변경되는 시기로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절 사유가 많아졌고, 연속적인 조사에 대한 피로감, 자퇴,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사를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설문 문항과 관련해서는 설문 문항이 길고 해마다 반복적인 내용이 불만이며, 설문 내용 중 부정적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요인 뿐만아니라 악화된 조사 환경 등에 따라 실제 패널조사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패널과의 신뢰감 확보, 패널 조사의 취지와 자긍심 강조, 방역수칙 준수 및 강화, 담당 면접원 책임제 등 여러 대응방안들을 모색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표 Ⅲ-5 현장의견 조사

구분	현장의견 조사
사전 컨택 시 어려움	· (서울, 인천, 경기) 컨택 후 자택 방문 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고, 사람이 있더라도 갑자기 조사를 거절(특히, 주말에 방문하면 아버지가 강력히 조사를 거절함) · (서울, 인천, 경기) 부모, 형제자매, 원패널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혹은 검사 중이어서 조사를 미루거나 외부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함 · (부산, 울산, 경남) 가구 방문 시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자 사전 동의 없이 아파트 출입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 · (대구, 경북) 조사를 거절하는 보호자를 전화로 설득하였지만 막상 방문 시에는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음 · (광주, 전북, 전남) 올해는 예전에 비해 조사가 어려움, 작년까지는 학교를

구분	현장의견 조사
	대표한다는 생각에 조사에 참여했으나 학교가 변화함에 따라 조사 설득력이 약해진 느낌임 · (광주, 전북, 전남)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면접을 꺼려하며 조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음 · (강원, 제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면접원과 만나기를 싫어함
조사거절 사유	· (서울, 인천, 경기) 중1 코호트(현재 고1)의 경우, 원패널 학생들이 학교진학, 공부 등을 이유로 보호자가 설문을 원해도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등 대면조사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음 · (서울, 인천, 경기) 작년 온라인조사 경험자는 대면조사는 거부하고, 온라인 조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음 · (대구, 경북) 올해는 조사 거절률이 눈에 띄게 높음 · (대구, 경북) 이전 조사부터 조사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패널들이 진학을 이유로 조사 거절을 많이 하고 있음 · (대구, 경북) 그 외 공부에 방해, 자퇴, 부모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 사유로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광주, 전북, 전남)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을 핑계로 조사를 거절하는 학부모가 많아 조사를 설득하는 중임 · (광주, 전북, 전남) 3년간 진행했으니 패널에서 삭제해 달라는 경우도 있음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전, 충청도는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 두달 가까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였으나 최근 3단계가 됨, 이러한 배경으로 타지역 비해 조사를 미루거나 조사를 꺼려하는 비율이 높음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학급의 변화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들이 많음 · (강원, 제주) 패널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원패널의 조사 거절이 많음
설문문항 반응	· (서울, 인천, 경기) 설문자체가 길어서 귀찮아 하는 경우도 있음 · (서울, 인천, 경기) 설문문항이 답변하기 민감한 문항 혹은 문항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 조사를 꺼려하는 원패널도 있음 · (대구, 경북) 설문내용이 길거나 해마다 반복적인 내용이 불만인 경우도 있음 · (강원, 제주) 설문내용이 아이들이 평소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이라 부정적, 극단적인 질문인 것 같아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될 것 같아 거절한다는 경우도 있음 · (강원, 제주) 정서인식역량 문항이 정신과 진단 같아 대답하기 싫다는 의견도 있음

4) 검증 및 제4차년도 실사 결과

본 조사 실사가 종료되면 모든 조사 참여자들에게 연락하여 감사 인사와 함께 응답한 내용들을 무작위로 검증하고, 조사 진행사항과 담당했던 면접원을 평가할 예정³²⁾이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실시할 KCYPS 2018의 제5차년도 조사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4차년도 실사 종료 이후 데이터 클리닝과 가중치 산출 작업 등을 거쳐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년도 실사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사업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32) 2022년 초에 진행할 예정.



제4장 데이터 활용·분석

- 1. 데이터 활용
- 2. 데이터 분석

1. 데이터 활용³⁴⁾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패널조사 결과물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계의 청소년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 고취,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쟁점 및 연구동향과 통계분석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2020년까지 총 9회에 걸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총 31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2021년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는 총 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IV-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회차	일시	장소	공동주최 학회	분과 및 논문 수
10회	2021. 11. 19(금) 10:00~17:00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아동·청소년 관련 16개 학회 참여	9주제 28편

33) 제IV장은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김성은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 작성하였음.

34)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113~126)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학술대회 개최의 주된 목적은 첫째, 패널조사 결과데이터를 관련 전문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분야의 연구성과물 증대와 패널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최 참여 학회의 확대와 더불어 연구계획서와 발표논문의 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연구원 차원에서 실시된 패널조사 결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새로운 분석방법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를 대상으로 먼저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공개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2021년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11월 19일(금),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학술대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V-2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요

구분	내용
• 행사명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일 시	2021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방 법	•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https://bit.ly/10th_Conference_on_KCYPs
•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최	아동·청소년 관련 총 16개 학회 공동주최
• 후 원	여성가족부

2021년도 제10회 학술대회 관련 추진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월에 학술대회 세부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여 개최 일시와 세부일정 등을 확정하였다. 2월에 아동과 청소년 관련 18개 학회를 대상으로 공동주최를 제의하였고, 총 16개 학회의 공동주최 참여가 확정되었다. 3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대학, 학회 등 120여 곳의 외부 연구기관에

학술대회 참여할 연구계획서 공모를 공지하고 4월 30일까지 연구계획서 접수를 진행하였다.

표 IV-3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추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 패널학술대회 개최 계획안 수립	계획 수립 →										
○ 학회 공동주최 제의 - 관련 16개 학회 공동주최 섭외 및 확정		학회 섭외 →									
○ 연구계획서 공모 및 접수 - 일정 : 3월 23일 ~ 4월 30일			1차 공모 접수 →								
○ 연구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보 - 일정 : 5월 8일 ~ 5월 22일					계획서 심사 및 통보 →	→					
○ 데이터활용 보안서약서 접수 안내 및 학술대회용 KCYPS 2018 데이터 발송 - 일정 : 5월 28일 ~					data 발송 →						
○ 최종 논문 접수 - 일정 : 6월 7일 ~ 9월 17일					최종 논문 작성→						
○ 학술대회 개최방안 확정 및 준비 - 방안 :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메타버스 학술대회 개최 준비						
○ 최종 논문 심사 및 결과 통보 - 일정 : 9월 24일 ~ 10월 8일									심사 →	결과 통보 →	
○ 토론회 등 섭외 및 학술대회 개최 - 일정 : 11월 19일(금)										학술대회 준비 및 개최	

4월 30일까지 진행된 연구계획서 공모 결과 총 83편(일반세션 39편, 대학원생 세션 44편)의 연구계획서가 접수되었다. 이후 5월 중에 연구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보와 함께 데이터활용 보안서약서 안내 및 접수, 2020년 조사결과 데이터를 발송하였고, 6월에는 논문 작성양식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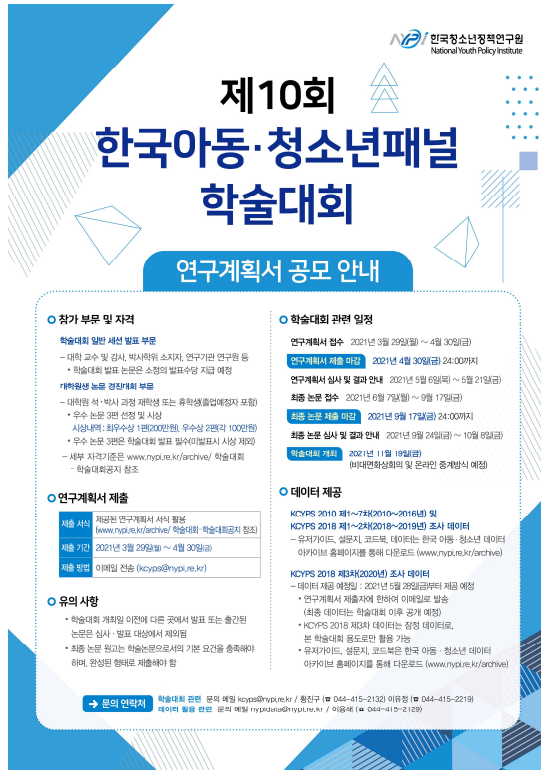


그림 IV-1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공모 포스터

8월부터 개최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9월에 최종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방법과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종 논문 접수는 9월 17일(금)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48편(일반세션 25편, 대학원세션 23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연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발표논문으로 일반세션 25편과 대학원생 세션 3편, 포스터세션 6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10월 말에는 세션별 발표 논문의 편성, 토론자 섭외, 사회자 섭외 등을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알리는 포스터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METaverse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0th Conference on 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10:00-17:00

개최방식 /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 사전등록을 하시고 메타버스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드립니다.(사전등록 필수)

※ 사전 등록 : 2021년 11월 8일(월)부터 17일(수)까지
연구원 홈페이지 (www.nypi.re.kr) 알람 → 행사정보
→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등록 가능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 대한가정학회, 대한범죄학회, 미래돌아는청소년학회,
주최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건강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후원 / 여성가족부

일정 및 주제

- 개최 및 시상식 : 10:00-10:30 (Room A)
- 논문발표

Session	Room	Room A	Room B	Room C
Session 1 (10:30-12:00)		활동	부모/양육	미디어/스마트폰
Poster Session (13:00-13:30)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 (Poster Room)		
Session 2 (13:30-15:00)		진로	심리/발달1	학업/학교1
Session 3 (15:10-17:00)		역량	심리/발달2	학업/학교2

※ 사전등록, 진행일정 및 자료집 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nypire.kr) → 자료 → 학술행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IV-2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포스터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최근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술대회 개최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하였다. 즉, 온라인 상에 가상의 학술 대회장을 마련하여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청중 등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아바타

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는 단순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이용한 학술대회의 여러 단점들 해결³⁵⁾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술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전용 메타버스 공간(https://bit.ly/10th_Conference_on_KCYPS)을 개설하여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IV-3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공간 구성도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메타버스 공간은 안내와 방명록 작성을 위한 공간, 3개의 학술대회 발표 행사장, 포스터 전시공간, 자료집을 다운로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제한없이 가상의 학술대회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실제 현실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35)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과는 달리 메타버스를 이용함으로써 학술대회 행사 진행 중 참가자의 세션 간 자유로운 이동, 참가자 간 상호 의사소통, 포스터 전시 및 발표, 방명록 작성, 학술대회 관련 자료 내려받기, 학술대회 상세 일정 공유, 패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원 홍보물 게시 등이 가능함.

방식의 회의와 토론, 만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전체 진행은 먼저 개회식에서의 공동주최 학회장 축사나 각종 인사의 경우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상영하거나 직접 메타버스 상으로 축사나 인사를 진행하였다.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의 경우 3개의 행사장에서 현실공간과 동일한 진행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학술대회 논문집을 자유롭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자료 다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KCYPSTE이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구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대학원생 (최)우수논문 수상작들을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일반 세션에 참가하여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포스터 세션은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여 행사 기간내에 상시적으로 포스터를 전시하는 동시에 특정 시간을 포스터 세션 발표시간으로 배정하였다.

2021년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주제	논문	사회
1주제 활동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발표 : 김수진(한국교육개발원), 이윤희(한국교육개발원) ■ 토론 : 김은애(한국교육개발원)	최창욱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그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구조분석 ■ 발표 : 조민규(경북대학교), 김춘경(경북대학교) ■ 토론 :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관계 연구 ■ 발표 : 한수정(충북대학교) ■ 토론 : 민경훈(한국교원대학교)	

주제	논문	사회
2주제 부모/양육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에 따른 차이 ■ 발표 : 임효진(서울교육대학교), 이소라(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토론 : 박용환(충남대학교)	김민 (순천향대학교)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 ■ 발표 : 이화초(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김세원(카톨릭관동대학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그릿의 매개효과 ■ 발표 : 이원례(계명대학교), 한천우(계명대학교) ■ 토론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주제 미디어/ 스마트폰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 발표 : 김경민(고려대학교), 최정원(고려대학교), 송지은(고려대학교) ■ 토론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용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사교육 참여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2019년과 2020년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 전하람(전남대학교), 이현주(전남대학교), 김가영(전남대학교) ■ 토론 : 황영식(충남대학교)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 분석 ■ 발표 : 권미나(전북대학교), 이진숙(전북대학교) ■ 토론 : 주동범(부경대학교)	
4주제 진로	보호자의 배경 변인이 학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발표 : 김수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토론 : 박동현(열린사이버대학교)	김진호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중학생 진로정체감 변화 추이 탐색을 위한 문항반응이론의 종단적 확장 ■ 발표 : 박찬호(계명대학교), 서공주(대구미래교육연구원) ■ 토론 :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원생 우수논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자녀 진로정체감의 관계 ■ 발표 : 이영광(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하재영(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주제	논문	사회
5주제 심리/발달 1	청소년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 비행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 발표 : 성정혜(경북대학교), 김춘경(경북대학교) ■ 토론 : 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의 매개·조절 효과 분석 ■ 발표 : 박봉환(가톨릭관동대학교) ■ 토론 : 이미애(대한한의대학교)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 건강행동, 심리정서, 사회환경 ■ 발표 : 노미화(사과나무의료재단), 신재은(사과나무의료재단), 황인성(덕스메디기업부설연구소) ■ 토론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주제 학업/학교 1	중학생들의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과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 ■ 발표 : 하아영(경상국립대학교), 조한익(경상국립대학교), ■ 토론 : 이은주(경북대학교)	송성민 (강원대학교)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종단적 분석 ■ 발표 : 권순달(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이현주(배재대학교)	
	잠재전이분석을 통한 중학생의 학년별 학업 무기력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 ■ 발표 : 노연경(서울신학대학교), 송주연(한국교원대학교), 우연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토론 : 정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7주제 역량	청소년의 그릿 종단적 변화 양상 및 영향 변인 탐색 ■ 발표 : 정혜원(충남대학교), 김아름(충남대학교), 백예은(충남대학교) ■ 토론 : 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성렬 (백석대학교)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장은지(연세대학교), 김민석(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토론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원생 우수논문】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강보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	논문	사회
8주제 심리/발달 2	청소년의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 발표 : 정세영(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김지영(경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김은지(부산대학교 BK교육의사회적 책임연구단) ■ 토론 : 강승희(부경대학교)	최인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 열의에 미치는 교사 효과 ■ 발표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이동호(서울서래초등학교), 현유정(서울신월초등학교) ■ 토론 : 박성호(한국교육개발원)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친구관계, 삶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 발표 : 임선아(전북대학교) ■ 토론 : 도승이(성균관대학교)	
9주제 학업/학교 2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 중단분석 ■ 발표 : 광수란(고구려대학교) ■ 토론 : 이기종(국민대학교)	오승근 (명지전문 대학교)
	규제화 MIMIC 모형을 통한 학업 무기력 예측 변수 탐색 ■ 발표 : 박빛나(부여초등학교), 유진은(한국교원대학교), ■ 토론 : 함은혜(공주대학교)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의 중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이지수(서울시립대학교), 안현선(고려대학교) ■ 토론 :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학원생 최우수논문】 지지하는 부모와 강요하는 부모가 중학생의 학업태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중단 연구 ■ 발표 : 박준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이희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포스터 발표	부모의 행복은 어떻게 자녀의 행복과 연결되는가?: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 발표 : 김도희(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모의 스마트폰 의존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자녀의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집단 분석 ■ 발표 : 김다혁(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두예슬(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고은(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김솔(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주제	논문	사회
	비행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유형화와 종단적 전이 분석 ■ 발표 : 홍세은(경찰대학 범죄학과 박사과정)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및 주의집중 문제에 관한 잠재계층분석: 요인혼합모형의 적용 ■ 발표 : 김연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오현지(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안녕감 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 발표 : 강혜린(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연정(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KCYPs) 활용 연구 동향 탐색 ■ 발표 : 김지윤(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민동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2)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2011년부터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과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의 경우 원외의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학술대회에서 시상 및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서 총 32편의 논문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학술대회에서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3편의 논문들은 주제와 관련된 일반세션에 편성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심사를 통과한 6편의 포스터 발표 연구팀에게는 메타버스 학술대회장에 별도의 분과와 공간을 구성하여 발표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대학원생 발표 논문 세부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V-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 발표 시상 내역

연도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제10회 (2021)	최우수상	지지는 부모와 강요하는 부모가 중학생의 학업태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종단 연구	박준상 외 1 (서울대학교)
	우수상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보은 (부산대학교)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자녀 진로 정체감의 관계	이영광 외 1 (서울대학교)
	포스터 발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강혜린 외 1 (서울대학교)
		부모의 행복은 어떻게 자녀의 행복과 연결되는가?: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김도희 (전남대학교)
		모의 스마트폰 의존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자녀의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집단 분석	김다혁 외 3인 (고려대학교)
		비행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유형화와 종단적 전이 분석	홍세은 (경찰대학)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및 주의집중 문제에 관한 잠재계층분석: 요인혼합모형의 적용	김연후 외 1 (서울대학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활용 연구 동향 탐색	김지윤 외 1 (고려대학교)

2. 데이터 분석³⁶⁾

KCYPs 데이터는 유저가이드, 조사표, 코드북과 함께 조사가 진행된 다음해에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내부 연구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분석보고서와 NYPI Bluenote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KCYPs 2018 조사의 대외 확산을 위해 매년 조사 내용, 결과 등을 요약·정리하는 NYPI Bluenote통계는 2021년 12월에

36)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127-131)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발간하였다. 데이터분석보고서는 KCYPS의 주요 조사결과를 주제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종을 발간하였고, 2021년인 올해에도 1종을 발간하였다. 올해 데이터분석보고서에서는 2020년 스페셜모듈로 조사된 청소년의 재난안전 의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주제는 청소년 재난안전 의식 경향 및 특성 탐색이다. 데이터 분석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일상생활과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외부환경과 청소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속되고 있는 불안상황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물론 불안요소가 완화된 이후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로서도 필요하다. 개별 청소년에 대한 개인 차원과 전반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 지원방안 개발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대처행동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교육 및 홍보 방안 도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안’에 관한 연구는 우울, 공경성과 같이 정서·행동문제의 한 가지로 다뤄지거나(김소연, 전종철, 2016; 이혜진, 2017; 이유현 외, 2018), 사회 불안(social anxiety)과 관련 맥락변인과의 관계에 집중한 연구(도현정, 김정민, 2014; 정문경, 오은주, 2015; 김경숙, 김완일, 2015; 임정하 외, 2017; 최은경, 임정하, 2018)가 주로 진행되어왔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또는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두려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chlenker and Leary, 1982).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도 최근 전염병, 지진 등 그간 비교적 ‘안전’감을 느끼던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고, 불안감도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재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대처행동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패널데이터 분석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어왔다. 자료의 특성과 구조를 반영하는 새로운 연구모형의 제안과 이를 통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 IRTree(Item Responsible Theory-tree)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개인의 극단반응(응답) 경향을 수치로 제시하는데, 순서화된 범주변인을 이분화³⁷⁾하지 않고 각 범주별로 응답경향을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Ilgun Dibek(2019)의 연구에서는 TIMSS 2015 자료를 통하여 피험자의 응답경향과 그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는데 활용되었고, Khorramdel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IRTree모형과 혼합모형(Mixture-Model)을 연계하여 잠재집단(latent class)별 응답경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모형은 아직 국내 연구사례 및 성취도 검사 이외의 자료에 적용된 예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불안 측정 문항의 경우도 ‘불안하다’, ‘안전하다’ 외에도 ‘매우 불안하다’와 ‘매우 안전하다’와 더 강한 정도의 응답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는 불안한 마음의 정도 차이를 분명하게 의미하는 서로 다른 응답이다. 즉 두 응답은 구분이 필요한 심리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화하지 않은 원 자료 상태에서, 개인별 극단성(매우 안전하다, 매우 불안하다)의 추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자료가 성장발달과 관련한 변인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개별 극단 경향성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청소년 변인을 탐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 극단성과 관련 있는 청소년 특성을 규명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하여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신체활동과 재난 불안에 대한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37) 이분화 예: ‘매우 필요함’,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하지 않음’의 4점 척도 문항을 긍정응답과 부정응답별로 합산하여 ‘필요’와 ‘필요하지 않음’과 같이 2개 분류로 코딩.

분석방법으로는 두 해 결과비교를 위한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극단응답경향 분석에는 문항반응나무이론을 적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자료 초4패널과 중1패널의 2019년, 2020년 자료이며, 결과해석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1년, 2012년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생활은 독서 및 신체활동, 친구와 노는 시간 감소, 스마트폰·컴퓨터 이용시간 증가 등 여가시간 활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학업에 보내는 시간과 학업 방법 등 학업관련 변화에는 소득수준별 차이가 존재하였고 불안감 등의 일부 심리 특성에도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 일탈 및 비행행동의 감소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 강화, 취약계층대상 비대면 학습지원의 성과 확인 및 확산, 학력격차·학습결손 문제에 대한 돌봄 격차로의 포괄적 접근 및 관점의 전환, 청소년 비행 및 일탈행동 감소에 대한 심층 후속 연구 등을 제안³⁸⁾하였다.

38)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보고서의 별편으로 발간되는 데이터분석보고서 참조.

○———— 제5장 KCYPS 2010 유지조사

- 1.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 2.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4차 유지조사 주요 결과
- 3.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2021년)

1.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⁴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시기인 청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과 관련된 장기적 차원의 다양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크게 ‘KCYPs 2010’(2010년~2016년까지 7년 조사), ‘KCYPs 2018’(2018년~)로 구분된다. 이 중 KCYPs 2010의 조사대상은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인 3개 코호트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경우 조사가 종료된 2016년에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20세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2016년 조사가 종료된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을 성인기까지 패널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지조사를 2017년부터 진행하여 왔다. KCYPs 2010 중1 코호트를 유지조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조사가 종료되었던 2016년 당시 대학교 1학년 나이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KCYPs 2010 조사가 종료된 2016년

39) 제V장은 황진구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40)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135-136)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의 이듬해인 2017년부터 당시 대학교 2학년 연령에 해당하는 KCYPS 2010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여 왔다. 이후 이들이 성인기에 진입한 후에 후속 연구나 조사개발 등을 통해 이들의 청소년기에 실시된 조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및 정책적 개입들이 성인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2020년 12월 제4차 유지조사(24세)가 진행되었다. 다만,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는 예산규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인기로 접어들 때까지 접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2.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4차 유지조사 주요 결과⁴¹⁾

1) 제4차 유지조사(2020년) 유지율

2020년 12월에 실시된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4차 유지조사’는 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째, ‘KCYPS 2010’의 중1 코호트 원패널 2,351명 전수를 대상으로 패널과의 문자 등을 통해 접촉(연락)을 시도하여 접촉 및 연락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둘째, 접촉(연락)이 성공한 패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를 통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4차) 유지조사에서는 전체 원패널 2,351명 중 1,619명(68.9%)과의 접촉 및 연락에 성공하였으며, 패널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732명의 경우 강력거절(174명, 747%), 번호 오류(33명, 1.4%), 전화 비수신(405명, 17.2%), 대상자 아님(71명, 3.0%), 추적 불가(49명, 2.1%)로 나타났다.

41)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136-142)의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였음.

표 V-1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1~4차) 패널 접촉(연락) 유지율

항목		2020년(4차)		2019년(3차)		2018년(2차)		2017년(1차)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체 원패널 (KCYPS 2010 중1코호트)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①KCYPS 유지조사 패널 접촉 성공		1,619	68.9	1,591	67.7	1,833	78.0	1,623	69.0
②KCYPS 유지조사 패널 접촉 불가		732	31.1	760	32.3	518	22.0	728	31.0
패널 접촉 불가 사유	②-1 강력거절 (기존 사례 포함)	174	7.4	158	6.7	124	5.3	124	5.3
	②-2 번호 오류 (결번 등)	33	1.4	98	4.2	57	2.4	147	6.3
	②-3 비수신 (통화연결 안됨 등)	405	17.2	433	18.4	299	12.7	447	19.0
	②-4 대상자 아님 (대상자 아님)	71	3.0	37	1.6	18	0.8	10	0.4
	②-5 추적불가 (기존 사례 포함)	49	2.1	34	1.4	20	0.9	0	0.0

접촉 및 연락에 성공한 패널(1,6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접촉 패널 조사에는 1,42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접촉과 연락에 성공한 패널의 87.7%, 전체 원패널 2,351명의 60.4%에 해당한다.

1~2차 조사에 비해 3차~4차 접촉유지 패널의 조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1~2차 접촉유지 패널조사는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지만, 제3차 접촉유지 패널 조사부터는 온라인 웹조사로 변경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표 V-2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1~4차) 접촉 패널 조사 성공률

항목		2020년(4차)		2019년(3차)		2018년(2차)		2017년(1차)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체 원패널 (KCYPS 2010 중1코호트)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①KCYPS 패널 유지조사 접촉 패널 조사 성공		1,420	60.4	1,365	58.1	1,728	73.5	1,559	66.3
②KCYPS 유지조사 접촉 패널 조사 실패		931	39.6	986	41.9	623	26.5	792	33.7
조사 실패 이유	②-1 KCYPS 유지조사 패널 접촉 성공 중 미참여	199	8.5	226	9.6	105	4.5	64*	2.7*
	②-2 KCYPS 유지조사 패널 접촉 불가	732	31.1	760	32.3	518	22.0	728	31.0

* 미참여자 중 군입대(9명) 포함.

KCYPS 2010 중1 코호트 원패널의 제4차 유지조사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였다. 첫째, 온라인조사 링크가 포함된 조사 참여 안내 문자(LMS)를 6회에 걸쳐 패널 및 패널 보호자의 유효한 번호로 2~3일 간격으로 번갈아 발송하였다. 둘째, 패널과 패널 보호자에게 유무선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셋째, 응답사례품인 음료쿠폰을 조사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여 조사 참여율과 관심을 제고하였다. 넷째, 이메일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이후 조사에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조사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유지조사 주요 결과

KCYPS 2010 제4차 유지조사(2020년)의 문항별 조사 결과를 1~3차 유지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상황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제1차 유지조사에서는 77.7%,⁴²⁾ → 제2차⁴³⁾ 69.8%⁴⁴⁾ → 제3차 59.6% → 제4차에서는 45.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1차 유지조사에서는 11.5%,⁴⁵⁾ → 제2차 22.6%,⁴⁶⁾ → 제3차 30.2% → 제4차 36.9%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제1차 유지조사에서는 10.8% → 제2차 7.6% → 제3차 13.4% → 제4차 17.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된 신분 중 대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제1차 77.7% → 제4차 45.9%)하고 있고, 직장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제1차 11.5% → 제4차 36.9%)하였고, 특히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도 2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제2차 7.6% → 제3차 13.4% → 제4차 17.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43) 제2차 유지조사부터는 제1차 유지조사의 문항 중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를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은 학생)’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로 구분하여 조사함.

44)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45) ‘일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있다’의 응답.

46)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의 응답 합계.

표 V-3 현재의 신분 상황

조사 차수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 지 않고 있다	학교에 다니면 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 은 학생)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 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	일을 하고 있 고, 학교는 다 니지 않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 지 않고 있다
제1차	73.4%	4.3%	0.0%	11.5%	10.8%
제2차	41.6%	28.2%	0.8%	21.8%	7.6%
제3차	42.3%	14.1%	3.2%	27.0%	13.4%
제4차	33.9%	12.0%	3.9%	33.0%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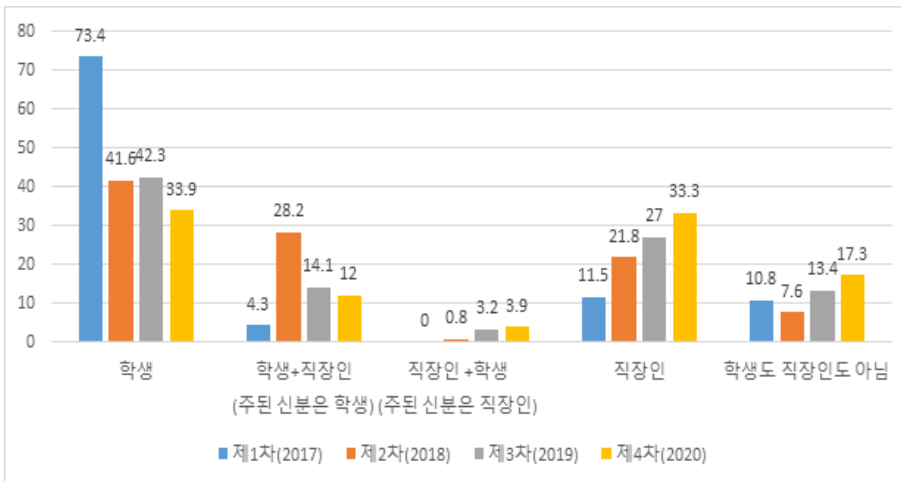


그림 V-1 현재의 신분 상황

(2) 청소년기 만족도

패널이 현재 느끼고 있는 본인의 청소년기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1차 27.4% → 제2차 22.6% → 제3차 26.1% → 제4차에서는 25.0%로 나타났다.

표 V-4 청소년기 만족도

조사 차수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제1차	1.1%	4.5%	27.4%	51.7%	15.4%
제2차	1.7%	6.7%	22.6%	47.2%	21.7%
제3차	2.2%	14.0%	26.1%	43.2%	14.4%
제4차	1.9%	14.8%	25.0%	45.4%	12.8%

‘만족스럽지 않다’(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비율은 제1차 5.6% → 제2차 8.4% → 제3차 16.2%에서 제4차 조사결과 16.7%로 나타나 제1차 조사대비 1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족스러웠다’(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비율은 제1차 67.1% → 제2차 → 68.9% → 제3차 57.6% → 제4차 58.2%로 나타나 제1차 유지조사 대비 8.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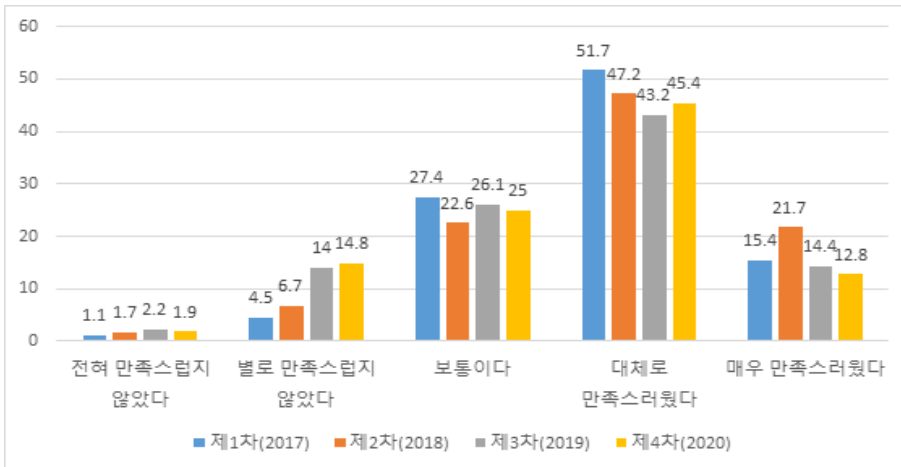


그림 V-2 청소년기 만족도

(3) 현재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제1차 조사에서 31.3% → 제2차 30.9% → 제3차 35.5% → 제4차 조사에서는 33.2%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1차 조사에서 6.1% → 제2차 6.9% → 제3차 11.9에서 제4차 조사결과에서는 14.9%로 높아졌다.

표 V-5 현재 삶 만족도

조사 차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제1차	0.8%	5.3%	31.3%	49.2%	13.5%
제2차	1.2%	5.7%	30.9%	43.2%	19.1%
제3차	2.2%	9.7%	35.5%	41.4%	11.1%
제4차	1.5%	13.4%	33.2%	41.4%	10.4%

‘만족한다’(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차 조사 62.7%, → 제2차 62.3% → 제3차 52.5에서 제4차 조사에서는 51.8%로 응답했다. 현재 삶의 만족도 또한 청소년기 만족도와 유사하게 보통을 기준으로 불만족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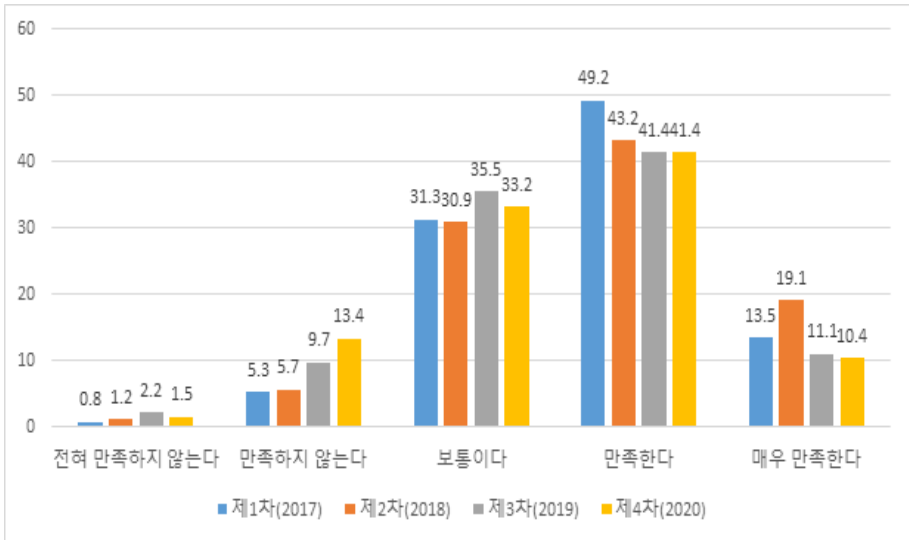


그림 V-3 현재 삶 만족도

(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인식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제1차 유지조사와 제2차 유지조사의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제3차 유지조사 이후부터는 순위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제1차와 제2차 유지조사에서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응답율이 각각 18.1%, 24.9%로 가장 높았지만, 제3차와 4차 유지조사에서는 ‘재산/경제력’이 35.6%, 27.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자아성취’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1차 조사에서는 14.5%, 제2차 12.8%, 제3차 조사 6.6%에서 제4차 조사에서는 6.0%로 감소하였다. 또한 ‘꿈/목표의식’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1차 조사 결과 12.2%에서 제2차 조사 결과 8.9%로 감소하였고 제3차 유지조사 0.0%, 제4차 조사에서는 8.8%로 조사되었다.

표 V-6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건

조사 차수	화목한 가정	재산/ 경제력	자아 성취	건강	감사/ 긍정적 태도	친구/ 대인 관계	꿈/ 목표 의식	직장/ 직업	종교 생활	연인
제1차	18.1%	16.4%	14.5%	11.3%	12.1%	12.0%	12.2%	1.8%	1.1%	0.6%
제2차	24.9%	18.3%	12.8%	12.4%	10.3%	9.1%	8.9%	1.8%	0.9%	0.6%
제3차	23.8%	35.6%	6.6%	11.6%	10.4%	8.5%	0.0%	1.6%	0.7%	1.3%
제4차	25.6%	27.2%	6.0%	13.3%	9.8%	6.0%	8.8%	2.2%	0.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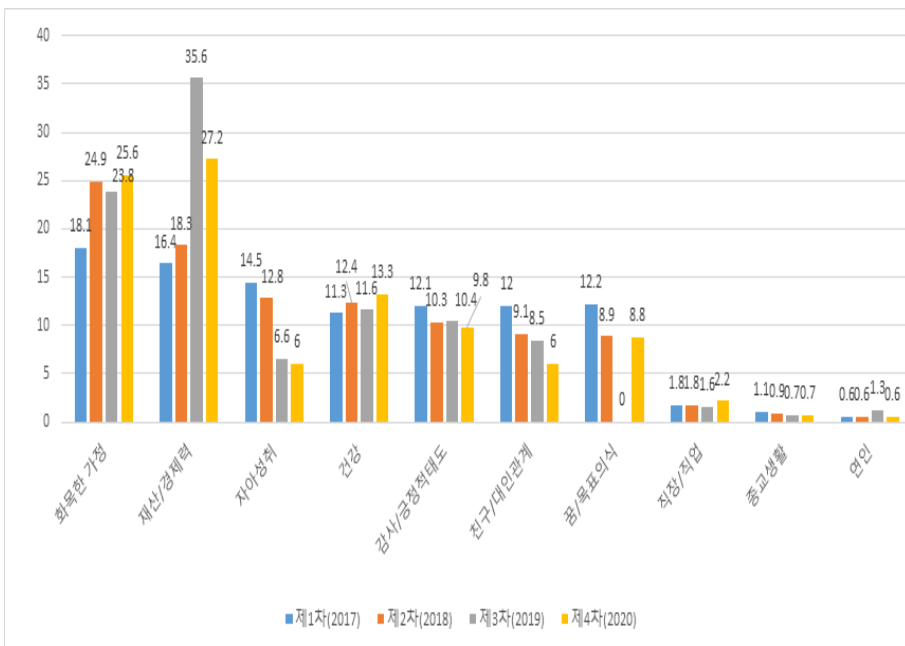


그림 V-4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건

(5) 청소년기(고3)의 진로계획과 현재 상황 비교

유지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고3(만 18세)이었던 시기(2015년 제6차 본조사)에 조사한 장래의 진로 계획(대학 진학, 취업, 기타/미정)과 현재 상황을 교차분석한 결과, 대학 진학을 희망했던 표본의 80% 이상은 학생(직업 병행자 포함)이었다가 (만 19세 83.7% → 만 20세 89.3% → 만 21세 80.3%) 점차 취업으로 전환하는 경향(만 22세 66.5% → 만 23세 54.9%)을 보였다.

표 V-7 청소년기(고3) 대학 진학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만 19세 (7차 본조사)	만 20세 (1차 유지조사)	만 21세 (2차 유지조사)	만 22세 (3차 유지조사)	만 23세 (4차 유지조사)
학생	80.7%	84.8%	47.5%	47.7%	37.8%
학업/직업 병행	3.0%	4.5%	32.8%	18.8%	17.1%
직장(업)인	2.4%	3.1%	13.3%	21.0%	28.2%
무직	13.9%	7.6%	6.4%	12.5%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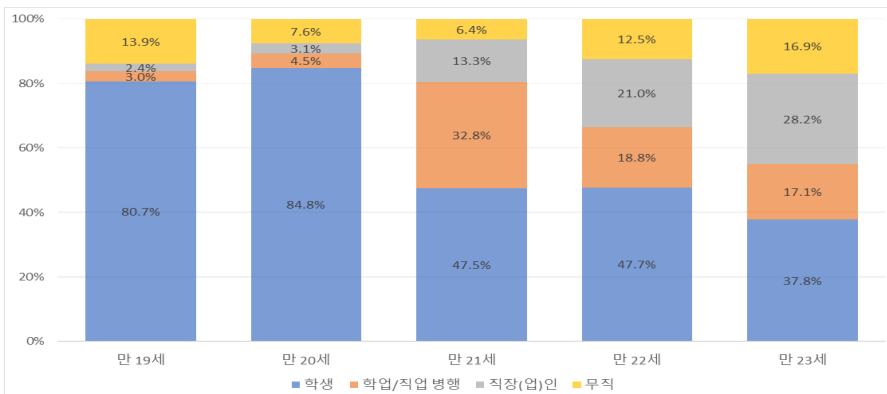


그림 V-5 청소년기(고3) 대학 진학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반면에 취업을 희망했던 표본의 경우 50~60% 정도가 취업(학업병행자 포함)하였다가(만 19세 55.8% → 만 20세 55.2%) 만 21세 이후에 70%정도가 취업한 것(만 21세 73.9% → 만 22세 69.9%, 만 23세 75.5%)로 나타났다.

표 V-8 청소년기(고3) 취업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만 19세 (7차 본조사)	만 20세 (1차 유지조사)	만 21세 (2차 유지조사)	만 22세 (3차 유지조사)	만 23세 (4차 유지조사)
학생	11.7%	19.5%	11.7%	11.7%	8.6%
학업/직업 병행	3.5%	3.3%	10.4%	11.0%	11.7%
직장(업)인	52.3%	51.9%	63.5%	58.9%	63.8%
무직	32.4%	25.2%	14.4%	18.4%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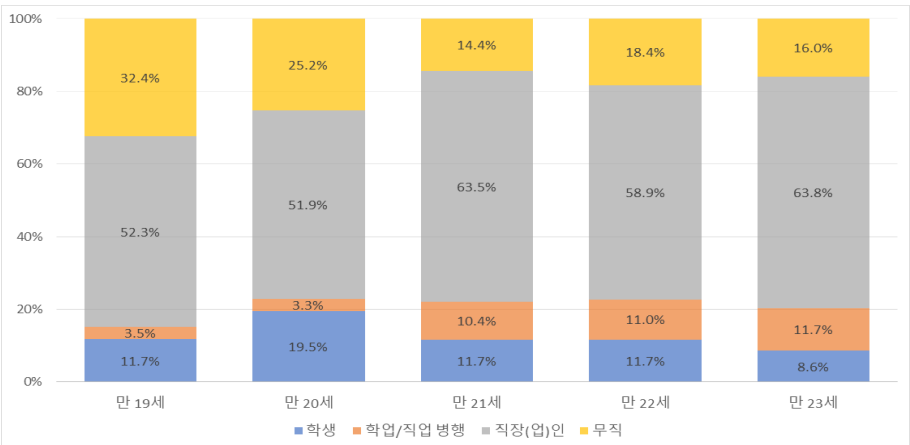


그림 V-6 청소년기(고3) 취업을 계획한 패널의 현재 상황

3.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2021년)⁴⁷⁾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의 주요 목적은 원패널과의 접촉 및 연락을 유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문항 수가 많지 않고, 1년 중 연말에 1회 정기적으로 접촉과 연락을 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KCYPS 2010 중1 코호트 대상 제5차 패널 유지조사(2021년)의 대상은 지금까지의 유지조사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연락처가 있는 원패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시점은 기존 유지조사와의 연속성을 위해 2021년 12월에 진행하였으며, 조사 내용도 제4차 유지조사 문항을 유지하였다.

유지조사의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패널에게 조사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간단한 웹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 CAWI) 참여를 독려한다. 1차 안내 문자에도 웹조사 설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안내 문자를 재발송하여 참여를 독려하며, 계속 설문이 미완료될 경우 학부모에게 문자와 유선으로 연락하여 원패널이 조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 응답 사례품을 조사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하여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였다.

47)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143-144)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제5차 유지조사의 유지율과 주요 조사 결과는 2022년 사업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표 V-9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5차 유지조사 조사항목

항목	내용	문항번호
공통문항	응답자(패널과의 관계)	문 1
	현 거주지	문 2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문 3
	가정생활 만족도	문 4
	청소년기 만족도	문 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 6
	전반적 생활만족도	문 9
	[남자]병역관계	문 7
	지난 1년간 신분변동 사항	문 8
	현재 신분상황	문 10
대학(원)생 조사문항	학교 소재지	문 11
	학교 유형	문 12
	전공	문 14
	학교생활 만족도	문 13
취업자 조사문항	직장 소재지	문 15
	직종	문 17
	종사상의 지위	문 18
	직장생활 만족도	문 16
무직자 조사문항	진학/취업 준비 여부	문 19
	진학/취업 가능성	문 19.1
	진학/취업 준비하지 않는 이유	문 19.2

○———— 제6장 연구기여

- 1. KCYPS 이용자 만족도
- 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

1. KCYPS 이용자 만족도49)

KCYPS 사업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연구 목적에 맞는 조사대상 설계와 조사영역 설계, 자료수집 방법을 포함한 조사설계,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패널관리,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한 실사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KCYPS 데이터는 데이터 클리닝과 가중치 산출 작업을 거쳐 익년 12월에 코드북, 유저가이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된다.

본 사업 제12차년도인 2021년에도 KCYPS 이용자들에게 KCYPS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그림 VI-1 KCYPS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위치

48) 제VI장은 하형석 연구위원, 황진구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49)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147~148)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문항은 KCYPS의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제공된 데이터의 이용(SPSS, SAS, STAT, CSV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코드북 구성(구성, 변수명, 코드설명, 하이퍼링크 등)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측정하는 문항, 품질의 신뢰성/유용성/다양성의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는 문항,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⁵⁰⁾하였다.

KCYPS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총 47명⁵¹⁾의 이용자들이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KCYPS 데이터 이용자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4.30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데이터 이용이 4.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코드북 이용(4.36점), 품질의 신뢰성과 품질의 유용성(각각 4.34점), 연구생산성 기여(4.30점), 품질의 다양성(4.0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질의 다양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일관된 조사 내용을 유지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관된 조사 내용 유지는 패널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조사 내용의 증가는 조사 시간의 증가를 야기하고 이는 원패널 유지율과 비표본오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KCYPS 2018 3차년도부터 스페셜 모듈(Special Module)을 도입하여 데이터 품질의 유용성과 다양성 일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0) 측정은 불만족부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측정.

51) 조사에 참여한 총 이용자는 47명으로 대학원생(석사 과정/박사 과정) 21명(44.7%), 연구기관 연구원 12명(25.5%), 대학 교수 9명(19.1%), 그 외 장학사, 전문상담사, 중학교 교사, 직장인, 행정직 각각 1명씩(2.1%)임.

표 VI-1 KCYPS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N=47)

문 항	평 균
1. 전반적 만족도	4.30
2. 데이터 이용(SPSS, SAS, STATA, CSV 등)	4.47
3. 코드북 이용(구성, 변수명, 코드설명, 하이퍼링크 등)	4.36
4. 품질의 신뢰성(제공 정보의 신뢰성 정도)	4.34
5. 품질의 유용성(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4.34
6. 품질의 다양성(내용의 풍부함이나 다양성 정도)	4.04
7. 연구생산성 기여	4.30

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⁵²⁾

1) 데이터 활용 실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성과는 공개되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생산된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공개를 전제로 생산되는 공공재 성격의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생산된 데이터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KCYPS 데이터를 이용한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 등의 양적 측면을 파악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패널조사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석사/박사) 및 학술지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보고서/단행본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3,511편⁵³⁾의 각종 논문과 보고서 등에서

52) 제11차년도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0, pp. 149~150)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53)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 실적은 주로 인터넷 학술검색 사이트를 통해

패널 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KYPs 2003의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간 총 1,187편, KCYPs 2010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2,002편, KCYPs 2018 데이터는 2019년부터 약 3년간 322편의 활용 실적을 보였다.

활용된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학술지논문에서의 활용이 62.0%로 가장 큰 비중(3,511편 중 2,176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YPs 2003의 데이터는 총 1,187건의 활용도를 보였는데, 학술지 논문이 764편(64.4%)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KCYPs 2010과 KCYPs 2018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3,511	100	1,187	100	2,002	100	322	100
학위 논문	박사	136	3.9	46	3.9	83	4.1	7	2.2
	석사	484	13.8	130	11.0	311	15.5	43	13.4
학술지논문		2,176	62.0	764	64.4	1,231	61.5	181	56.2
학술대회 발표논문		571	16.3	198	16.7	292	14.6	81	25.2
보고서/단행본		144	4.1	49	4.1	85	4.2	10	3.1

*2021년 기준 집계치임

또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박사학위 논문은 136편, 석사학위 논문은 484편으로 조사되었으며, KCYPs 2010의 데이터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의 데이터 공개 이후 연도별 활용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하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 활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실적을 살펴보면, 공개된 당해 년도인 2004년과 2011년, 2019년에는 각각 평균 30여편이 활용되었다가, KYPs 2003 데이터 공개 2년차에 해당되는 2005년에는 50여편인 반면에, KCYPs 2010의 경우 2012년 90여편으로 활용 실적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KCYPs 2018의 경우는 2년차에 해당하는 2020년 130여편에서 활용되었고, 2021년의 경우 150여편으로 나타남에 따라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VI-3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연도별 데이터 활용실적

구분	계	데이터 활용 실적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전 체	3,511	1,187	2,002	322
2004년	31	31	0	0
2005년	57	57	0	0
2006년	81	81	0	0
2007년	113	113	0	0
2008년	113	113	0	0
2009년	119	119	0	0
2010년	115	115	0	0
2011년	122	86	36	0
2012년	199	109	90	0
2013년	203	76	127	0
2014년	240	64	176	0
2015년	288	60	228	0
2016년	311	38	273	0
2017년	346	27	319	0
2018년	334	53	278	3
2019년	305	37	233	35
2020년	319	6	179	134
2021년*	215	2	63	150

*2021년 기준 집계치임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별 활용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KYPs 2003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그 활용 실적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KCYPs 2010의 경우도 2017년 319편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I-2 연도별 패널별 데이터 활용 전체 건수 변화

연도별로 활용된 연구물의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 매년 활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이후에는 매년 50편 이상의 논문에 활용되었고 전체적으로 484명의 석사학위자 배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학위논문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활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도 2010년까지는 매년 평균 50여편에 활용되었으나, 2010년 이후 2016년까지는 연 평균 130여편이, 2017년 이후에는 매년 200여편 이상의 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VI-4 연도별 데이터 활용 유형별 실적

구분	계	데이터 활용 실적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지	학술대회	단행본
전 체	3,511	136	484	2,176	571	144
2004년	31	0	0	15	15	1
2005년	57	0	1	20	32	4
2006년	81	1	2	33	41	4
2007년	113	1	8	60	38	6
2008년	113	4	6	65	34	4
2009년	119	4	13	66	32	4
2010년	115	2	6	102	1	4
2011년	122	5	16	70	23	8
2012년	199	7	24	113	43	12
2013년	203	5	29	107	50	12
2014년	240	7	30	149	40	14
2015년	288	11	42	177	41	17
2016년	311	8	54	190	41	18
2017년	346	28	59	200	38	21
2018년	334	22	50	253	1	8
2019년	305	15	49	198	40	3
2020년	319	6	56	221	33	3
2021년	215	10	39	137	28	1

2) 활용된 주요 키워드 분석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조사결과 데이터의 내용 중 어떠한 조사항목이나 변인 등이 주로 활용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학위논문, 학술지 수록 논문, 연구보고서의 키워드 분석을 진행⁵⁴⁾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된 키워드는 매개효과(329건), 부모(308건), 학교생활적응(224건), 우울(184건), 삶의 만족도(180건), 또래애착(162건) 등이었다.



그림 VI-5 KCYPS 2010 데이터 활용 실적 주요 키워드

KYPS 2018 데이터 활용 실적물 키워드를 살펴보면, 키워드 종류는 대략 500여종이었고, 전체 활용된 건수는 1,600여건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키워드는 그릿(77건), 부모(71건), 매개효과(70건), 자아존중감(55건), 학업열의(50건), 부모양육태도(32건), 양육태도(30건), 학업무기력(29건) 등이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경숙, 김완일 (2015). 청소년의 사회 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착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2), 515-541.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김국현, 김진숙 (2021). 한국판 고등학생 진로적응력 척도 타당화: 한국판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 **청소년학연구**, 28(2), 239-269.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6-R08).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서영, 안다영, 권순필, 이승희 (2010). **사회조사에서 자원자표본 인터넷조사 추정**,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소연, 전종설 (2016).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불안 및 정서조절곤란과 인터넷 중독 간의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1), 159-183.
- 김영원, 배예영 (2010). 인터넷 선거여론조사 가중치 보정을 위한 성향점수의 활용.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7(1), 55-66.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 (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 IEAICCS 2016-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연구보고 15-R18-3).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도현정, 김정민 (2014).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와 섭식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체형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3), 57-82.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박상언, 김재광, 김서영, 박라나, 박승환, 이주연 (2012). **혼합 조사에서의 추정 방법 개발 최종결과보고서**. 통계개발원 정책연구용역. 통계개발원.
- 박시내, 최유성, 한승훈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수집방법별 효과 분석: 응답자의 자료수집방법 선택효과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5(1), 73-92.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백지선, 민경아 (2016). 병행적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분석. **응용통계연구**, 29(5), 787-806.
- 송인덕, 조성겸 (2013). 서베이 모드와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전화 면접, 대면 면접, 온라인 서베이 응답 비교. **조사연구**, 14(2), 165-199.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연구총서 15-AA-07).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유현, 정소희, 최용용 (2018).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2), 125-147.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신경 (2015). **한국아동패널2015** (연구보고 2015-33).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진 (2017).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 이해와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9), 457-483.
- 임경은, 박라나 (2013). **혼합조사 추정방법 실무적용방안 검토 - 사교육비조사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정기보고서. 통계개발원.
- 임정하, 송지은, 곽태희, 백지민, 권오연 (2017). 남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209-235.
- 정문경, 오은주 (2015).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35-361.
- 조봉환, 임정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은경, 임정하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101-127.
- 최인수, 표정민 (2014).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8(1), 27-47.
-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IX :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0).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0-R12).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신갑. (2012). **혼합식 조사와 웹패널의 (열은) 빛과 (짙은) 그늘**. 조사연구,

13(3), 1-31.

황양주, 최유성 (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면접·인터넷 조사특성 분석.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1-01). 대전:통계개발원.

[외국문헌]

Baron-Cohen, S., Jolliffe, T., Mortimore, C., & Robertson, M. (1997). Another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Evidence from very high functioning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7), 813-822.

Baron-Cohen, S., Wheelwright, S., Hill, J., Raste, Y., & Plumb, I. (2001a).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a 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2), 241-251.

Baron-Cohen, S., Wheelwright, S., Spong, A., Scahill, V., & Lawson, J. (2001b).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1), 47-78.

Bates, J.M., & Granger, C. W. J. (1969). The Combination of Forecasts.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20, 451-468.

Biemer, P. B.(2001). Non-response bias and measurement bias in a comparison of face to face and telephone interviewing.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17(2), 295-320.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elens, B., Lann, J. V. D., Shouten, B., Burger, J., & Klausch, T. (2012). Disentangling mode-specific selection and measurement bias in social surveys. *Discussion Paper 2012*(11), Statistics Netherlands.
- Couper, M. P. (2000). Web Surveys: A Review of Issues and Approaches. *Public Opinion Quarterly*, 64, 464-494.
- Curtin, R., Presser, S., & Singer, E. (2000). The Effect of Response Rate Changes on the Index of Consumer Senti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64, 413-428.
- D'Agostino R.B. Jr. (1998). Propensity score methods for bias reduction in the comparison of a treatment to a non-randomized control group. *Statist. Med* 17(19), 2265-2281.
- Das, M. (2012). Innovation in online data collection for scientific research: the Dutch MESS project. *Methodological Innovations Online*, 7(1), 7-24.
- De Leeuw, E. (2005). To mix or not to mix? Data collection modes in surveys,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21, 1-23.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llman, D. A. (2000). *Mail and Internet surveys: The tailored design method*. 2nd ed.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Dillman, D. A., Phelps, G., Tortora, R., Swift, K., Kohrell, J., Berck, J., & Messer, B. L. (2009). Response rate and measurement differences in mixed-mode surveys using mail, telephone, interactive voice

- response (IVR), and the internet, *Social Science Research*, 38, 3-20.
- Diment, K., & Garrett-Jones, S. (2007). How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fect mode preference in a postal/web mixed-mode survey of Australian researcher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410-417.
- Gough, H. G., & Heilbrun, A. B. Jr.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roves, R. M. (2005). *Survey Errors and Survey Costs*(2nd ed).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Gruschwitz, D., Eggs, J., Nobis, C., & Schulz, A. (2018). Analyses of mixed survey mode effects in the German national travel survey 2017.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32, 339-350.
- Ilgun Dibek, M. (2019). Examination of the Extreme Response Style of Students using IRTree: The Case of TIMSS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Assessment Tools in Education*, 6(2), 300-313.
- Khorramdel, L., von Davier, M., & Pokropek, A. (2019). Combining mixture distribution and multidimensional IRTree models for the measurement of extreme response styl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72(3), 538-559.
- Klausch, T., Schouten, B., & Hox, J. (2014). The Use of Within-Subject Experiments for Estimating Measurement Effects in Mixed-mode Surveys. *Discussion Paper 2014*(6), Statistics Netherlands.
- Lee, S. (2006). Propensity score adjustment as a weighting scheme for volunteer panel web surveys.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22(2), 329-349.
- Lutig, P., Lensvelt-Mulders, G. J. L. M., Frerichs, R., & Greven, A.

- (2011). Estimating Nonresponse Bias and Mode Effects in a Mixed-Mod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3(5), 669-686.
- Olson, K., Smyth, J.D., & Wood, H.M. (2012). Does Giving People Their Preferred Survey Mode Activity Increase Survey Participation Rates? an Experimental Examin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4), 611-63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aum, P., & Rubin, D. (1984). Reducing Bias in Observational Studies Using Sub-Classification on the Propensity Scor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9.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1).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adaptability for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4), 355-374.
- Schillewaert, N., & Meulemeester, P. (2005). Comparing Response Distributions of Offline and On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7(2), 163-178.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Taylor, H. (2000). Does Internet research 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2(1), 51-63.
- UN (2020). *Monitoring the state of statistical operations under the COVID-19 Pandemic*.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Van der Laan, P., & Nunspeet, W. (2009). *Modernising Household*

Surveys in the Netherlands: Design, Efficiency Gains and Perspectives.

Vannieuwenhuyze, J., & Looseveldt, G. (2012). Evaluating Relative Mode Effects in Mixed-Mode Surveys: Three Methods to Disentangle Selection and Measurement Effects. *Sociological Method & Research*, 42(1), 82-104.

Vannieuwenhuyze, J., Loosveldt, G., & Molenberghs, G. (2010). A method for evaluating mode effects in mixed-mode surveys, *Public Opinion Quarterly*, 74, 1027-1045.

Voogt, R. J. J., & Saris, W. E. (2005). Mixed mode designs: finding the balance between nonresponse bias and mode effects,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21, 367-387.

부 록

-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조사문항 출처
-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아동·청소년용(초등) 제4차년도
기본모듈
-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아동·청소년용(중등) 제4차년도
기본모듈
- 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보호자용 제4차년도 기본모듈
- 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아동·청소년 / 보호자 제4차년도
스페셜모듈
- 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설문지
- 7.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부록

부록1. 제4차년도 조사문항 출처

부록2. 아동·청소년용(초등) 제4차년도 기본모듈

부록3. 아동·청소년용(중등) 제4차년도 기본모듈

부록4. 보호자용 제4차년도 기본모듈

부록5. 아동·청소년 / 보호자 제4차년도 스페셜모듈

부록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설문지

부록7.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조사문항 출처

부록표-1 KCYPS 2018 아동·청소년 조사 문항 출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개인발달	생활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취침/ 기상)과 질, 부모님 대화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배상률 외(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수정·보완함
발달환경	매체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 여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배상률 외(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의존도	김동일 외(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pp.629-644.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15 문항 사용
	활동/문화 환경	청소년활동	청소년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참고하여 구성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팬덤활동	선호 연예인/운동 선수 유무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팬덤활동	팬덤 활동 빈도	
개인발달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발달환경	학교	학교생활	학업성취 만족도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학교생활 만족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개인발달	지적발달	학업태도	학업 열의	이자영, 이상민(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 연구 24(1), pp.131-147. 한국형학업열의척도 16문항 사용
		학업태도	학업 무기력	박병기 외(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pp.5-29 학업무기력 척도 16문항 사용
	진로	진로계획	장래희망 교육수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장래직업 결정여부	
		진로관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	김국현, 김진숙 (2021). 한국판 고등학생 진로적응력 척도 타당화: 한국판 진로성숙도 적응력 양식. 청소년학연구, 28(2), 239-269. 진로적응력 척도 13문항 사용
	사회/정서/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Diener et al.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삶의 만족도 척도(SWLS) 번안문항 사용
			행복감	이정림 외(2015). 한국아동패널2015.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행복지수 관련 문항 사용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원문항을 번안 하여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개인발달	사회/정서 /역량발달 가정	정서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함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pp.729- 746. 중복문항 제외 및 문항 수정하여 사용
			사회적 위축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pp.155-166. 중복문항 제외 및 문항 수정하여 사용
			우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함	김광일 외(1984). 간이 정 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 울 : 중앙적성연구소. 우울 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
		협동의식	협동심	김태준 외(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 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청소년의 사 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협동영 역 14문항 사용.	
		창의성	창의적 성격	Gough, H. G., and Heilbrun, A. B.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la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의 창의적 특성 척도(CPS) 원문항을 번안한 최인수, 표정민(2014) 문항 사용	
		끈기	그릿(Grit)	김희명,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pp.63-74. Grit척도 8문항 사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발달환경	가정	부모관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 사용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 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pp.313-333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척도 24문항 사용
	학교	친구	친구관계	배성만 외(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한국청소년학회 pp.325-344 또래관계 질 척도 13문항 사용
		교사	교사관계	김종백, 김남희(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pp.697-714 학생-교사애착관계척도 14문항 사용
개인발달	비행	비행 I	현실비행 (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비행 II	사이버비행 (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이승현 외(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사이버 안전 실태조사 문항 중 사이버비행 관련 가해경험 15 문항 사용
	신체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체격	키, 몸무게	
스페셜 모듈	정서인식 역량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Baron-Cohen et al. (2001b).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1), 47-78.을 사용한 한국노동패널 제20차 조사 부가조사의 28문항을 사용

부록표-2 KCYPS 2018 보호자 조사 항목 출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배경변인		자녀 출생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가정	구성원	가구 구성원	
		구성원 역할	조사대상(자녀)에 대한 역할별 가구원	
		조사대상 관계	조사대상(자녀)과 함께 보내는 시간 (평일/주말)	
	교육	사교육	조사대상(자녀)의 사교육 유무, 사교육 받은/받지 않은 이유, 월평균 교육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신규 문항
	가정	보호자 관점	보호자가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녀)의 학업성취 정도	
			보호자가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녀)의 학교 성적 만족도	
			보호자가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보호자가 바라는 조사대상(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보호자 개인	매체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여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	배상률 외(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수정·보완함
			스마트폰 의존도	김동일 외(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pp.629-644.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15문항 사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보호자 개인	사회/정서 /역량	만족도	삶의 만족도	Diener et al.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삶의 만족도 척도(SWLS) 변안문항 사용
		행복	행복감	이정림 외(2015). 한국아동패널2015.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행복지수 관련 문항 사용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원문항을 번안하여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문항을 수정·보완함
		창의성	창의적 성격	Gough, H. G., and Heilbrun, A. B.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la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의 창의적 특성 척도(CPS) 원문항을 번안한 최인수, 표정민(2014) 문항 사용
	신체	끈기	그릿(Grit)	김희명,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pp.63-74. Grit척도 8문항 사용
		건강	건강상태 평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체격	키, 몸무게	
스페셜 모듈	정서인식 역량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Baron-Cohen et al. (2001b).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1), 47-78.을 사용한 한국노동패널 제20차 조사 부가조사의 28문항을 사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배경변인			보호자 출생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함
			보호자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 경제수준 평가	
			근로여부, 직업분류	김기현 외(201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2016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아동·청소년용(초등) 기본모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2021년)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KANTAR PUBLIC**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
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20
E-mail : kcyps@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칸타퍼블릭

홈페이지 : kantarpublic.co.kr
TEL : 010-3509-0914
E-mail : jiyoung.hwang@kantarpublic.com

문 1) 지난 학기(2021년 1학기) 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24시간 단위로 응답. 예 :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낮 12시 → (12) 시 (0) 분

항목	1a) 평일	1b) 주말
1-1) 기상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2) 취침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3) 평소 잠을 잘 잡니까?	① 매우 못 잔다	① 매우 못 잔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잔다	④ 매우 잘 잔다

항목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대화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원 및 과외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방과 후 학교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교 및 학원 숙제 포함)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독서시간 (교과서 및 참고서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학교 수업시간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위의 8)~1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2)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문3]으로 이동**

문 2-1)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학업 또는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13)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

문 2-2)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3)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①	못함 ②	보통 ③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4)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5)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5-1)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일주일 중
평균적으로 며칠씩 했습니까?

등교수업 _____ 일 / 5일 원격수업 _____ 일 / 5일

문 5-2)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등교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5-3)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원격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문 7)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다음 분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하십니까?

문 항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4) 친척·친지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6) 상담교사	①	②	③	④	⑤
7) 학원/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 8)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9a)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②	③	④

문 9b)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1)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①	②	③	④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①	②	③	④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11)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12)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①	②	③	④
15) 머리가 자주 아프다	①	②	③	④
16)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①	②	③	④
17)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자주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20)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1)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2)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23) 부끄럼을 많이 탄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5) 수줍어한다	①	②	③	④
2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27)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29)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1)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32)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33) 외롭다	①	②	③	④
3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35)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36)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문 1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14)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14a) 평일(하루 평균)	14b) 주말(하루 평균)
시간 분	시간 분

문 15)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_____명

문 15-1) 귀하는 형제자매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순서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15-1a) 평일(하루 평균)	15-1b) 주말(하루 평균)	
첫째 형제자매	시간	시간	☐ 본인
	분	분	
둘째 형제자매	시간	시간	☐ 본인
	분	분	
셋째 형제자매	시간	시간	☐ 본인
	분	분	

문 16)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지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문 17)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①	②	③	④
7)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8)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9)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 채신다	①	②	③	④
14)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문 19)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 3. 건강한 편이다 | 4. 매우 건강하다 |

문 20)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 |
|--------|-----------|--------|
| 1. 없다 | 2. 1시간 | 3. 2시간 |
| 4. 3시간 | 5. 4시간 이상 | |

문 21)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문 22)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_____cm / 몸무게 : _____kg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아동·청소년용(중등) 기본모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2021년)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KANTAR PUBLIC**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
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20
E-mail : kcyps@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칸타퍼블릭

홈페이지 : kantarpublic.co.kr
TEL : 010-3509-0914
E-mail : jiyoung.hwang@kantarpublic.com

문 1) 지난 학기(2020년 1학기) 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24시간 단위로 응답. 예 :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낮 12시 → (12) 시 (0) 분

항목	1a) 평일	1b) 주말
1-1) 기상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2) 취침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1-3) 평소 잠을 잘 잡니까?	① 매우 못 잔다	① 매우 못 잔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잔다	④ 매우 잘 잔다

항목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대화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원 및 과외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인터넷 및 TV강의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방과 후 학교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교 및 학원 숙제 포함)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독서시간 (교과서 및 참고서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학교 수업시간 외)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위의 8)~11)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	평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2)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문3]으로 이동**

문 2-1)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학업 또는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13)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

문 2-2) **([문2]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3)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참여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청소년활동 : 자신의 특기나 적성 계발을 위하여 또는 취미·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하는 활동을 말함

활 동	3a)지난 1년간 참여 횟수				3b)(참여한 적이 있다면) 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활동 (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4)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4a)지난 1년간 참여 횟수				4b) (참여한 적이 있다면)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교내 공식 동아리 (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교외 공식 동아리 (청소년수련관, 사회 복지관 등에서 지원 하는 모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5)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1. 있다  **[문5-1]로 이동** 2. 없다  **[문6]으로 이동**

문 5-1) **([문5]에서 ‘1. 있다’ 인 경우만 응답)**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팬미팅(싸인회) 참석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팬클럽이나 팬카페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방송국이나 공연장, 영화관(시사회), 경기장, 행사장가기	①	②	③	④	⑤	⑥
4) 팬레터 쓰기 및 메시지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⑥
5) 선물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SNS, 블로그, 트위터, 기사 등에 댓글 달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사진과 동영상 감상 및 업로드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8) 책, CD, DVD, 화보집 구입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9) 굿즈(응원봉, 캐릭터, 플래카드, 인형 등) 만들기 또는 구입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문 6)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①	못함 ②	보통 ③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7)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1)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일주일 중
평균적으로 며칠씩 했습니까?

등교수업 _____ 일 / 5일 원격수업 _____ 일 / 5일

문 8-2)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등교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3)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원격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9)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6)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7)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10)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2)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13)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6)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11)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

1. 고등학교 졸업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교 졸업

4.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5. 잘 모르겠음

문 12) 장래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1.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문 13)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다음 분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하십니까?

문 항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4) 친척·친지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6) 상담교사	①	②	③	④	⑤
7) 학원/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 14)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바라는 직업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정말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직업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세운 직업 계획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9) 사람마다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 나는 어떤 분야의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 선택을 계속 바꾸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자주 공상하지만 실제로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 15)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16a)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②	③	④

문 16b)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문 17)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①	②	③	④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①	②	③	④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①	②	③	④
11)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12)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①	②	③	④
15) 머리가 자주 아프다	①	②	③	④
16)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①	②	③	④
17)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자주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20)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1)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2)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23) 부끄럼을 많이 탄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5) 수줍어한다	①	②	③	④
2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27)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29)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1)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32)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33) 외롭다	①	②	③	④
3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35)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36)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 20) 본인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선택(O)	단어	선택(O)
유능한		매력적인	
영리한		속물의	
확신에 찬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화자찬의		가식적인	
유머감각이 있는		매사에 조심스러운	
개인주의적인		평범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보수적인	
통찰력이 있는		관습적인	
지적인		불만에 찬	
관심이 다양한		정직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관심의 폭이 좁은	
독창적인		예의바른	
심사숙고하는		진실한	
기지가 있는 (재치있는, 임기응변의)		순종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의심이 많은	

문 21)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22)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1a) 평일(하루 평균)		21b) 주말(하루 평균)	
시간 분		시간 분	

문 23)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_____명

문 23-1) 귀하는 형제자매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순서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2-1a) 평일(하루 평균)	22-1b) 주말(하루 평균)	
첫째 형제자매	시간 분	시간 분	☐ 본인
둘째 형제자매	시간 분	시간 분	☐ 본인
셋째 형제자매	시간 분	시간 분	☐ 본인

문 24)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문 25)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26)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①	②	③	④
7)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8)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9)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 채신다	①	②	③	④
14)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문 27)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담배 피우기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 마시기(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정도마시는 경우는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3)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4)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⑤	⑥
7) 패싸움	①	②	③	④	⑤	⑥
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③	④	⑤	⑥
9) 다른 사람 협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빙뜰기)	①	②	③	④	⑤	⑥
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2) 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13) 성폭행이나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⑥
14) 돈을 걸고 도박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15) 심한 욕설과 폭언	①	②	③	④	⑤	⑥

문 28)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 스토킹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 엽사,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누군가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와이파이 셔틀이나 핫스팟 셔틀(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시키는 것)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말,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먼저 욕하게 하거나 성격에 문제있어 보이게 유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격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대화방에 일부러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닷 글이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29)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 3. 건강한 편이다 | 4. 매우 건강하다 |

문 30)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 |
|--------|-----------|--------|
| 1. 없다 | 2. 1시간 | 3. 2시간 |
| 4. 3시간 | 5. 4시간 이상 | |

문 31)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 일

문 32)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_____ cm / 몸무게 : _____ kg

문 33) 몽정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시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2. 초등학교 1~3학년 |
| 3. 초등학교 4학년 | 4. 초등학교 5학년 |
| 5. 초등학교 6학년 | 6. 중학교 1학년 |
| 7. 중학교 2학년 | 8. 중학교 3학년 |
| 9. 고등학교 1학년 | 10. 고등학교 2학년 이후 |

문 33) 초경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시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2. 초등학교 1~3학년 |
| 3. 초등학교 4학년 | 4. 초등학교 5학년 |
| 5. 초등학교 6학년 | 6. 중학교 1학년 |
| 7. 중학교 2학년 | 8. 중학교 3학년 |
| 9. 고등학교 1학년 | 10. 고등학교 2학년 이후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보호자용 기본모듈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2021년)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KANTAR PUBLIC**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
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20
E-mail : kcyps@nypi.re.kr

조
사
대
행
기
관

칸타퍼블릭

홈페이지 : kantarpublic.co.kr
TEL : 010-3509-0914
E-mail : jiyoung.hwang@kantarpublic.com

1. 국내(시/도) 2. 해외(국가명 :)

부 모 : 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조부모 : 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 문 3)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은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3]에서 ①에 응답자〉

문 3-1)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받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교육을 받은 이유	
〈보기 항목〉	1.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2.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3.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4.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5. 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해 6.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7. 학교 후 돌봐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8. 기타 _____

문 3-2)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교육비를 응답해 주십시오.

_____만원

문 3-3)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받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보기 항목〉	1.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2.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3.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4. 마땅한 과외 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5. 사교육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6. 사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7.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8. 기타 _____

문 4) 다음 중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에게 다음의 역할을 하는
가구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 대상 자녀(또는 피양육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호자	
☞ 아래 <보기 항목> 중 선택	
1)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주양육자	
※ 주양육자 : 자녀양육에 시간과 노력 등을 가장 많이 들이는 사람	
2)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학교 관련 일정을 주로 관리하는 보호자	
3)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사교육 관련 일정을 주로 관리하는 보호자	
4) 자녀(또는 피양육자)의 교우관계 형성에 주로 관여하는 보호자	

보호자	
<보기 항목>	1. 어머니
	2. 아버지
	3. (외)할머니
	4. (외)할아버지
	5. 형제자매
	6. 기타 친인척
	7.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문 5)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문 5-1) 귀하는 자녀와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각 자녀별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자녀가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 원패널)에 해당하는 경우 원패널을 선택해 주십시오.

※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학습활동, 여가활동, 대화시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수면 시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5-1a) 평일(하루 평균)	5-1b) 주말(하루 평균)	
첫째 자녀	시간 분	시간 분	☐ 원패널
둘째 자녀	시간 분	시간 분	☐ 원패널
셋째 자녀	시간 분	시간 분	☐ 원패널

문 6)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함 ①	못함 ②	보통 ③	잘함 ④	매우 잘함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7)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1)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학교생활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일주일 중 평균적으로 며칠씩 했습니까?

등교수업 _____ 일 / 5일 원격수업 _____ 일 / 5일

문 8-2)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등교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8-3)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21년도 1학기)** **원격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⑤	잘 모르겠음 ⑥

문 9) 귀하는 전반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이 어느 정도 수준
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 | | |
|---------------|-------------------|
| 1. 고등학교 졸업 | 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
| 3. 4년제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
| 5. 잘 모르겠음 | |

“지금부터는 귀하 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 10) 귀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1. 예.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2. 예.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다른 가족의 것을 이용함
3. 아니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문11]로 이동**

문 10-1) **([문10]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 한다	자주 사용 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5)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8) TV 및 동영상 시청 (DMB,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 등)	①	②	③	④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12) 학업 또는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13)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

문 10-2) ([문10]에서 ①, ② 에 응답한 사람만) 귀하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11) 현재 귀하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 12a)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①	②	③	④

문 12b)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4) 본인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해 주십시오.

단어	선택(O)	단어	선택(O)
유능한		매력적인	
영리한		속물의	
확신에 찬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화자찬의		가식적인	
유머감각이 있는		매사에 조심스러운	
개인주의적인		평범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보수적인	
통찰력이 있는		관습적인	
지적인		불만에 찬	
관심이 다양한		정직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관심의 폭이 좁은	
독창적인		예의바른	
심사숙고하는		진실한	
기지가 있는 (재치있는, 임기응변의)		순종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의심이 많은	

문 15)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16) 귀하는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건강하지 않다
2.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 건강한 편이다
4. 매우 건강하다

문 17) 귀하는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1. 없다
2. 1시간
3. 2시간
4. 3시간
5. 4시간 이상

문 18) 귀하는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문 19)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_____cm / 몸무게 : _____kg

문 20) 귀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1. 국내(_____시/도)
2. 해외(국가명 : _____)

문 21)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3)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문 22)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이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도 '1. 예'에 해당됩니다.

구분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2) 어머니	①	②	③
3) 보호자(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문 22-1)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의 직업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기타 (적을 것 : _____)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문 23)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1. 소득 없음
2.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6.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7.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8.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9.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10.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1.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2. 1,000만 원 이상

문 24) 귀 닥의 가정 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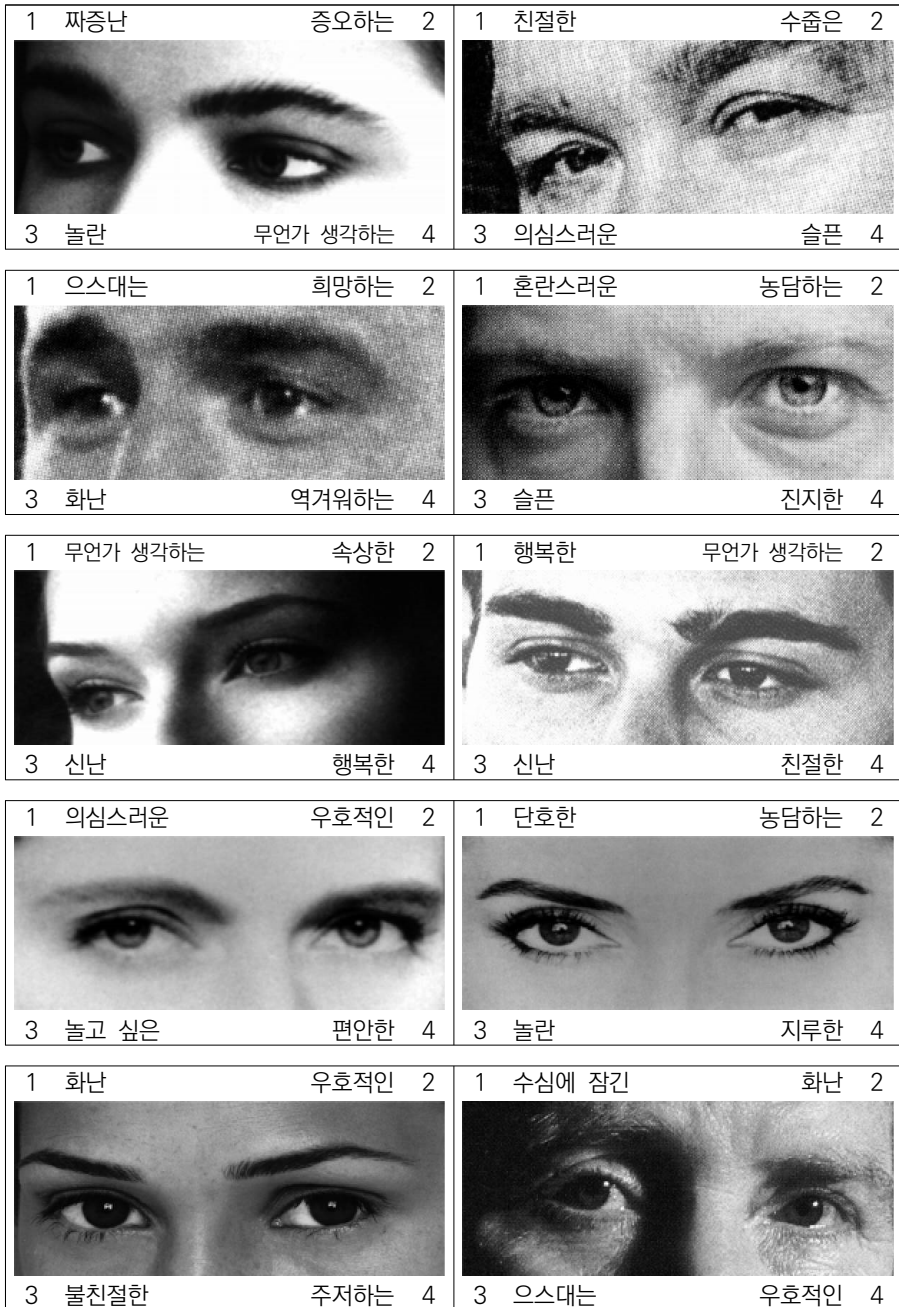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2021년) 스페셜모듈

문) 각각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한 단어만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증오하는  3 친절한 짜증난 4	1 불안  3 불친절한 짜증난 2
1 우호적인  3 놀란 슬픈 2	1 편안한  3 놀란 속상한 2
1 가여워하는  3 농담하는 편안한 4	1 증오하는  3 걱정하는 지루한 4
1 가여워하는  3 흥미있는 농담하는 4	1 회상하는  3 우호적인 화난 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2021년) 설문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제5차(2021년) 유지조사 설문지 (웹조사)

[문 1] 귀하께서는 '○○○님'(조사대상 패널 이름)과 어떤 관계입니까?

1. 본인
2.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 조사종료
3. 기타(형제자매, 비혈연 등) ☐ 조사종료

[문 2]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응답)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

[문 3]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부모님(또는 두 분 중의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다
2.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
3. 부모님(양친 모두)이 안 계시다

[문 4]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5] 귀하가 보냈던 청소년기는 전반적으로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 2.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
| 5. 매우 만족스러웠다 | |

[문 6]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

- | | |
|--------------|---------------|
| 1. 재산·경제력 | 6. 종교생활 |
| 2. 화목한 가정 | 7. 직업·직장 |
| 3. 자아성취 | 8. 연인(이성관계 등) |
| 4. 건강 | 9. 친구·대인관계 |
| 5. 감사·긍정적 태도 | 10. 꿈·목표의식 |

[문 7] [남자만 응답] 귀하의 병역관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미필) | 2. 현재 군 복무 중이다(현역) |
| 3. 병역을 마쳤다 | 4. 병역 면제자이다 |

[문 8] **지난 1년 동안(2020년 12월 ~ 현재)** 귀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서 “직장”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무 또는 직업활동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 | | |
|-------------------|----------------------|
| 1. 대학을 졸업했다 | 2. 대학(또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
| 3. 대학을 중퇴했다 | 4. 처음으로 직장에 취업했다 |
| 5. 직장을 옮겼다(이직/전업) | 6. 직장을 그만 두었다(현재 무직) |

[남자만 응답] 7. 군에 입대했다

[남자만 응답] 8. 군에서 제대했다

[문 9]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10] 현재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여기서 “일”은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직장 근무 또는 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1.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 ☞ [A 대학(원)생 조사문항]
응답 |
| 2.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
(주된 신분은 학생) | ☞ [A 대학(원)생 조사문항]
[B 취업자 조사문항] 모두
응답 |
| 3.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주된 신분은 직장인) | |
| 4.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 | ☞ [B 취업자 조사문항] 응답 |
| 5.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 | ☞ [C 무직자 조사문항] 응답 |

A 대학(원)생 조사문항

[문 11] 재학 중인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

[문 12] 재학 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2년제 전문대학 | 2. 3년제 전문대학 |
| 3. 4년제 대학교 | 4. 5~6년제 대학교 |
| 5. 대학원 | |

[문 13] 현재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14] 귀하의 전공(또는 학과, 계열 등)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전공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전공 선택)

전공 계열 구분	세부 전공
1. 인문계열	- 언어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기타 아시아어문학, 영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 - 문헌정보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 교육인문학
2. 경제경영계열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경상학

전공 계열 구분	세부 전공
3. 법률계열	• 법학
4. 사회과학계열	•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5. 교육계열	• 교육학 • 유아교육학 • 특수교육학 • 초등교육학 • 언어교육, 인문교육, 사회교육, 공학교육, 자연계교육, 예체능교육
6. 공학계열	•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 토목공학, 도시공학 •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 산업공학 • 화학공학 •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7. 자연계열	•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8. 의료계열	• 의학, 치의학, 한의학
9. 간호계열	• 간호학
10. 약학계열	• 약학
11. 치료보건계열	•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12. 디자인계열	• 디자인 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13. 응용예술계열	•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14. 무용·체육계열	• 무용, 체육
15. 미술·조형계열	•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16. 연극영화계열	• 연극·영화
17. 음악계열	•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18. 자유전공	

B 취업자 조사문항

[문 15]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직업)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

[문 16] 현재 자신의 직장(직업)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만족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 5. 매우 만족한다 | |

[문 17] 현재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직종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 선택)

직종 구분	세부 직종
1.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직종 구분	세부 직종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군인

[문 18] 현재 직업(직장)에서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상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 ※ **임시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 ※ **일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근로자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직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 **무급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 | | |
|-----------------|-----------------|
| 1. 상용근로자 | 2. 임시근로자 |
| 3. 일용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 종사자 |

C 무직자 조사문항

[문 19] 현재 대학 진학 또는 취업/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2. 취업/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문 19.1] (1, 2번 응답자) 앞으로 1년 이내에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낮다 | 2. 낮은 편이다 |
| 3. 높은 편이다 | 4. 매우 높다 |

[문 19.2] (3번 응답자) 현재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건강상의 문제로
2. 집안사정 때문에(가사, 육아, 병간호 등)
3. 병역문제 때문에
4. 공부나 일을 하기 싫어서
5. 현재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취미활동, 여행 등)
6. 진학이나 취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7. 기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팀 -

□ 귀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1]로 이동

○ 아니오 ☞ [2]로 이동

[1] 다음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불만족 <—————> 만족				
1.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데이터 이용(SPSS, SAS, STATA, CSV 등)	①	②	③	④	⑤
3. 코드북 이용(구성, 변수명, 코드설명, 하이퍼링크 등)	①	②	③	④	⑤
4. 품질의 신뢰성(제공 정보의 신뢰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5. 품질의 유용성(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품질의 다양성(내용의 풍부함이나 다양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연구생산성 기여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대학원생(석사, 박사) ④ 기타()

[3]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청소년학 ② 교육학 ③ 심리학 ④ 사회학 ⑤ 사회복지학 ⑥ 기타()

끝까지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KCYPS 2018은 기본적으로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되는데, 제3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방법의 변경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면접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는 코로나19로 면접원 대면접촉에 부담이 있는 패널에 대해 기 구축된 TAPI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를 병행하였다.

온라인조사 병행으로의 조사방식 변경은 결론론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작용은 패널유지율을 크게 하락시키지 않은 것(제2차년도 패널유지율 대비 1.5%p 하락)이고, 반작용은 조사방식의 차이에 따른 조사결과 차이인 조사도구 효과(mode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조사도구 병행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 조사도구 효과가 모든 문항 또는 응답들에서 동일하거나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조사도구에 따라 응답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조사에

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널유지율의 감소를 최소화 시켰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조사 병행의 이익이 조사도구 효과에 따른 결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손해보다 종합적으로 크다고 판단된다.

2011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고, 금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메타버스(Metaverse)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하였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는 단순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이용한 학술대회의 여러 단점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술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KCYPS 2018 제4차년도 조사인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사운영과 같은 조사 외적인 변화와 원패널의 학교급이 바뀌는 조사 내적인 변화에 맞춰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을 파악하는 기본 모듈을 수정하고 문항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정서인식 역량을 조사하는 문항을 스페셜 모듈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 등이 약 3,560여 편에 달할 정도로 학술연구에서의 활용도가 높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KCYPS 2018 제1차~제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학위논문과 학술 논문은 약 330여 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에는 KCYPS 2018 제3차년도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제3차년도 조사부터 스페셜 모듈이 포함되었고, 코호트 별 하나의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조사 시점이 완성되기 때문에 학계의 관심과 데이터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hereinafter “KCYPs”)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making and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by building panel data that can be used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ths. KCYPs 2018, which began in 2018 and is still underway, is building data that helps researchers examine complex chang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ths in a systemic and multi-faceted way.

KCYPs 2018 is basically a face-to-face interview. However, in the third-year survey of KCYPs 2018, some changes were made to the survey method. Since the COVID-19 outbreak made it difficult to conduct face-to-face interview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parallel from November 2020 using the established TAPI system for panels who were reluctant to meet with interviewers in person. The change of survey method by adding the online survey resulted in the coexistence of action and reaction. The action was that the panel retention rate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1.5%p decrease compared to the panel retention rate in the second year), and the reaction

was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mode effect, which is a difference in the survey result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survey method. Therefore,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arallel use of these survey tool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survey tool did not appear in the same or a consistent pattern for all questions or responses, but it confirmed tha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response values depending on the survey tool. In terms of minimizing the decrease in the panel retention r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panel survey, it is believed that the benefits obtained by adding the online survey are greater than the damage caused by the possibility of differences in the survey results due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urvey tool.

The Conference o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hich has been held every year since 2011,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However, this year, it was held online in a metaverse format in consideration of the spread of COVID-19 a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By hosting the conference online in a metaverse format, this year's KCYPS received positive feedback for solving various shortcomings of traditional academic conferences using the simple method of video conferencing and enabled various types of academic activities in the online space.

In 2021, the fourth year of the KCYPS 2018, a basic module for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environ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corrected, and some questions were added in line with external changes such as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schools and internal changes such as school level changes in the original panel. In addition, a special module investigating emotional awareness was created.

The data from KCYPS 2003, KCYPS 2010, and KCYPS 2018 have been used widely in academic papers (with the number of papers leveraging the data reaching about 3,560) and also frequently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s. In particular, about 330 dissertations and academic papers have used the data from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KCYPS 2018, which were released only two years ago. In December 2021, the data for the third year of KCYPS 2018 will be released. Use of the KCYPS 2018 data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further since the special module was included and the survey period of one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per cohort was completed in the third year of the survey.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효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직립금

- 21-R26 청소년 정책연구 동향 분석 / 이지연

수 탁 과 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선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운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운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흥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교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2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28-2 94330

979-11-5654-327-5 (세트)

연구보고 21-R13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28-2
ISBN 979-11-5654-327-5(세트)